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승속이 서로 존경
사회의 등불이 되자
9면

현대불교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분노의 요인이며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금주의 법구 〈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29호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초임장교 포교 대책 시급하다

육사 제외한 공·해사 불자 졸업생 감소

육 · 해 · 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에서 불자장교들의 졸업법회가 연이어 열린 가운데 초임임관 장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2월 7일과 14일, 20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졸업법회를 개최했다.

2013년 육 · 해 · 공군사관생도 졸업법회 인원은 2012년과 비교해 총 174명에서 175명으로 대동소이했으나 육군만 크게 늘었을 뿐 해군과 공군은 감소했다. 게다가 3사관학교 불자생도는 169명에서 150명으로, 간호사관학교 불자생도는 2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지휘관들의 종교에 따라 사병들의 종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교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홍래 준부사관불자회장은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며 "특히 지휘관이 독실한 개신교일 경우 사찰에 오지 않는 간부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김병관 前 군불총 회장도 2007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대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부대 전체의 종교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병들은 중대장이나 소대장 같은 중간 간부들을 보며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군종교구는 장군 진급과 중대장 부임시 지휘봉을 선물하는 등 장교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군불교 차원에서 장교포교는 군내 사조직 활동이 금지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관학교 등 생도 때부터 불자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생도에 대한 포교는 사관학교 차원에서 각 종교의 물량공세식 선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교에 유리한 면이 있다.

육군사관학교 호국화랑사에는 1~4학년까지 900여 명이 교육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병 포함 기관병 등 평균 200~250명의 군불자들이 법당을 찾는다.

장성화 군종교구 종책기획실장은 "교구에서 초임 장교들을 중심으로 종단 신도증 발행을 해주고 교구장 스님이 직접 연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관학교에서 유발상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발상좌 제도는 생도 기간동안

3사관 및 간호사관도 줄어

ROTC · 부사관 등에도 관심

유발상좌 제도 실효 보려면

영외 신행 사찰 참여해야

3~4학년 때 스님들이 장교들에게 직접 신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발상좌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부대 인근 사찰과 장교가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상좌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익환 예비역불자회 총무는 "군장교들은 순환 근무로 인해 옮겨다니기 때문에 본 가정 인근의 사찰 등에서 상좌제도에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한 부대에서 활동하는 부사관 등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OTC(학군사관후보생) 출신 전현직 장교 불자들은 2월 21일 육군회관에서 ROTC불자연합회를 구성하고 후배장교의 법회 지원 등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안거 해제 종정 · 방장 법어 8면



할아버지와 '강남스타일'을

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선보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회갑 · 칠순 · 팔순을 맞이한 자원봉사자 어르신 45명을 초청해 '9988 백수연'을 열었다. 이날 서울 자양동 효지어린이집 어린이들도 함께해 풍물공연과 가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 목적 기금 운용체계 만든다

조계종 기금관리령 입법예고

조계종이 교육 불사를 비롯한 포교, 문화 사회 등의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 운영 체계가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령' 제정안을 2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종단은 교육, 포교 진흥, 문화, 사회, 전산, 종책 연구에 대한 기금을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의 운용은 총무원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되며 관리는 재무부에서 이뤄진다.

또한 기금의 예산을 포함한 운용계획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차기 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기금 운영 부서의 장은 기금 사용 내용을 출연 기관과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의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조계종은 오는 3월 4일까지 '기금관리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후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문의 (02)2011-1751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정책 협의위한 불교 전문위원회 필요

조계종 불교사회硏, 양극화 해법 기초 연구서 발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불교계의 해법 모색은 요원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이 처음으로 양극화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한 연구서를 최근 발간했다.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연구서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총론적 연구물로 책임집필위원에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이, 공동집필위원에는 홍현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꼽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홍현호 위원은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복지 수준을 비롯해 △신자유주의의 악영향 △과도한 수출만능주의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 입지 약화 △제조업 위주의 기술 진보 등을 꼽았다.

실제 한국의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7.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2%보다 11.6%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복지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143조억 원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위원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도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복지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진적 개방으로 내수 기반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양극화 원인

경제수준 보다 낮은 복지

고용없는 성장의 악순환

불교적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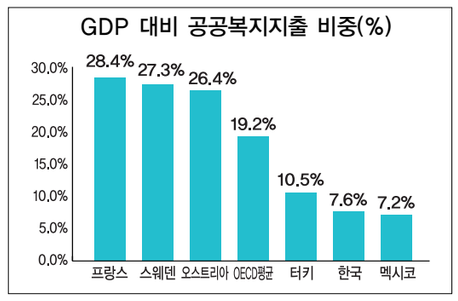
사회적 안전망 구축위한

자리이타의 복지 추진

사회 문제 전문 연구도

여력과 인적 개발이 소진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으로 서민 경제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제조업 분야 투자는 크게 늘고 있으나 일자리는 427만개에서 408만개로 감소했다. 고용없는 성장 역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복지국가 체제를 주목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국가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은 불교계가 가져가야 할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권경임 위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이외에도 보조금과 지침에 안주해 안이하게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불교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의 책임이 크다"며 "불교는 자체 조직을 활용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국민이 복지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 사찰 간 연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적 해법으로 △현 결사추진본부, 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정책 협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종단 산하 사회정책 아카데미 개설 △문화와 사회정책의 통합적 연구와 프로그램 기획 △복지국가 수립과 행복지수를 함께 높이는 정책 제시 △글로벌 불교 연대를 통한 사회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서는 "불교계는 현 시대에 맞는 사회 이념을 제시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질, 정신적 복지에 대한 방안과 자본주의의 탐욕스런 경제를 극복하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푸어' 등 세부적인 양극화 연구에 들어가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929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림법 개정 빨간불
정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교불련 창립 25주년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식 5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양양 낙산사

화엄만다라-진오 스님 16·17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최단 기간 200만 부 베스트셀러 등극! (비소설 분야)

"사랑하는 이의 소중한 인생에 선물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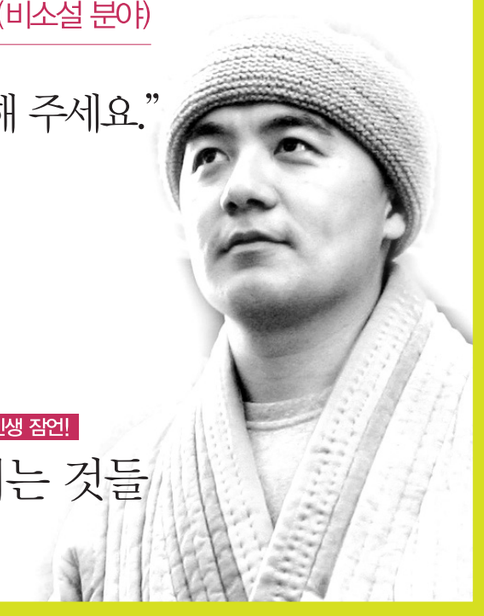
용기를 주고 싶을 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 200만 독자의 선택!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우창헌 그림 | 값 14,000원



정목 스님이 마음으로 추천하는 책!

"따뜻한 체온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적셔놓는 이 책은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구의 손길 같습니다." –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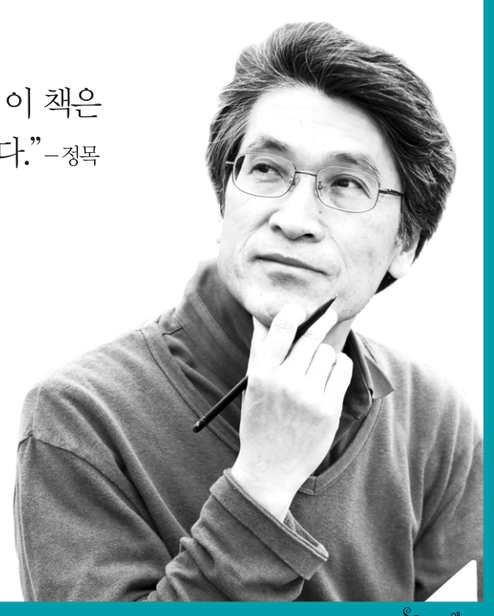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나의 치유는 너다

김재진 지음 | 값 14,000원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 1층 파주출판도시 | 전화 : 031-960-4800 | 쌤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쌤앤파커스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그대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리니,
지금 당장 떠날 차비를 하라.

당신은 수 세기 동안 살 집을 지으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떠나간 뒤에도 수 세기 동안 남아 있을 그런 집 말입니다. 당신은 운수대통하여 남은 여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꿈꾸어 보지 않았나요? 이 '영원이라는 악마'는 우리를 유혹해서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할 것 같은 믿음은 결국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임종 시에 얼마나 비극적인지 보세요.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에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유했던 소유물과 최종 유언장에 정신이 팔립니다.

사실상 그것은 집착 목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의미있는 어떤 것을 완전히 간과해 버린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몸이나, 어떤 물건이나, 거처할 장소마저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현자나 진정한 수행자에 대해 이야기를 듣거나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무되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영이며, 잠시동안만 빌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윤회계 육도에서의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르침에 다가가기 위해 선장이 항해를 위해 세심히 준비하듯 이 생사를 넘나는 긴 여행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총림법 개정 추진 '빨간불'

조계종 중앙종회 등 총림제도 개선 공청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9일 열리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던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중앙과 일선 총림 간 온도차가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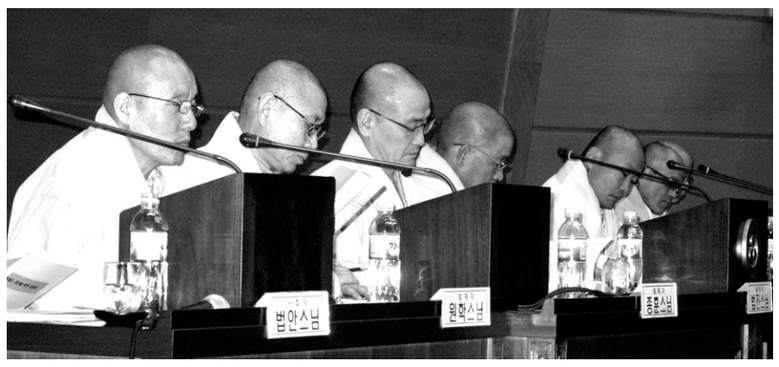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 총림실사위원회, 종단 쇄신위원회는 2월 22일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원학스님, 결사총괄부장 종훈 스님,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이 총림의 실태와 그간 종헌종법 특위와 종단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지정·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총 4가지에 걸쳐 쟁점이 불거졌다. 먼저 쇄신위와 종헌종법특위가 제시한 교구 총림제와 △현행 총림법에만 명기된 방장 자격요건인 '20안거 이상 성만' 명기 여부 △총림 주지 선출 및 역할 △임회 구성과 역할 등이다.

쇄신위와 종헌종법특위는 총림본사에 선원과 강원을 두고 교구 내에 율원·염불원·삼장원·행원 중 하나를 갖추도록 하는 교구 총림제 방안을 설명했으며, 임회에 대해서는 교구종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총림 주지 선출에 대해 방장이 추천해 총무원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기존의 방식을 임회가 복수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방장이 1인을 추천하거나, 방장이 추천해 임회가 선출하는 방법을 내놨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 쇄신위원회는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림법 개정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적지 않는 토론자가 총림법 개정을 반대했다.

중앙·총림 간 온도차 커
교구 총림 확대는 공감
방장 자격 놓고 의견 갈려
"사회 구조로 재단 말라"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적지 않은 수의 일선 총림 관계자와 수좌들은 총림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해인총림 대표로 심우 스님(중앙종회의원)은 "현행 총림법을 고칠 이유가 없다. 본사 주지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총림을 추진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성두 스님은 "총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종단의 역할"이라며 "무분별한 총림 지정과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방장 자격 기준인 '20안거 성만'에 대해서도 "방장은 10년 이상 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수행정진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중생활을 해보지 않고 대중을 어떻게 제접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대표로 기획국장·총무국장 소임 스님들과 동화사 금당선원 수좌 능해 스님도 기존 법안을 유지 보수하며 총림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다만 토론자들은 교구 총림제로의 총림 개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前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은 "현재 총림의 개념이 시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산중이 아닌 교구 전반으로 총림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선원과 강원을 제외한 수행 기관을 수말사에 둘 수 있다는 점만 기존 총림과 다르다. 총림의 본래 취지와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첫 종무원 행정학교 문 연다

조계종 3월 6일~9일… 기본소양 등 강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중앙종무기관과 일선 사찰의 종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연다.

조계종은 2월 19일 열린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2013년 종무행정학교 요강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합리적 사찰 운영을 위한 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는 불교적 소양과 종무역량을 함께 갖춘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본소양과정(예비~1년 미만 종무원) △역량 향상 과정(1~5년 미만 종무원) △종무 전문 과정(5년 이상 종무원)으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 첫 개설되는 종무행정학교는 기본소양과정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다.

대상은 경력 1년 이내의 본말사 재가 종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와 종무원에 관심있는 불자로 선착순 40명이다. 교육 내용은 △종무원의 마음가짐 △불교, 종단의 이해 △사찰 종무행정 실무 등으로 이뤄진다.

실무·전문 교육 과정 준비 중
'배출·배치·순환' 구조 확립

실무역량 향상과정은 △행복한 관계맺기 △마음을 움직이는 모연 △재무회계 실무 △가람지기2 실무 △행사기획 실무 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각 과목은 본사와 교구종회 등의 교육 요청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각 분야 전문 종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종무 전문과정은 12월 11일~13일 전통문화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찰 인적관리를 비롯해 수행·지역·문화 전문 과정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계종은 중장기적으로 종무행정학교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오는 2014년까지 산하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한다. 이에 대해 김영일 조계종 총무차장은 "장기적으로 종무행정학교는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종무행정학교 상설화는 종무원 고용체계 확립과 종무원 배출, 배치와 순환이라는 구조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중앙승가대 총장 후보 단일화 합의 무산

2월 28일 2차 회의 예정

미산 스님(현 중앙승가대 총장 직무대행)과 원종 스님(前 제주 관음사 주지)이 추천된 중앙승가대 총장 후보에 대한 단일화 합의가 무산됐다.

중앙승가대는 2월 16일 교무회의실에서 조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교수회 측 위원과 동문회 측 위원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후보를 단일화 하지 못했다. 다만 2월 28일 열리는 중앙승가대 졸업식 이후 2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총장 단일화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수회 측 인사 6명과 동문회 측 인사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두 회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 4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한편,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7차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후보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총장 선출 안건 이월 후 "성문·무상·향적·지현 스님이 총장 후보인 미산, 원정 스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 단일 후보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나누며 하나' 사단법인 등록 마쳐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사)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1월 16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월 1일 법원등기 수속을 마친 뒤 2월 5일 종로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2003년 12월 설립돼 기아와 재해 및 인권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구호개발단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 불사를 위한 개성 영통사 복원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불교교류사업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나누며는 이밖에 △경로잔치 및 템플스테이 개최 등 새터민 정착지원 △재한 줌머인 연대 지원 △자연재해 등 해외 구호지원 △특수재난 구조 △노동·인권활동 △환경활동 등 평화·환경·인권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 중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광불교강좌 안내

각묵 스님의 청정도론(淸淨道論) Ⅰ 10주



●개 강 일 : 2013년 3월 18일(월요일)
●강의진행 : 오후반(1시 30분) 저녁반(7시 30분)
●수 강 료 : 100,000원(교재 별도)

『청정도론(淸淨道論)』(Visuddhimagga)은 1500년전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스리랑카로 건너와서 지은 논서이다. 붓다고사라는 법명의 유래는 붓다고사 스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부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 한다.

상좌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근본말씀'이라고 한다. 팔리어로 지어진 주석문헌으로 경율론의 삼장을 해석하면서 불교의 핵심을 7가지 청정도로 정리한 책이다.

불광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각묵 스님을 모시고, 청정도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광 불교대학

불광사에서는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분들과 함께하는 불교기본교육과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2년제 과정의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교기본교육(3개월)

▪ 주요내용
불자예절,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역사,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례, 불광신행 등

▪ 모집분야
3월 11일(월) 개강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오전 10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3월 9일(토)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50분

불광불교대학(2년제 4학기)

▪ 모집분야
3월 5일(화) 개강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단, 재일·법회가 겹치는 날에는 오후 2시 ~ 4시)

대한불교 조계종 | 불광사 138-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02-417-2551 www.bulkwangsa.org

한반도 평화 위한 연중행사 펼쳐진다

대회운영위 2월 20일 기자회견… 연간 계획 발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주제로 한 한반도평화대회가 2013년 펼쳐진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주최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대회 수석부위원장 · 사진)은 "한국전쟁 정전 60년을 맞아 남북한간 새로운 관계 조성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의 천도와 살아남은 자들의 해원을 바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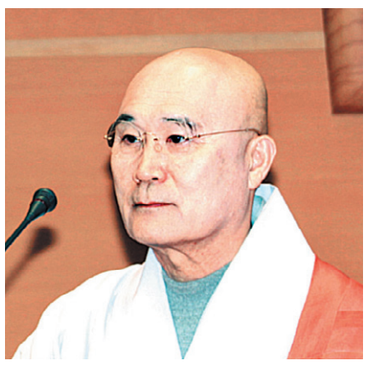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중 행사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한반도평화대회를 위해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위원장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 수석부위원장에 포교원장 지원 스님, 상임운영위원장에 수불 스님, 공동운영위원장에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공동집행위원장에 송묵 스님과 선재 스님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3월 26일 부산 평화기원수륙재
4월 30일 남북통일기원대법회
5월 10~13일 팃낫한 초청 평화걷기
6월 16일 한국전쟁 전사자위령법회
7월 27일 한반도평화기원세미나
9월 27일 한반도평화대회 본행사

한반도평화대회는 2월 중 홍보대사 위촉이 진행되며 2월 27일 범어사에서의 평화기원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3월 15일에는 포교사단, 국군총신도회 등 한국전쟁에 관련된 불자들이 모두 함께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3월 26일에는 범어사에서 평화기원수륙재가 봉행된다.

4월 중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들을



초청한 리셉션과 함께 4월 30일 통도사와 양산실내체육관에서는 남북통일 기원법회가 열린다.

5월 10일 범어사와 13일 서울 잠실에서는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인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평화걷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6월 6일에는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동련, 파라미타와 함께 청소년 어린이 평화사생대회 및 평화 동영상 공모전이 진행되며, 16일에는 용산전쟁기념관에서 6 · 25전사자 위문위령법회가 개최된다.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는 범어사에서 이웃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한반도평화기원세미나가 열린다.

8월부터 대회 폐막일인 9월 30일까지는 부산 UN광장거리 및 영남 9개교구본사 경내 등에 5만 평화의등 거리조성이 펼쳐진다.

한반도평화기원대회일인 9월 27일에는 부산UN묘지와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석하는 위령수륙재가 열리며 이어 자비구현 평화대법회가 진행된다. 대법회 이후에는 KBS열린음악회가 평화기원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조계종은 평화기원대회에 반기문 UN사무총장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8월에는 통일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과 협의해 금강산 신계사에서 천도재 봉행도 추진된다.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이번 대회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불자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행사 개요를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비롯해 기원대법회, 평화걷기 명상, 위령법회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원 스님과 수불 스님 외에 공동운영위원장 명우 스님(전국비구니회장), 임장수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법정 스님 3주기 추모법회 열린다

3월 7일 길상사 설법전서… 진영 봉안식도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운)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오는 3월 7일 오전 11시 경내 설법전에서 3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 법회에는 법정 스님의 문도 스님들과 조계종 중진 스님들, '맑고 향기롭게'의 임원 및 길상사 신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길상사 경내 진영각에서 진영 봉안식을 개최한다. 이곳에는 스님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친필 서예 작품 등의 유품과 책들이 진열



된다. 스님은 1992년 17년간 머물렀던 송광사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수류산방으로 옮겼는데, 3주기를 맞아 수류산방의 유품들도 진영각에 모으게 된 것이다.

법정 스님의 양력 기일 하루 전인 3월 10일 오후 2시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스님을 기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도 열린다. (02)3672-5945 **신중일 기자**

불교상품 대상 '그 마음을…' 선정

사업단 5회 공모전 결과… 550작품 접수돼

단일 공모전 최대 규모로 성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제5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전경은(홍익대) 씨의 '그 마음을 걸어두세요'가 선정됐다.

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5일 대상을 비롯한 우수상, 특별상 등 총 39점에 대한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전명은 씨의 '그 마음을 담아두세요'는 합장하는 모습을 묘사한 다용도 걸이로 실용성과 동시에 불교적 감성을 담아낸 생활 디자인 소품으로 큰 점수를 받았다.

전 씨는 "평소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았다. 누구에게나 정감가고, 편안한 상품으로 여유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에는 이현정 씨의 '아트토이-개구쟁이 동자승'과 류귀화 씨의 닥종이 인형 '동자승 시리즈'가 선정됐다. 특히 이현정 씨의 '개구쟁이 동자승'은 익살스럽게 제작된 피규어에 원하는 색을 직접 칠할 수 있는 키트(Kit)상품으로 구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에는 목탁을 스마트펜과 USB로 재해석한 장경민 씨의 'Sound of Temple'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모전은 이전 보다 참가 인원과 작품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작품 수는 총 550점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정명은 씨의 '그 마음을 걸어두세요'.

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일번 기업과 국가 공모전의 접수 작품 수가 평균 200~300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문화사업단의 공모전은 단일 공모전으로는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를 활발히 펼쳤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이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며 "실제 일반 작가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가족 단위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며,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념관과 불교박람회,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등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티베트의 평화적 문제 해결 기원"

화쟁위 사태 성명 발표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종평위)는 2월 2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쟁위와 종평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100명을 넘어선 티베트 분신사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연기의 세계관과 동체대비의 삶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들의 소중한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불교에서 소신공양은 깨달음을 얻거나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며 불자로서의 비폭력에 대한 신념과 초월적 자비가 담겨 있다"며 "중국 정부도 평화적 방법으로 티베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국제 사회의 접근 허용, 종교와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의 최소한의 자유와 인도적 조치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중국 현 정부에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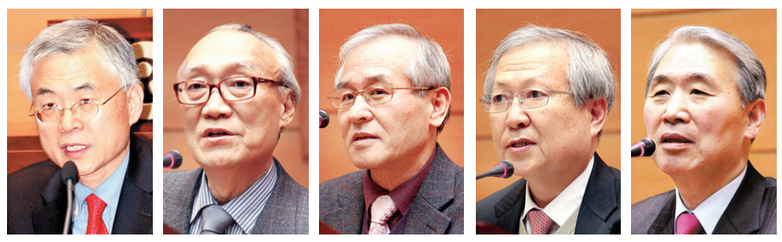
"불자 지성인의 산실로 거듭나자"

교불련 창립 25주년 기념법회서 제언 쏟아져

불자교수들의 결집체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1988년 2월 27일 발기인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원정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교불련은 초대회장에 고준환교수를 선출하고 불자교수들의 신행결집체 역할을 담당해왔다. 500여 회원으로 시작한 교불련은 매년 하계수련회와 추계학술대회, 한일공동학술대회, 교수불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책으로 펴내며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종교편향 시국에서의 불자 기독자 공동학술대회 등 각 사안마다 지성인을 대표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창립법회를 맞아 열린 토론의 장에서는 이러한 교불련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2013년 현재 교불련 회원 수는 1800여 명. 전국 대학교수가 7만 6200명에 이르는 가운데 회원수가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장을 맡기도 했던 박광서 교수는 "불자비율 18.6%와 창립 25주년이 지난 단체란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초라한



최용춘 회장 | 류종민 교수 | 박광서 교수 | 배광식 교수 | 정천구 교수

최용춘 회장 "창립시 마음으로 정진"
류종민 교수 "감성적 동기부여 필요"
박광서 교수 "1800회원 회비납부를"
배광식 교수 "인터넷 활용 필요"
정천구 교수 "신행, 학술모임 마련"

상황"이라며 "더욱이 회비를 내는 정회원수는 수십명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불련이 존재의의를 살리고 한국불교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자교수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고 정회원 확대와 회비 정착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춘 교불련 회장도 이날 "불교적 사고를 지닌 인재들이 사회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인재육성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소회를 밝히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시 창립 시의 마음으로 정진해 가자"며 회원 교수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명예교수는 "임원의 책무나 회원의 참여도에는 도반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감성적 동기부여를 위해 초기 구성된 교불련 법사단을 재구성하고 TV나 인터넷을 활용해 법회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배광식 서울대 교수와 정천구 서울디지털 교수도 신행모임을 통한 회원교수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단체 · 전법단 간 유기적 관계 필요

포교원 전법단 워크숍서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단장 계성)은 2월 19~20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법단 지도법사 워크숍을 열고 포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포교단체와 전법단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또 지역 전법단과 분야 전법단이 상호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입장이 나왔다.

지도법사들은 군법당에서 상영할 다양한 영상물 제작 및 배부를 주문했으며 문화분야에도 전법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도영 스님 승만보살 초청법회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2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승만보살 10대원 1100일 기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귀농학교 수강생 모집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제32기 귀농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02)576-1886



월운 스님 초청, 산림대법회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월운 스님 초청 능엄경 강설 산림대법회를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법회는 4월 10일~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02)3218-4822



기본교육생 모집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불교문화 기본 교육 7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일은 각각 3월 4일, 3월 9일이다. (02)720-1390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2월 26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레협 제13대 회장 취임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은 3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13대 불레협 회장으로 취임한다. (02)738-7860



속초복지관, 협약식 체결

속초시노인복지관장 묘근 스님은 2월 21일 강원도속초의료원과 속초시 복지향상을 위해 진료협약식을 가졌다. (033)636-3373



국제선센터 초청법회 법문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의 진행자 정목 스님은 3월 24일 오전 10시 국제선센터에서 초청법회를 연다. (02)2650-2200



육군항공학교 교류협약 체결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2월 21일 육군항공학교(교장 장대상)와 육군항공학교 회의실에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 국제어학원장 겸 한국어교육센터장 박영환
▷ 외국어교육센터장 장환영
▷ 바이오자원생태농장장 겸 학술림관리소장 강호덕

"동문간 화합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원유자 25대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선거과정 선거권 문제 불거져
회원 목소리 경청, 화합 이끌 것
50주년 준비 차질없이 진행
직장직능단체와도 연계 활동 모색

"대불련 동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대불련 안정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월 16일 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원유자 회장(63)은 취임에 앞서 대불련 인적자원을 결집하고 젊은 불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여사대(現 세종대) 불교학생회 71학번 출신인 원유자 회장은 선출총회에서 중앙대불교학생회 출신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와 경합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의 총동창회의 회장 선거 자격 문제를 두고 일부 회원들이 퇴장하는 소란을 겪었지만 추대를 통해 선출됐다.

원 회장은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권과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상임이사들과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대학생 때 활발한 불교활동을 한 이들도 있지만 활동이 미흡했다 다시 인연이 닿아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며 "이런 분들을 포용해 함께 전법의 길에 나서는 것이 조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회장은 "젓가락 하나라도 일단 대불련으로 활동을 하면 십시일반이라도 회비를 내고 또 활동을 후원하는 것이 동문이다. 선거 때만 어떤 일이든 할 것 처럼 들끓었다 곧 식는 조직들이 많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대불련과 함께 연계해 선배와 후배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는 나이가 들며 또 세상을 경험하며 서로 멀어졌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며 "후배들의 말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정기적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최초로 여성 회장이기도 한 원 회장은 "여성 특유의 감각을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세부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끝으로 "재가불자들의 선행 주자로 대불련총동문회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각종 직능단체들과도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자 회장은 수도여사대(現 세종대) 71학번으로 73년 대불련 서울지부장, 교육경영직불자회 부회장, 대불련 인천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교원불자회를 창립하기도 한 원 회장은 현재 신송중학교 교장으로 있다.

노덕현 기자

"가족 같은 ROTC 불자회 만들 것"

이덕문 초대 ROTC 불교인연합회 회장



"가족 같은 ROTC 불자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활발한 신행활동으로 사회에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만 명의 장교를 배출한 ROTC가 2월 21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30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이덕문 한양디지털디자인학교 이사장(한양대 4기, 사진)을 선출했다.

이덕문 회장은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18만 여명을 배출한 ROTC가 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인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국가사회와 불교진흥 그리고 대한민국 ROTC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교를 배출한 ROTC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년 4700여 신임장교가 임관하고 있으며, 2011년 ROTC 창설 50주년을 맞이해 선발된 60여명의 여성 ROTC가 2013년 첫 배출된다.

이 회장은 출범식에서 외형의 화려함보다 동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같은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OTC 불교인연합회는 2013년에는 3월 춘계 등반법회를 시작으로 다라니기도법회, 큰스님 초청법회, 추계 등반법회, ROTC후보생 법회지원, 송년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ROTC후보생 법회를 지원해 후배 장교불자들을 육성하는데 나선다.

노덕현 기자

불자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

여성 불자 108인… 조계종 프랑스 방문 동참



불자 조윤선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월 17일 새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평소 신심 높은 불심을 자랑해왔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불교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특히 2011년 조계종 프랑스 방문 당시 유네스코 본부 만찬에서 유창한 영어로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각국 대사들의 앞에서 설명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같은 공로로 조 내정자는 2012년에는 불교여성개발원의 5차 여성 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 조 내정자의 저서 〈문화가 답이다〉 를 보면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조 내정자는 "불교는 사회 속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내정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도 언제나 부처님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술회한바 있다.

한편, 조 내정자는 발표 직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1회 졸업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1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21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 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 수료생100여명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부산 삼광사한글학교 졸업식 성료



부산 삼광사한글학교(학교장 무원)가 2월 21기 졸업식 행사를 개최하고 2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월 2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삼광사한글학교 교장 무원 스님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성취한 26명의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훈사했다.

삼광사 한글학교는 우리글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력속에 1992년 개원해 현재까지 1,5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3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2013년부터는 다문화인들이 함께하는 '삼광다문화한글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학교 입학은 전액무료. (051)808-7111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국대, 2013 입학식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월 21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총 3080여 명의 학사과정 신입생과 1000명의 석·박사과정 신입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입학 최우수 학생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정채미 학생이 선정됐다.

한편, 21일 동국대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부모들의 역할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인 '신입생 학부모 대학생활 안내' 행사를 개최했다.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약 500명의 신입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양평 용문사에서 양평군으로부터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도 작년에 이어 많은 문화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립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강좌로 같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즐거운 삶의 시간여행 떠나보세요.

접수방법 홈페이지, 방문, 전화 접수 후 수강료 납부 순으로 등록 마감됩니다.
※ 강의는 등록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연구소 사정에 따라 폐강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교 육 장 친환경농업박물관 內 자연음식연구소(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10번지)

문 의 전화번호 : 070-7715-3796, 010-4097-0146 홈페이지 : http://sam.go.kr

입금계좌 농협 351-0459-2534-93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 자연요리연구소)

자연음식연구소 강좌 일정

강좌명	강사	교육기간 및 시간	수강료	비고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자연음식강좌"	경봉스님	3.8~5.18, 매주 금/토 10:30~12:30	월15만원 (재료비포함)	초급3개월 중급2개월 고급3개월
"아바지음식배우기"	정연순	3.19~5.28, 매주 화요일 13:30~15:30	월30만원 (재료비포함)	
"테마가 있는 떡이야기"	정연정	3.20~6.5, 매주 수요일 10:30~12:30	월9만원 (재료비포함)	
"연잎밥 체험"	경봉스님	매주 일요일, 11:00~12:00	일반1만원	한국민화
민화강좌	정미라	1학기, 3.19~6.18, 매주 화요일 10:30~12:30(15주)	월4만원 (재료비별도)	협회작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장 호 산 합장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까지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세계 속 전법의 길에 첫 발을 딛다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힘찬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운성, 일양, 성원, 태허, 원경, 청하, 정효 스님. 스님들의 출가처는 각각 다르지만 국제불교학교 동기로 도반의 정을 나눴다.

국제불교학교 제1기 졸업생 배출…9명 전원 국제포교 현장으로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세계 속에서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실현할 9명의 스님들이 배출됐다. 2년 동안 해외연수 등을 통해 해외포교 현장에서의 역량을 배양한 스님들은 세계 곳곳의 활발한 포교로 회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학장 법인)는 2월 22일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조계종이 설립한 국제불교학교는 해마다 10명의 학인 스님을 뽑아 영어를 중심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전체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 유일하게 우리말을 쓰는 시간이 새벽 4시에 진행되는 예불 시간뿐이다. 원어민 교수와 함께 오전부터 영어 회화 및 영어 읽기 및 쓰기, 영작 등의 영어수업을 오후에는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스님들의 지도 하에 영어로 전반적인 불교의 교리 공부와 함께 외국에서의 수행, 참선과 템플스테이 지도방법 등을 배운다.

첫 시도인 만큼 그동안 9명 비구니 스님들에게 건 종단 안밖의 기대는 컸다. 그 기대만큼 졸업학생들은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다.

법인 스님은 "조계종단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육체계인 만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사히 모두 졸업하게 됐다"며 "2년 전 입학한 9명의 스님들은 종단 곳곳에서 인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졸업한 9명의 스님들의 활동분야는 다양했다. 먼저 국내에서는 전국비구니회에서 국제협력업무 및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성원 스님,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영어법회 법사로 학생들을 지도할 불림 스님, 전국 사찰에서 외국인 템플스테이 법사를 담당할 운성 스님과 원경 스님, 일양 스님 등 5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 해외포교를 진행하고 있는 성제 스님을 비롯해 미국 미네소타 주 청하 스님, 미국 워싱턴 주 정효 스님과 미국 선센터에서 연수담당을 맡을 태허 스님 등 4명이 배출됐다. 졸업식에서 총무원장상을 받은 성제 스님은 영상을 통해 참석하기도 했다.

국제불교학교 제도를 도입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오늘날 80%이상의 지적 정보가 영어"라며 "어느덧 세상이 세계화되며 영어로 모든 지적정보를 저술하고 생산하고 소통하는 세계가 됐다. 한국불교 현실에서 영어 소통 능력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날의 의의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법포교의 여건도 변하고 있다"며 "종단이 더욱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동안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국제불교학교 교수 지정 스님은 "한국에서는 우리 불교가 세계에서 나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불교는 교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장벽인 만큼 이번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불 제외 원어민과 영어로 전체 교육
미국 등 해외연수 통해 국제감각 익혀
국내외 포교 '한국불교 세계화' 다짐

화운사 주지 도현 스님도 "더 넓은 세상에 나가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졸업식에서는 화운사 선원 출신이기도 한 운문사 주지 일지 스님이 참석해 후진들의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지 스님은 "출가 당시 한문이 중요하다고 해 공부를 한 것이 훗날 한문강사를 시작으로 강단에 서는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제 불교 가르침을 영어로 펴는 시대인 만큼 국제불교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계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앞두고 졸업생들은 자신감과 함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성제 스님은 영상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와보니 교회가 50군데인데 한국사찰은 2군데에 불과하다. 이곳에서 열심히 불교를 알려 교민을 비롯한 이들이 불심을 갖고 살도록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 삼불사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청하 스님은 "2년 동안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현지 도착했을 때 애로점이 없었다. 외국인을 접하고 두려움없이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애틀 정각사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예정인 정효 스님은 "역시 출가한 쌍둥이 동생에게 국제불교학교를 추천해 최근 동생이 입학했다"며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묻고 답하는 부분이 약한데 국제불교학교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의 다짐 속에 졸업식은 영어 발원문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졸업식에 참석한 대중들은 "두려움 없는 공부와 성찰, 수행의 길에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없는 커다란 기쁨에 머무를 때까지 용기와 자비 지혜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제불교학교는 3월 5일 3기 입학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8명. 현장에 나서는 이들의 뒤로 새로운 꿈들이 영글고 있었다. 용인=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원 스님이 학장 법인 스님에게 졸업장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 WFB 세계불교도 우의회에서 영어 통역 봉사단 활동 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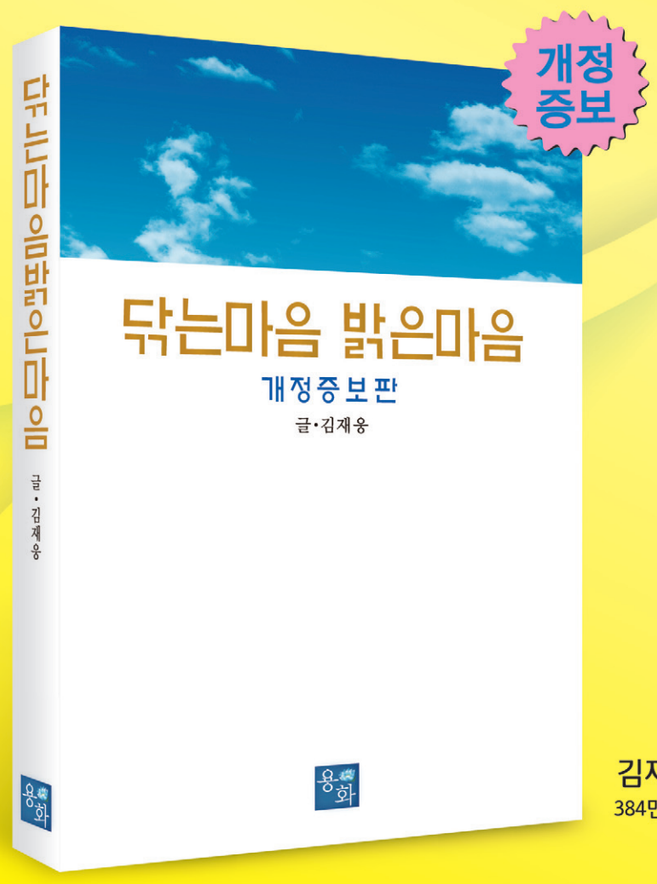


미국 연수에서 만불도시 스님들과 토론하는 모습



2012년 7월 미국 버클리젠센터 수행자들과의 대화 모습

도서문의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054)261-2231



김재웅 지음
384면 | 15,000원

미국에서 출판 미국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9위

달라이라마가 서문을 쓰고 추천한 마음 공부 필독서

"『닦는마음 밝은마음』은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밝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 질병, 기근,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를 추구하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소중한 조언을 얻게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티베트 승왕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
Venerable Tenzin Gyatso,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 150만권 발행된 저자의 다른 책 『마음 닦는 법』이 곧 새롭게 출간됩니다 •

"소외이웃과 함께 하는 게 진정한 방생"

아직도 물고기 방생하세요? 새로운 방생 합시다


몇 년 전부터 방생법회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하면, 자원봉사를 통한 '인간방생'이 그것이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2005년 실시한 야생동물 방생법회

포교원, 지구촌 빈동아동돕기
원오사, 군법당서 방생법회
자원봉사활동, 장학금 지급도 방생

전국 사찰들은 동안거 해제일이자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방생법회를 갖는다. 또 다가오는 봄을 앞두고 방생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생명 존중의 적극적 발현인 '방생'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의례다. 하지만 죽음에 직면한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본래 의미와는 달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무분별하게 놓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또 방생철만 되면 각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방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서울시는 2월 23~24일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 일대에서 시민과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방생법회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조계사, 통도사, 마곡사 등 주요사찰 들이 지자체의 해양수산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토종 붕어 및 치어 등을 방생하는가 하면 문경 운암사는 2010년부터 정월대보름에 방생 대신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 운암사는 2011년 100여 명의 신도와 함께 감자 두 가마니, 사료 500kg 등을 문경 재악산 등지에 흩어놓았다.

이 같은 추세는 1995년 조계종 총무원이 '올바른 방생법회를 위한 제언'이라는 공문을 전국 사찰에 발송하거나 방생지침서를 발간해 배포하면서부터 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방생의 의미도 확장돼 산짐승을 놓아주는 것 뿐 아니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일상적인 부분에서 방생을 실천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인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는 '자비실천 방생대법회'를 봉행하며 방생법회의 참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도 지난해 600여 불자들과 함께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인간방생'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사(주지 도문)는 3월 3일 진행하는 정월 생명살림 기도에서 어류를 방생하는 행사대신 속리산 법주사에서 진행하는 미륵대불을 위한 개금불사에 동참한다. 산짐승이나 어류를 방생하는 데에는 인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방생법회를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한다. 201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돌을 맞아 생명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구촌 빈곤아동을 돕기 위함이다.

포교원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목숨을 구해 주어진 본래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자비의 실천인 지구촌 빈곤아동을 돕기를 실천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소아마비, 기상이변, 가난, 영양실조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한 불자들의 소중한 보시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방생불사"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지난 24일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군법당을 방문해 군장병을 위문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정관 스님은 "방생의 의미는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데 있지만 힘들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적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수행하고 지혜닦으면 몸 건강해"

고미숙 고전평론가, '정기신 조화' 강조


고미숙 고전평론가는 19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개최한 '우리 몸이 지닌 치유본능을 찾다'에 초청돼 강연을 펼쳤다.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현대의 의술은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병의 근본을 통찰해 치료하기 보다는 증상을 억제하거나 병을 쫓아내는데 집중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일컫는 몸의 생명을 키워내는 양생(養生)과는 다르다.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의 저자인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는 "몸과 마음, 몸과 몸, 몸과 사회가 소통하면 절대 아프지 않다. 의학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월 19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개최한 '우리 몸이 지닌 치유본능을 찾다-몸과 삶과 생각이 하나 되는 의학과 인문학의 만남'에서 고미숙 씨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고미숙 씨는 건강을 위해 몸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현대인들을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의학사의 최고 지식들을 총망라한 〈동의보감〉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精氣神 집중돼야 올바른 삶 살아
몸 아플땐 음식 살피고 운동해야

고씨는 "허준은 방대한 지식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분류·배열해냈다. 양생과 의술을 새로운 차원에서 통합해 병과 처방이 아니라 몸과 생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허준은 내경(몸 안의 세계)-외형(몸 겉의 세계)-잡병(병의 세계)-탕액(약물의 세계)-침구(침구의 세계) 순서로 분류해 〈동의보감〉을 저술했다.

'내경편'에서 허준은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부터 이야기 한다. 몸과 생명이 우주의 탄생과 분리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정기가 생명의 시원(始原)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기신(精氣神)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고 씨는 "정(精)은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물질을 말한다. 기(氣)는 정(精)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신(神)은 정기의 흐름에 벡터를 부여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정'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 몸의 근본 뿌리인 신장에 의지한다. 신장의 물이 척추를 타고 올라 뇌에 닿는 과정이 원활해야 상상력과 창조력이 생긴다. 그러나 신장에 '정'이 충만하지 않으면 추론·기억력이 저하된다. 신장은 또한 우리 몸에서 '귀'와 연결돼 있다. 고 씨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이어폰을 귀에 꽂아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요즘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기'는 물질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폐에서 작용한다. 때문에 올바른 호흡법을 통해 폐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신'은 '정'과 '기'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무형의 존재로 심장에 해당된다. 고씨는 "신이 없고 정기만 있다면 기계일 뿐이고 신은 있지만 정기가 없다면 유령"이라며 "결국 정기신이 잘 집중돼 있어야 똑바로 살 수 있다. 정기신이 조화로운 사람은 절대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몸 안의 세계를 알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살펴야 한다. 고 씨는 수련을 하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생은 자기 배려와 수련, 소통과 지혜를 닦는 삶의 기술입니다. 식탐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통즉불통(通則不痛)'을 기억해야합니다. 몸과 마음, 몸과 몸, 몸과 사회가 소통하면 절대 아프지 않다고 허준은 말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양생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고씨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물질의 태과(太過)와 정신의 불급(不及)으로 인해 기(氣)가 소통할 수 없다. 태과 불급이 낳은 질병이 암과 우울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씨는 아프면 무조건 의사에게 의존부터 하는 행태도 지적했다. 요즘 많이 먹는 육식과 술, 패스트푸드는 허열(虛熱)을 발생시키고, 음기 대신 양기를 강하게 해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음식을 먼저 살피고 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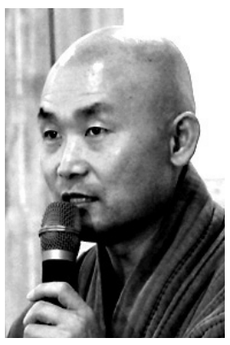
또한 고 씨는 몸과 마음을 면밀히 관찰해야 진정한 치유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의학은 사람들에게 치유 본능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과 삶을 공부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우주를 헤아릴 역량을 키워 '앎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이나은 기자

한국서 아잔브람의 힐링명상법 배운다

각산 스님, 동국대서 3월 18일부터 강의



아잔브람 한국명상센터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사진) 각산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에서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아잔 브람 명상강의를 개설한다.

아잔브람의 명상법은 위빠사나와는 다른 호흡명상(안반선)을 복원한 명상법이다. 각산 스님이 지도하는 이번 강의는 총 36강좌 중 1차 12강좌로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인 '붓다의 호흡명상'에 중점을 둔다. 2차 12강좌는 '초기불교 수행과 간화선 통합수행의 이론과 실제'이며, 3차 12강좌는 '붓다의 명상과 간화선 실참'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강의는 △명상이란 무엇인가?-명상은 마음의 평안과 삶의 대자유 △위빠사나와 호흡명상의 실제와 이론1-마음관찰, 현재집중, 호흡관찰법 △통증극복과 좌선법- 어깨·다리·허리통증, 좌선자세법 △행 실참- 참선 90분, 즉문즉설 30분 △생활 속의 명상- 걷기명상, 생활 속의 알아차림 △수행의 다섯 가지 장애와 그 극복-도가 높아진 만큼 장애도 나타난다. △수행을 성취하는 다섯 가지 힘- 인생성공, 도업성취 △수행 실참-참선 90분, 즉문즉설 30분 △호흡명상의 실제와 이론 2-삼매로 가는 길 △깨달음의 기준-깨침이란 무엇인가? △선방순례 명상탐방(신청자에 한함)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각산 스님은 해인사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범어사 통도사 선원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호주 중국 등에서 10여 년 수행을 탐방하며 미얀마 고승 파욱 선사와 명상 스승 아잔 브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010)3149-7111 **정혜숙 기자**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3월 17일 실시

국제포교사 자격고시가 3월 17일 실시된다.

국제포교사회는 3월 17일 3월 17일 오전 9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실시한다.

자격고시는 조계종 소속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영어와 제2외국어권 부문으로 나눠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응시를 원하는 스님과 불자들은 3월 8일까지 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3층 국제포교사회로 우편 및 방문접수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소정의 예비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포교사 자격이 품수된다. (02)722-2206 **노덕현 기자**

제8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모집

35세 이상 전문직종인 대상…3월 21일 개강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3월 21일~6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좌가 열리는 첫째 날에는 입학식과 함께 조민 평화교육원 부원장이 '역사와 정치의 대화-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를, 법륜 스님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격랑 속의 동아시아, 한반도는 어디로' △김진현 前과학기술처 장관의 '대한민국이 걸어온길, 가야할 길'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의 '국정운영의 스테이트크래프트' 등의 강좌가 열린다. 정원은 60명이며 접수마감은 3월 16일까지다. (02)6925-0522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교계 복지시설 다양한 봉사자 모집

봉사, 긍정적 자아 발견 도와
교계 복지관, 봉사자 통합 관리

자원봉사는 자비와 나눔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만족과 기쁨은 덤으로 얻어지는 선물이다.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남을 도와 보람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긍정적 자아를 발견한다. 삶에 의욕이 없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참여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도움 될 수 있을까 등의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상물·역사관 관람을 하고 할머니를 뵙고 노래를 불러준 나눔의 집 국제활동팀 자원봉사자들. 조계종자원봉사단이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인덕원 치매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뜸봉사를 하고 있는 노보살의 모습.

종류는 다양…조금씩 꾸준히 해야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재가봉사-홀몸노인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모자·부자가구 돕기 △사회복지시설봉사-양로원, 경로당, 영·유아시설 △전문봉사분야-외국어 지원, 기술지원(컴퓨터수리, 주택 개·보수, 자동차정비 등) △지역사회봉사-재해대책지원, 환경보전 활동, 농어촌 일손 돕기 △기관·단체 봉사-관공서 업무지원, 도서관, 의료기관, 사회단체 등 △기타-금품·물품지원, 범국가적 행사지원 등 다양하다.

자원봉사를 희망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좋다. 봉사자가 필요한 각종 시설을 소개해 준다.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적합한 봉사처를 상담해주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로 지역·분야·기간을 설정해 검색하면 원하는 분야의 자원봉사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관련 글을 게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노인돌봄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선택할 때는 처음부터 의욕을 앞세우기 보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불교계 복지기관에서 하고 싶다면

20000여 명의 봉사자들을 보유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을 항시 모집하고 있다. 봉사자는 긴급재난구호봉사, 교육지원(진행 및 보조), 노력봉사(간병, 목욕, 배식, 이미용), 전문봉사(골기경락, 염불, 호스피스) 등에 배치돼 활동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031-768-0068)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역사공부도 하고 국제적 감각도 기를 수 있다. 나눔의 집은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도슨트 해설사 과정 △ 3.1절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행사도우미 △나눔의 집 주변환경 정리 및 환경정화 분야에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일본어 통·번역 봉사자와 영상·사진촬영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삼천사 인덕원**(02-3156-7500)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노래교실, 종이접기,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노력봉사(식당보조, 청소, 말벗 서비스, 목욕, 간병) △전문봉사(의료, 간호, 이·미용, 발반사, 물리치료) 분야에서 활동할 봉사자를 항시 모집하고 있다.

인덕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봉사자는 기록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등록되며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정시간 봉사해 요건을 충족한 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우수 자원봉사자는 표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031-898-1486)은 1999년부터 연꽃마을 각 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수는 2만 3천 여명으로 노력봉사, 전문봉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꽃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증진과 봉사활동 활성화 위해 324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에게 법인주거시설을 무료입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2160시간 이상 활동자에는 활동비 및 해외연수 지원을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봉사팀장 임명식

800여 봉사자 화합도모…정법 스님 진흥위 위원장으로

무주상보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조계종자원봉사단 봉사팀장 임명식 및 진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62개 팀으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각 팀의 조정자이자 중간매개자로서 단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봉사팀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또한 꾸준한 봉사를 통해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보살행을 실천한 봉사자에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발급된 우수봉사자 인증배지를 수여했다.

복지재단은 지난 신년사업 발표에서 각 자원봉사 영역에서 원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님으로 구성된 조계종자원봉사단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재단은 정법 스님(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지회의 지도법사)을 조계종자원봉사단 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개발 및 방향성 제고를 통해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간다.

위촉식에서 정법 스님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느꼈던 고충이나 방안들을 행정에 반영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비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9988백수연(百?宴)' 열렸으며, 효지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로 구성된 '상상밴드' 공연도 선보였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단장 원경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은 "많은 손과 눈으로 많은 자비를 나눈다는 천수천안관세음(千手千眼觀世音)의 자비나눔 실천사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긍지를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계종 사회복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조계종 자원봉사단 봉사팀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2012년 한 해 동안 150여 개소의 활동처에서 800여 명의 봉사자가 무주상보시의 생활화를 통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그 결과 '2012 전국자원봉사자대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2012 서울시 봉사상 단체분야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불교자원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고 대내외적으로 불교사회복지의 저력을 널리 알렸다. 이나은 기자

"2년제 문화대학 설립…문화 역량 강화"

종로노인복지관, 2013년 신년 사업계획 발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사진)은 올 한해 '융합' 모토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또한 '감성문화대학'을 설립해 어르신들의 예술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복지관은 '장 담그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혜를 전수하고 세대가 교류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한편, '감성문화대학'을 설립해 어르신들의 예술문화역량을 강화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정관 스님은 "그동안 복지관 어르신들이 관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올해에는 외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담그기로 이웃에 환원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도 실시

'장 담그기 사업'은 전통 장을 담가온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이 짝을 지어 장을 담그고, 전통 장맛을 찾아 견학 활동을 하는 전통 계승의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3월 5일 요리연구가 한복려씨를 초청해 장을 담그고 숙성된 장은 주변 소외이웃과 나눌 계획이다.

올해 설립되는 '감성문화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며 △미디어 전공 △연극전공 △음악전공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전공학과는 영상작품을 기획, 촬영, 편집해 미디어물을 생산하는 학과이며, 연극전공학과는 연극의 기본기를 학습해 공연무대를 만들게 된다. 음악전공 참여 어르신은 합창의 기본기를 학습해 공연무대에 서게 된다. 감성문화대학 입학 어르신들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철학·미술·댄스 등 인문·문화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되며 단합회, 봉사활동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서류심사 또는 오디션을 통과한 어르신 55명을 모집하는 중이다.

또한 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인 1봉사 운동'을 실시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하도록 자원봉사 참여유도 캠페인을 열고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청소, 말벗지원 등 노노(老老)케어에 참여해 복지관 소속감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울증세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 '이웃사촌'으로, 복지관은 우울감이 있는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과정을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해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관은 '으라차차, 마을 운동회'를 오는 6월 중 개최해 복지관 이용어르신과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극단 '빨래터'와 실버밴드모임인 '상상밴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선보인다. 또한 올 1월에 개점한 고령자기업 '플러스카페' 종로구청에는 실버바리스타 7명을 고용해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나은 기자

수채화·연극에 관심있는 어르신 모이세요

안양노인복지관, 연극·수채화반 모집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연극 및 수채화 활동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해울연극반'과 '수채화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3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복지관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12월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극반은 △연극관련 현장체험 △동선 및 발성법 습득 △연극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며, 수채화반은 △수채화의 기법습득 △수채화 관련 현장체험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해울연극반은 2006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제1회 거창 실버연극제 단체대상 수상, 제2회 거창실버연극제 단체금상 등 5관왕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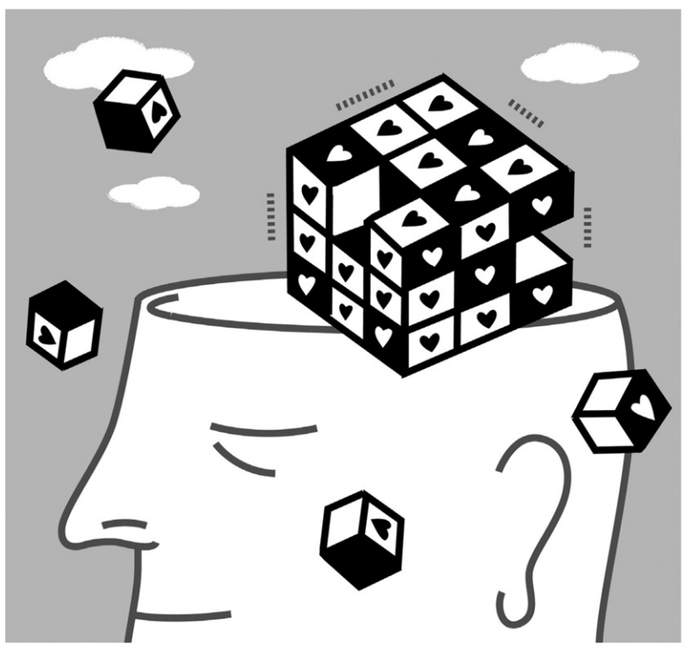
복지관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연극'이나 '수채화'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특별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1)455-0551

이나은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⑥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꿈 그림자 영화장면 그리고 현상



꿈을 꾼다 꿈 속에도 사물 · 경계가 다 있다. 나도 있고 대상도 있고 사건도 있다. 경험자로서의 느낌도 있다. 눈물이 있고 공포가 있고 기쁨과 웃음도 있다. 깨어보면 분명 꿈인데도 생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꿈과 생시는 어떻게 다른가. 꿈은 다만 그렇게 느끼는 허상이고 생시는 실제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면 가상 상식적인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한다. "형상이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라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라면 꿈속의 형상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시라고 하는 시간도 실은 꿈 속이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시로 알고 있는 이 꿈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만 한다는 말인가

영화를 본다. 스크린에 비친 온갖 형상이 자못 현란하다. 주연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사랑과 증오, 희노애락 등이 마치 현실처럼 여겨진다. 박수를 보내고 눈물도 짓는다. 그러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빛과 필름이 합성해 낸 허상이지 실상은 아니다. 실상인 촬영현장은 이미 지나가고 없다.

우리가 꿈에 겪는 형상과 스크린 상의 영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시에 보는 형상도 스크린 상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생시 또한 꿈 같고 영화장면 같은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실재 한다고 믿는 이 현상계는 꿈 · 허공 꽃 · 물거품 · 그림자 ...에 불과하다고 한다. 꿈도 꿈이고 생시도 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스크린에 비친 영상 속에서 그림자 배우들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는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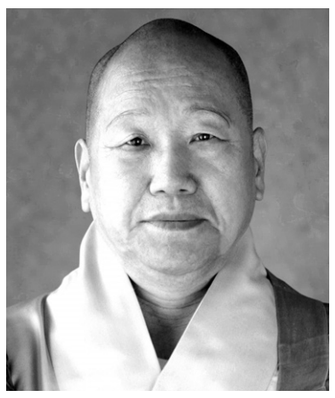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에 비친 모든 현상들이 참이 아니요 허상인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 즉 깨달음의 자리에 든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현상, 형상은 의식의 투영,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화면에 띄워진 영상이 다름아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필름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현실의 모든 현상도 의식 · 마음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 · 거품 같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은 단지 나의 업적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만들어 낸 꿈 같은 영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현상이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것을 아는 주체, 경험자 또는 지켜 보는 자, 관찰자는 누구인가? 그런 꿈 같은 형상을 나타나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화면의 영상은 빛을 비춤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빛는 그저 비출 뿐 영상을 조작하지 않는다. 화면의 상이 갖가지로 달라지는 것은 빛 때문이 아니라 필름에 인화된 모양 때문이다.
현상계의 갖가지 영상도 마음 의식의 무늬 때문이다. 빛은 그저 비출 뿐이다. 빛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나타나게도 사라지게도 하는 근원의 빛-바로 찰나요, 영원한 생명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믿고 잊지 않는 것이 불법공부의 바른 길이다.

법보시 불서총판 운주사
02)3671-7181 서울 성북구 동서문동

"대용맹심 발하여 화두를 타파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상략〉 중생의 근본 업(根本業)은 탐진치(貪嗔癡)라. 세 가지 근본 업을 제거하지 못하면 편안한 날이 없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사 탐진치 삼업을 몰록 제거하고 대도(大道)를 이루어 부처님과 같은 대지혜(大智慧)와 무량대복(無量大福)을 누리겠는가.

금일(今日)은 동안거 해제일이라, 모든 수행자들은 이번 안거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진실되게 참구하였는지 돌이켜보아야 함이로다. 게으름과 망상으로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는가, 바깥경계에 끄달려 망아지처럼 휘젓고 다니지 않았는가, 몸뚱이에 끄달리고, 먹는 데 먹지 않는 데 집착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아야 함이로다. 사위의(四威儀) 가운데 화두일념(話頭一念)에 푸욱 빠져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는 경계가 와야 하거늘, 그러지 못한 데에는 반드시 부족한 참학의지(參學意志)가 있는 것이니 부끄러운 줄 알아,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발하여 화두를 타파할 때가 진정 해제임을 마음에 굳게 새길지어다.

해제다 하여 마음이 이미 선방 밖에 가 있고 법문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밖으로 치달린다면 수행자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자세이니 어느 세월에 탐진치 삼업을 다 녹이고 시은(施恩)을 다 갚으리오.

그러니 모든 대중들이여, 결제 해제에 간여하지 말고 오로지 일상생활 속에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날마다 천 번 만 번 의심하고 의심하여 일념삼매가 도래하도록 혼신의 정진을 다할지어다. **〈중략〉**

백장스님은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시 마조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마조선사는 백장스님이 들어오자 법상각(法床角)에 걸어둔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에 백장스님이,

"이를 바로 쓰십니까. 이를 여의고 쓰십니까?"하고 물으니, 마조선사께서 불자를 다시 법상각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백장스님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장차 두 입술을 열어 어떻게 만중생을 위해가려 하는고?"하시니, 이번에는 백장스님이 법상각에 걸어둔 불자를 들어보였습니다. 이에 마조선사께서 또 물으시기를,

"이를 바로 씀인가, 이를 여의고 씀인가?" 하시니, 백장스님이 마조선사와 같이 불자를 법상각에 걸어두는 찰나에, 마조선사께서 벽력같이 할(喝)을 하였습니다.

"어억[喝]!"

이 같은 마조선사의 할 아래 백장스님이 삼 일간 귀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대중은 마조 · 백장 부자간(父子間)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낙처(落處)를 알면 제불제조(諸佛諸祖)와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략〉**

결제는 수행자가 만든 영산회상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해제 무렵 원오극근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구순안거(九旬安居)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법(法)과 다르지 않았노라."

결제란 90일 동안 공부인들이 만들어낸 영산회상(靈山會上)입니다. 납자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낸 모든 언행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사를 드러내는 작용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조사들은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의 십이시(十二時) 가운데 언제나 활발발한 기봉(機鋒)을 아끼지 않고 드날렸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큰돌이건 작은 돌이건 올리기만 하면 빈틈없이 들어맞는 것처럼 불조의 혈맥이 말마다 관통하고 행동의 움직임마다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승천 사확(承天辭確)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道) 입니까?"

"모든 언행이 도를 드러내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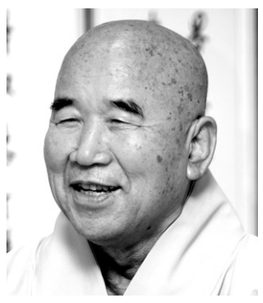
집이 가난하면 거친 음식도 가릴 여지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이 다급해지면 글씨를 휘갈겨 쓸 여유마저 없습니다. 그저 분별심없이 손 가는대로 집어드는 그대로 하나하나가 모두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까치가 외로운 노송나무에서 울고 있는 것도 조사의 심인(心印)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정물(有情物)의 설법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이는 무정물(無情物)의 설법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법입니다. 도(道)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진다면 까치는 까치대로 노송은 노송대로 자기할 일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이들은 무정물이 자기 할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는 법입니다.

결제공부가 모자랐던 이는 해제를 결제삼아 더욱 향상일로(向上一路)해야 할 것입니다. **〈하략〉**

"본분사 해결까지 내것 없어"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상략〉 석 달 전에 결제를 했다가 오늘 해제를 하는데 무엇을 해제하려고 합니까?

결제할 때의 그 마음이 순일하게 이어졌다면 제대로 해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해제는 이름뿐입니다.

수행자는 처음도 끝도 안목이 투철해야 합니다. 눈속임으로 쳐놓은 허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오랜 세월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객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 조차도 까맣게 잊고 삽니다.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오롯하게 가다듬어 성성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살길은 이길 뿐이라고 간절해야 합니다. 생사라고 하는 그물은 잠시만 방심해도 거기에 걸려들고 맙니다.

잠시라도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줄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세가 그럴 듯해도 허수아비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들짐승이나 새들에게는 통하겠지만 눈 밝고 힘 센 소에게는 그저 먹을 거리에 불과 합니다.

수행자의 안목이 이러할 때 자신의 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시주의 은덕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고요한 선방이 몸뚱이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 분사를 해결하기 전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수행자들이 모두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세상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해 질 것입니다.

해제의 끈을 다시 동여 메어서 自繩自縛(자승자박)의 올가미를 끊어내는데 용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략〉**

큰 깨달음은 항상 눈 앞에 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세월이 유수 같아서 어느 덧 동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철 동안 대도(大道)가 무엇인지를 각자 근기에 맞게 열심히 수행하였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그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공화상은 '대도가 항상 눈앞에 있다(大道常在目前)' 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이란 뜻이고 공간적으로는 내가 직접 보고 있는 '바로 여기' 란 뜻입니다.

무문혜개 스님은 '대도무문(大道無門)' 이라 하였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대도범혜(大道氾兮, 대도는 두루 펼쳐져 제한이 없다)' 라 하였으니, 대도(大道)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대도란 진리를 깨달은 마음을 말하며, 이 마음이란 것이 다른 데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바로 여기, 지금 깨어있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공유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心生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이 사라진다[心滅種種法滅]'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출가수행자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마(魔)의 제 장애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를 경계하여 '십종마(十種魔)가 말세에 나의 법중(法中)에 있어서 출가하여 수도하며, 이미 정변지각(正遍知覺)을 이루었다고 속이고, 계율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며, 드디어 악마사(惡魔師)와 마(魔)의 제자가 되어 음욕을 서로 전하여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리(菩提)라고 잘못 인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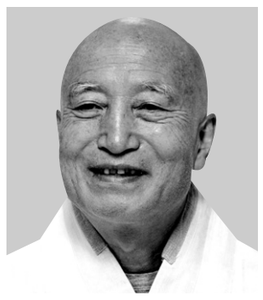
특히 수행하는 사람이 미혹하여 지금 자기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공부가 어떤 경계에까지 이르렀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아만심(我慢心)을 내어서는 안 되며, 완미(頑迷)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행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행을 떠나 주유천하할 때에는 부디 삼독심에 물들지 말고, 더욱 더 자신을 다잡아 올바른 소견을 굳건히 견지할 수 있도록 수행의 고삐를 놓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삭발인경설만도(削髮因驚雪滿刀)
머리를 깎다가 삭도에 눈이 가득해 놀라고
방지세월불상요(方知世月不相饒)
바야흐로 세월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
도생탈사근성불(逃生脫死勤成佛)
삶과 죽음 벗어나고자 하면 부지런히 부처가 되라.
막대명조여후조(莫待明朝與後朝)
내일아침 모레아침을 기다리지 말고 하라.

헛된 시간 보내지말고 정진하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만공선사(滿空禪師)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제(結制)에 결제 없고 해제(解制)에 해제 없는 것이 진정한 결제요 해제라 하셨는데, 금일(今日) 대중은 어떤 결제(結制)와 해제(解制)를 했습니까?

진정한 결제와 해제를 하였다면 생사(生死)를 초탈하여 인연(因緣)따라 노닐고 일체경계(一切境界)에 자재(自在)하여, 위로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 중생들을 제도하며 홀로 하늘 땅을 거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계 · 정 · 혜(戒 · 定 · 慧) 삼학(三學)은 우리들이 영원(永遠)히 지켜야 할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수행방법(修行方法)입니다. 수행자의 덕목은 극기(克己)와 자제(自制) 그리고 인욕(忍辱)입니다. 수행자는 한 때도 방심(放心)해서는 안됩니다.

〈중략〉 공부인(工夫人)은 정안(正眼)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해제 · 결제 없이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정진해야 합니다. 삼개월(三個月) 결제(結制)동안 정진을 잘했어도 해제(解制)되어 육진경계(六塵境界)에 돌아다니면서 육적(六賊)에 도둑맞아서 결제 때 모아 논 공부(工夫)힘을 다 털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처님과 역대조사와 선지식이 한결같이 만연(萬緣)을 쉬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계(境界)에도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진범부(但盡凡夫)이언정 별무성해(別無聖解)라 했듯이 취사(取捨) 선택의 분별심(分別心)만 떨어지면 그대로 견성(見性)이요, 성인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했잖습니까.

요새처럼 공부하기 좋은 때가 어데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공부환경(工夫環境)은 최고입니다. 헛되이 시간(時間)을 보내지 말고 마음껏 정진들 하십시다. **〈하략〉**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가슴으로 믿고 행해 불교의 중심 됩시다"

목정배 명예교수, 암투병 중에도 강단서 열변

암투병 중에도 강단에선 한 원로교수의 열정이 불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노 교수의 하얗던 머리는 '신경내분비종양'이란 희귀암으로 모두 없어졌지만 눈빛과 목소리는 살아있었다. 주인공은 목정배(77) 동국대 명예교수. 목 교수는 2월 21일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열린논단에 발제자로 강단에 다시 섰다.

재가불자들이 세상에서 진리를 실현하자는 세제불교를 주창했던 목 교수는 이날 재가불교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열변을 토했다.

"스스로 길이라고 생각하면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머리로 이 길이 내길인지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목 교수는 불교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불교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비평해서 논지를 세우라"고 말했다.

교리 등을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떤 것인지 스스로 이해해서 나름의 논지를 세우고 신행활동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목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잇는 현실에서 바로 믿고 실천해야 한다"며 "재가불교인들이 세상에 진리가 구현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2월 17일 병원에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정신이 들자마자 강연 자리를 챙겼다.

목 교수는 "심력을 집중하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 할 수 있다"며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마음

'재가불교운동의 방향' 주제로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신심 강조
승속 상호 존경… 세상을 바꾸자

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이날 후진들에게 생계를 떠나 온전히 학문에 길에 매진 할 것을 당부했다. 목 교수는 "학문은 먼저 이 것이 내 문(文)인지 확신이 서야 한다"며 "문(門) 앞에 서성이고 있으니 이도저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스스로의 학문을 '잡(雜)'이라고 표현했다. 다양성 속에 발전이 있음을 강조한 말이었다.

목 교수는 "불교란 때론 웃기게도, 슬프게도 말할 수 있고, 날카롭게 스스로를 비판할 수도 있어야 발전한다"며 "불교의 다양한 논지를 다루는 불교평론을 비롯한 학계의 목소리가 외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조계종 등 종단과 불교계를 향해서도 고언을 잊지 않았다. 목 교수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셔서 원융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조계종이 너무 조계만 내세우고 있다"며 "불법 아래는 조계니 밀교니 없으니 대승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재가불자들에게는 "이제 머리를 깍은 사람이나 안 깍은 사람이 다 구분을 없애고 스스로 불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을 믿고 불교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투병 중에 강단에 서서 신행과 학문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재가자들이 더 하심하고 스님들이 재가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속은 서로 존경하고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것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챙겨 불자들이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법사회를 이끌며 법사들에게 남녀 구별없이 대했다는 목정배 교수는 세상에 진리를 펼치는데는 남녀, 승속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어떤 이들은 스님들이 재가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재가자 스스로 왜 스님들이 그럴까 돌아보고 그 요인을 없애는데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경사 중종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은사, 중종 반환 결정… 장경사 "새종 답례"

일본 사찰의 도난 장물인 부석사 금동보살좌상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가 법당 중종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기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봉은사는 2월 1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장경사명(長慶寺名)이 새겨진 강희21년명(銘) 중종을 본래 자리인 남한산성 장경사(주지 경우)에 돌려주기로 결의했다.

이는 소중한 성보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장경사 사부대중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봉은사는 조계종 총무원에 성보 반환과 관련해 질의했고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봉은사가 반환키로 한 강희21년 명 중종은 1682년(조선 숙종 8년) 높이 82.5㎝ 무게 180㎏의 법당용 동종이다. 전통형 범종 양식으로 용뉴는 네발로 천판을 딛고 있으며 죽절혈 음통이 있다.

상대 네 방향에 유곽이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구름 형태의 쌍구당초문, 범어로 새겨진 원권범자문이 있고, 보살입상이 4방향에 새겨져 있다. 당좌 대신 '강희21년 임술3월 경기광주부읍 내 남한산성 장경사 중종중삼백근입'의 명문이 있다.

용뉴 부분이 일부 손상돼 굵은 철사로 감아 걸 수 있도록 했고, 종신에 종탄의 흔적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다.

장경사 이름이 새겨진 종이 봉은사에 있는 연유는 뚜렷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구한말 의병운동의 본거지였던 남한산성을 점령한 일본군과 관군이 산성내 사찰을 폐쇄하면서 여기에 있던 성보와 경전, 각종 자료를 봉은사로 옮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때 봉은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성보 반환 소식에 장경사는 같은 크기의 중종을 조성해 봉은사에 답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환영 이운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쉽지 않는 결정을 내려준 봉은사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장경사는 일제 시대 이후 한동안 폐사돼 아무런 기록과 성보가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중종 반환은 장경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직 내 종교활동이 업무 만족도 높인다"

월도 스님, '경찰 종교활동의 직무만족' 동국대 박사논문 눈길

단체 내 조직적인 종교활동이 소속 직원들의 업무 및 보수, 승진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논문으로 '경찰공무원의 종교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불교학이 아닌 경찰행정학을 통해 행정 분야에 종교영향을 연구한 스님은 2012년부터 전국 경찰 공무원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번 연구물을 산출해냈다.

스님은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주관적, 객관적, 조직적 활동으로 분류해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분류 중 주관적 종교활동은 정서적 위안을 받는 개인적 체험활동, 객관적 종교활동은 기도 · 종교방송 청취 · 종교서적 독서 등, 조직적 종교활동은 법회나 봉사활동 등으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종교를 가진 이들은 비종교인보다 업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도 등 객관적 종교활동은 업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관적, 개인적인 종교활동에 비해 조직 내에서 합동으로 진행되는 종교활동이 업무와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수준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은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종교활동이 업무만족을 높인다는 응답을 했음에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객관적인 종교활동은 시간, 공간적 요소의 필요로 업무에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반면 조직 내에서 함께 진행하는 종교활동은 투여되는 시간에 비해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구성원간 소통을 통해 업무, 보수, 승진 등에 대한 만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는 절제과 만족, 이해 등 종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조직 내 종교를 통한 단체 활동을 통해 더욱 발현되며 불만과 불평 등 조직원들의 마음을 어루



만지기 때문"이라며 "조직 차원의 구성원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철저한 계급체계로 이뤄진 경찰은 그 업무적 스트레스에도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며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가정의 종교 활동 보장 △경찰조직 종교 활동의 장개선 △온라인 종교 활동 개발 △봉사활동을 통한 종교 활동 △공익활동을 통한 종교 활동 등을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대장경연구소 〈장경도감〉 통권53호 발간

고려대장경연구소 〈장경도감(藏經都監)〉 53호가 발간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최근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장경도감〉 2월호(통권53호)를 펴냈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번 소식지에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20년의 발자취를 △불교전산화 사업 △출판사업 △대장경학의 기본토대 마련 △국제교류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기술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학술네트워크로서의 대장경학회(가칭) 창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장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 연구자가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원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소식지에는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의 활용방안과 연구소 소식을 실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대장경을 토대로 세상에 희망을, 고려대장경연구소도 부처님의 법을 펴는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7회 학술상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2013년 제7회 학술상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불교학(선학?교학) △불교사? 응용불교 · 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 불교사회복지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의 세가지 분야로 지원 자격은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이어야 한다.

공모 접수는 3월 4일까지로 우수상 1명과 학술상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인 〈선문화연구〉에 실리게 된다. 제출기한은 2월 18부터 3월 4일까지다.

한편, 선리연구원학술상은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학 발전을 위해 제정됐으며 선학원 1사찰 1논문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신청

2월28일까지, 자유주제도 가능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4월 12일 오전 10시 '고(苦)와 해탈'을 주제로 서울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회는 춘계학술대회 발표에 참가할 학자 신청을 받는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30매로 신청마감은 2월 28일까지다. 원고 마감은 3월 29일까지.

한편, 1988년 창립된 인도철학회는 4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수 30명, 석 · 박사 과정 전공자 60명에 이른다. 매년 두차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성과물을 모은 〈인도철학〉을 지금까지 22권 발간했다.

노덕현 기자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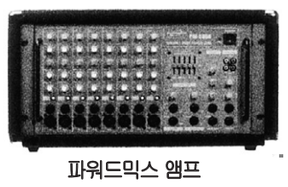


영 남 전 통 범 음 · 범 패 교 육 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호남 불교 중흥 발원 2000일 기도 회향

무각사, 사부대중 300명과 회향 법회

광주 신도심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할 무각사(주지 청학)가 2000일 기도 회향을 2월 20일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번 기도는 청학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호남불교 1번지를 주창하며, 지난 2007년 8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침체된 호남불교 중흥과 도량 중창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시작된 기도는 하루 세 차례의 예불-금강경 독송-108배 수행으로 1시간 30분씩 매일 이어졌다. 이를 위해 청학 스님은 기도기간에 사찰 밖 출입을 금한 채 정진에 임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강화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0여명이 동참해 회향을 축하해 주었다.

청학 스님은 인사말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까지 바꾼 자승스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도를 시작한지 2천일을 맞았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청 땅을 불하 받고 불사도 많이 진척된 것은 신도들 덕분"이라며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목탁으로 허공에 꽃을 그리다 보니 6년이 지났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꽃이지만 언젠가는 볼 수도 있듯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소중히 하는 여기자"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은 회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 많은 만큼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사말에 앞서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2000일간 애써 기도해주신 신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시기도 때마다 회향진언을 하는데, 회향진언이란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6년 동안 금강경 독송 108배 등 수행

자승 스님 등 사부대중 300명 참석

그 공덕을 나와 내 가족이 받고 남은 것을 모두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발원"이라며 "2000일간 쌓은 공덕을 반은 가족에게 나머지는 모두 이웃과 함께 골고루 회향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법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기도에 이어 회향법회가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자승스님은 주지 청학스님과 천일기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한 강명진(54,전북 과학대 강사)씨를 비롯해서 무각사 신도 9명에게 선물을 증정해 의미를 더했다.


무각사가 2000일 기도 회향 법회를 2월 20일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강화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어 청학 스님의 도반이자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축사에서 "출가 후 2천일 기도 회향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2천일 기도면 선원 참선 20년 수행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기도란 한자로 뜻풀이하면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 연장이 쉽지 않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 다 바쳐야 연장된다. 그처럼 사력을 다하지 않고는 2천일 기도를 다 할 수 없다. 이런 스님이 계시기에 한국불교가 희망이 있다"며 기도회향을 하는 대중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무각사는 지역봉사활성화를 위해 자비봉사단을 구성 매년 지역민들을 위한 쌀나누기, 동지죽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나눔 공간인 개미장터와 문화공간인 로터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누고 비우며 힐링 체험하세요"

송광정심원-하람 템플스테이 협약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불교의 수행방법과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의 체험이 녹아있는 템플스테이와 지친 심신을 치유하면서 서로가 단합되는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채)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송광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심원(관장 우용호)과 교육전문 법인 하람(대표 이서경)은 2월 19일 나비채 스테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개 기관이 함께 진행하게 될 나비채 스테이는 나눔(봉사), 비움(休), 채움(평생교육)의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소외와 갈등, 불균형,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생활에 지친 참여자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비우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국 불교 템플스테이의 장점과 교육전문법인 하람의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결합한 '나비채 스테이'는 △마음의 이해 △불교문화의 이해 △비움과 나눔과 채움의 의미 성찰 △인문학 강의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탐방, 직접 캔 종남산 산나물로 만드는 사찰음식 프로그램, 종남산 서



송광 정심원과 교육전문 법인 하람은 2월 19일 나비채 스테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바이벌 팀플레이 등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형의 템플스테이를 참여자 선택에 따라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송광 · 정심원과 연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겸비해 나 자신만의 감성 치유가 아닌 소외된 우리 이웃도 보듬으며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완주 송광사는 그동안 '큰사람이 되자, BIG 템플스테이'와 '완주 송광사 가족캠핑스테이'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왔다. 완주 송광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하람의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다양한 참여 기관들의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접목해 맞춤형 교육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안군, 조계종과 손 잡고 연꽃축제 연다

2월 21일 군청서 협약식 체결

세계적인 연꽃군락지인 무안 일로에서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가 조계종과 공동개최된다.

무안군과 조계종을 대표하는 호남 6대 교구 본사(대표 대흥사 범각 스님,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선운사)는 2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 무안연꽃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오는 7~8월에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와 관련해 △'축제 개최 기간은 5일간으로 정하고 △무안군은 종교행사와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 △연등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안군이 이렇게 업무협약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7~8월 경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양최대의 백련 군락지인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연꽃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무더위와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 등으로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군은


무안군과 호남 6대교구 본사는 2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 무안연꽃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 기대

호남불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재도약하고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불교계에서도 환영을 나타냈다. 6대교구 본사 담당자는 "지역의 중요한 문화축제에 불교계가 참여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다"라며, "특히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성화로, 무안 일로에 조성된 연꽃지는 향후 불교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성지순례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향후 호남불교계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동양최대의 백련자생지인 회산백련지는 불교인들 사이에서도 순례지로 알려져 있으며, 6대 교구본사 측에서도 다양한 불교행사를 준비해 불자들의 호남방문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초청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2월 23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를 초청해 18번째 내비둬 콘서트를 개최했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과 함께 그룹 '아카시아'의 소프라노 김영, 테너 홍원표, 알토 구예니, 바리톤 송순규 씨가 함께 진행했다. 아카시아는 내비둬 콘서트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만으로 '돈별곡' '자전거' '너를 좋아해' '비켜' 등의 창작 아카펠라 곡을 들려주며 자신들의 음악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들 지친 삶에 잠시 멈춤의 가치를 선사했다.

일감 스님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나의 삶을 템플스테이 여행에서 만큼은 놔두어보라'는 의미로 기획된 콘서트가 18번째를 맞았다" 며 "집착과 분별의 삶에서 정신적인 휴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갖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결성된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 창작아카펠라를 발표하며 활동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신도회, 우리콩 장 담그기 행사

2월 21일 광주 콩조합센터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웰빙이다. 그중 각 가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식구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식 발효 음식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에서 운영하는 저절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저절로생협')은 2월 21일 광주콩종합센터에서 '전통발효음식 우리콩 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 · 된장 담그기 행사는 광주 남구청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지원육성해 온 남구 압촌마을의 국산콩 전통메주를 이용해 만드는 건강식 식품으로, 메주를 담그는 장독에는 각 체험자의 이름표를 붙여 4개월 이상 숙성 후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날 첫 장을 담그는 행사에는 지용현 회장,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혜법 스님(미륵사 주지), 장병완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전문요리사의 지도하에 장 · 된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행사에는 다문화 이주민 가족들과 지역 유치원생들이 체험에 참가하고, 장독대 옆 고목에 소원지를 매다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저절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월 21일 광주콩종합센터에서 '전통발효음식 우리콩 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지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먹거리와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웰빙문화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좋은 문화적 전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건강식 먹거리 만들기는 우리 식단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우리의 먹거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저절로생협에서 진행해온 건강식 먹기리를 각 가정과 불자들에게 전달하기위한 첫 사업으로, 매년 2월경에 지역단체인 압촌메주영농조합과 연대해 리콩으로 만든 메주를 소비자와 함께 400여개의 장독대에서 담근다. (062)385-045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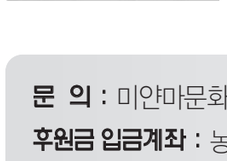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지역 환경 파수꾼으로 거듭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사찰주변 생태계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천명하고 '영축환경보존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통도사, 영축환경보존위 발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사찰주변 생태계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천명하고 '영축환경보존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통도사는 최근 2개월 만에 불법 건축으로 운행중지된 밀양얼음골 케이블카에 이어 신불산 케이블카 계획, 밀양풍력발전단지, 울산-함양 간 신불산 터널 계획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도사는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이래 현재까지 환경을 잘 보존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다. 청정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사찰 수행환경을 보호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영축환경보존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2월 19일 통도사 영상홍보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사회국장 도안 스님, 이병인 부산대 환경학과 교수 등 학계,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산 스님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영축산 일대의 생태계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영축산은 三世의 복합유산

수행환경 보존에 앞장설 터

이병인 부산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는 "불교유산은 문화·자연·종교유산이 어우러진 복합유산이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三世)의 유산이기에 불교의 사회적 시대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찰림을 활용한 불교수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헌 밀양시민연대 대표는 "보존이 잘 된 수려한 자연관광지야말로 최고로 선호하는 관광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도사 일대의 사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통도사처럼 천년 이상을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공간에 대한 개발은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축환경보존위원회는 위원장에 통도사 사회국장 도안 스님, 부위원장에 밀양시민연대 이철헌 대표, 통도사 산하 환경단체인 푸른영축지킴이 배태진 단장이 내정됐다. 또한 통도사·표충사·내원사·석남사 소속 스님 5명, 이병인 부산대 교수 등 전문가 5명, 마창진환경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등 환경단체 4명, 홍순경 도의원 등 시도의원 3명, 김수철 통도사청년회장 등 신행단체 4명, 주민대표 2명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 도안 스님은 "영축환경보존위원회는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영축산의 파수꾼이 되어 170여 말사와 함께 환경보존에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건전한 청소년 문화 만들 터

조계종 동화복지재단 청소년수련원 개원

조계종 동화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이 2월 1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은 2층 문수관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주호영 국회의원, 류병선 9교구 신도회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화사 풍물패 길놀이, 청소년 댄스 동아리 공연후 개원 기념 테이프 커팅, 기념식, 수련원 시설 관람, 다과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이 2월 1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동화복지재단 이사장 성문 스님은 "1천 5백년의 역사가 있는 교구 동화사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지역사회에서 널리 펴져 공동체의 역할을 다해 낼 수 있는 명품수련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시권 자연친화 체험, 교육,수련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발해 운영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무명사, 불교대학 개원 성료

제1기 신입생 150명 입학

부산 무명사(주지 무명)는 '바른 불교, 바른 실천'을 교육지표로 무명사불교대학을 개원하고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2월 18일 부산 남산동 무명사 3층 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주지 무명 스님, 윤일현 금정구의회 의장, 동명대 김종수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0명의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무명사불교대학 신입생 대표로 고은비씨가 입학선서를 하고 있다.

무명사 불교대학은 5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마다 불교예절, 시명스님의 찬불가, 심리와 종교, 불교미술, 불교교리 등이 진행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운문유치원 졸업식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2012년 제5회 졸업 및 수료식을 2월 19일 개최했다.

2008년 1월 경산시 사동에 자리 잡은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5학급 인가 후 2012년 3월까지 제5회 입학식과 함께 2013년 2월 19일까지 총 195명의 수료생 및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사장 일진 스님,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학장 흥륜 스님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식순에 따라 연혁보고가 있은후 , 증서 및 재원상,개근상, 육바라밀상의 상장 수여가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항 불교-천주교 합동 신년교례회 개최

포항지역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2월 20일 포항 '웨딩 아이린'에서 합동 신년교례회를 갖고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주교대리 전재천 신부 등 양 종교 성직자와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덕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와 천주교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웃과 나라발전의 초석이 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마당에 등장한 천막법당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고 날씨도 추웠다. 입춘과 우수가 지난 지금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으니 그야말로 엄동설한이라는 것은 이번 겨울을 두고 이르는 말이 분명하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오면 사찰에서는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특히 사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옥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가 많다. 한옥이라는 것이 본래 벽이 얇고, 틈새가 많아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를 막아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온돌을 놓지 않은 법당 같은 경우에는 법회를 열거나 기도를 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어서 다른 건물에 비해 걱정의 정도가 심하다. 게다가 화재의 위험 때문에 법당을 따뜻하게 데울 전열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니 겨울이 되면 스님들도 신도들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최근에 사찰에 신도들이 부쩍 늘어나고, 행사도 많아지면서 법당의 이용율이 예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사찰의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중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열거나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님들은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미안하고 신도들은 난감할 뿐이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봄, 가을철이나 덥기는 해도 여름철에는 마당에 서서라도 법회나 대형행사에 동참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이것마저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마당에 설치한 천막인 것이다.

최근에 많은 사찰에서 눈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천막법당을 만들어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법회나 행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천막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보니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저 눈보라와 바람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사찰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사찰에서는 추운 겨울철에 불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천막법당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사찰의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천막법당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ㅈ사찰

20주년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3월3일 입재

〔구담자모암 법당불사 새로 완공 되었습니다〕

구담자모암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 매년 양력 3월.6월.9월.12월 첫째 일요일 천도재 합니다.

2013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부터 태아영가 참회기도 입재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부모는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배움에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라고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 된다. 생명을 가진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무명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 인연에 의해서 나며,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면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하였으며,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업이 〈살생〉이라고 하였습니다.

◎ 망 태아영가도 한 생명입니다.
◎ 낙태되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할 귀한 생명이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가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 부모는 그 업보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 태아영가는 위 조상님과 함께 천도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엄마, 아빠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태아의 영혼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참회기도 천도재 합시다.

오는 날
※ 입재 : 양력 3월 3일 (천도재 입재)
※ 3 재 : 양력 3월 24일 (엄마. 아빠참회 참법기도)
※ 5 재 : 양력 4월 7일 (관욕하는 날)
※ 6재 : 양력 4월 14일 (구병시식)
※ 7재 : 양력 4월 21일 (회향, 끝나는 날)

준 비 물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등 (갤러리 참고) (지의 옷과 신발은 사찰에서 판매함)

계좌번호 국민은행 :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 협 : 225051-51-113712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자모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5 NAVER 구 담 사 http://gudamsa.org 문의 : 031)529-2855

버스운행
1호차 : 조계사 앞 (7:00 출발) ⇒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 (7 : 40) ⇒ 길음역 10번 출구 (8:00 ⇒ 미아삼거리역1번 출구(8:10) ⇒ 수유역1번 출구 (8 : 20) ⇒ 도봉산역 (8 : 30) 의정부터미널 (9:10) ⇒ 구담사
2호차 : 강변역 테크노마트 앞 (8 : 30) ⇒ 광나루역3번 출구 버스정거장 (8 : 35) ⇒ 구리역 앞 롯데백화점 (8:40)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패 관계로 접수는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로 뻗은 벼랑 끝 위에 중생 번뇌 끌어안는 관음의 미소가…



동해의 넘실대는 파란물결이 눈앞에 펼쳐지는 양양 낙산사는 1300여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저 멀리 벼랑끝 위에 의상대사가 좌선 수행을 했던 의상대가 보인다. 요즘은 세인들에게 일출을 맞이하는 곳으로 더 알려져 있다.

④ 해수관음도량…양양 낙산사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높이 16m해수관음상

사찰에도 만일 색깔이 있다면 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푸른색일 것이다. 동해의 넘실대는 파란 물결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이다. 바다라는 빼어난 풍광은 절특유의 고즈넉함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한다. 낙산사서 만난 외국인들이 "원더풀(Wonderful)"과 "뷰티풀(Beautiful)"을 연발하는 것도 결코 오버액션이 아니다.

낙산사는 이 처럼 경내 어디서나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 일주문을 지나 해송(海松) 숲길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깊은 산자락에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오봉산 중턱 원통보전 앞에 서니 시원스레 동해바다가 펼쳐진다.

사람으로 따지면 미스코리아급 풍모를 자랑하는 낙산사에도 화마가 닥쳐 2005년 경내와 일부 성보문화재들이 전소됐다. 하지만 단원 김홍도가 그린 '낙산사도'와 발굴 조사를 근거로 최근에는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

낙산사에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300년 전 의상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지세를 발견했을까 의문이 든다. 의상 대사를 이끈 힘은 다름 아닌 관음보살이었다고 전해진다. 의상 대사가 관음보살 친견을 위해 낙산사 동쪽 벼랑서 27일 동안 기도를 올렸으나 뜻을 못 이루자 낙심해 바다에 투신하려 했다. 그때 바닷가 굴 속에서 희미하게 관음보살이 나타나 여의주와 수정염주(水晶念珠)를 건네며, "나의 전신(前身)은 볼 수 없으나 산 위로 수백 걸음 올라가면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있을 터이니 그곳으로 가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원통보전 자리라고 한다. 원통보전에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건칠관음보살좌상(洛山寺乾漆觀音菩薩坐像)이 독존으로 모셔져 있다. 장지에 옻칠을 한 관음상은 각 부분의 비례가 좋고 얼굴 표정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지난번 화재로 원통보전은 완전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다가 중건과 함께 다시 제자리에 봉안되었다.

원통보전서 바다 쪽으로 난 이쁜 길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현재 이 곳은 장애인들도 마음놓고 오갈 수 있게 확장 공사 계획중이라고 한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낙산사의 상징 해수관음상이 우뚝 서 있다. 해안 절벽 위 16m 높이인 이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로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고 있다.

동해를 벽으로 삼고 마치 면벽수도하는 모습이다. 해수관음상서 다시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의상대와 홍련암을 만날 수 있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의상대 북쪽 300m 지점에 있는 홍련암(紅蓮庵)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기 위해 기도하던 장소로 낙산사의 모태가 된 곳이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온 의상대사가 굴속으로 들어간 파랑새(靑鳥)를 보고 그 굴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7일 후 바다 위에 붉은 연꽃(紅蓮)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 관음보살을 친견한 의상대사는 이곳

화재후 김홍도의 '낙산사도' 보고 원형 복원

템플스테이 · 무료국수 · 다도 등 체험해 볼만

에 암자를 세우고 홍련암이라고 이름 짓고, 파랑새가 사라진 굴을 관음굴(觀音窟)이라 불렀다.

지금의 홍련암은 1975년의 중창 때 지어졌으며, 안에 봉안된 탱화 역시 같은 해에 조성되었다. 법당 마루에는 8㎝의 정사각형 구멍이 나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10m의 낭떠러지 바위 틈새를 볼 수 있다. 이 바위 틈새는 관음굴이라고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거나 오체투지를 한 자세여야만 내려다 볼 수 있다. 낙산사를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단 몇시간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몇일씩 묵으며 마음의 찌든 때를 벗어내고픈 욕심말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낙산사측은 템플스테이를 상설로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의 주제는 '파랑새를 찾아서'이다. 의상대사가 파랑새에 이끌려 관음보살을 친견했듯,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속 파랑새를 찾아 명상에 잠기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홈페이지서 예약 가능하다. www.naksansa.or.kr/낙산사 템플스테이 (033)672-2417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화재가 난 이후 8년 동안 성공리에 복원불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든지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와 문화공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낙산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상대사가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기도하던 홍련암

여행수첩

■낙산사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료 국수 공양**=절을 찾은 불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낙산사 다래원 앞에 마련된 '무료국수 공양실(식당)'에서 제공된다.

▲**무료 찻집**=종무소 옆 설선당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다. 봉사자가 녹차를 우려 내준다. 창을 마주하고 앉아서 창밖 풍경을 내다보면서 천천히 다도를 음미해 보자.

■낙산사 주변 볼거리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033-671-2000)=볼거리가 제법 있다.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곳에 들러서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 들러서 원시인들의 삶을 탐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현미술관**(033-670-8450)=1만여평의 야외 조각공원과 160여평의 실내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가 바라보이는 야외조각 공원은 환상적이다.

■숙박



▲**양양 쏠비치**=스페인풍으로 지은 고급 리조트다. 호텔과 리조트로 나눠져 있으며, 실내외 워터파크가 있다.



설선당에 마련된 무료다실서 방문객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낙산 에어포트 리조트**=해수탕으로 유명하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맛집

막국수로 유명한 동호면옥(033-673-336)과 곰치국이 맛있는 동일식당(033-72-1563), 민물어탕을 하는 천선식당(033-672-5566), 섭국이 유명한 담치마을(033-673-0012) 등이 있다.

■찾아가는길

서울에서 갈 경우 서울춘천고속도로→동홍천IC→인제→원통→한계령→양양→낙산사. 경부 또는 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하조대IC→양양→낙산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0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3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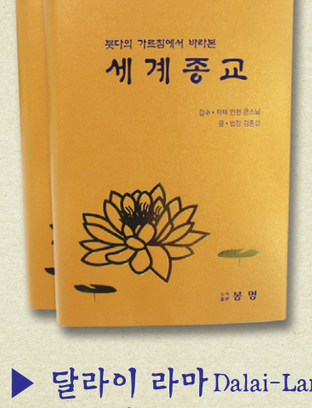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 · 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715쪽 | 값25,000원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 **영혼체 윤회론** (158쪽/10,000원) -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 **관음태교** (227쪽/10,000원) -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무료배포) - 현지사 천도재 안내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생태사회와 불교

동물의 권리와 동물의 복지

동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녹색연합이 진행한 곰 사육 반대 캠페인. 적지 않은 수의 곰이 약용을 위해 매년 희생되고 있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비위생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육되는 동물들.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들은 잔인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됐다.

동물들의 권리는 없는 것일까

2011년 초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생매장하는 동영상이 TV와 인터넷에 폭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포크레인과 군인들이 동원되어 한밤중에 생매장되었고, 뛰쳐나오려는 어미돼지는 쇠파이프로 때려잡아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매장된 이후 인근 주민들은 20시간 지난 뒤에도 땅속에서 돼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한다.

열악한 농장동물의 환경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은 30%이상이다. 또 그러한 돼지는 삽으로 쳐서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소 농장 바닥은 흙이 아니라 대체로 소똥으로 그득해서 냄새도 지독할 뿐아니라 그로 인한 병균도 많이 서식한다. 더욱이 24시간 전등을 켜둔다. 과거에 소는 4~5년은 키우고 도축을 했지만 이제는 2~3년으로 짧아졌다. 돼지도, 닭도 생존기간이 짧아졌다.

촛불시위를 촉발하게 만든 광우병사건을 통해 우리는 결국 얼마나 많은 소들이 잔인하게 사육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지만 닭의 경우 케이지(Cage)나 배터리(Bettery)식 양계 상황을 보면 닭은 동물이 아니고 계란을 낳는 기계로 취급받을 뿐이다. 심지어 닭이 알을 품지 못하게 중성화하거나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일부러 굶기기도 한다. 최근에 또 다른 현상은 고양이를 태워죽이거나, 개를 때려죽여 70군데 이상의 뼈를 다치게 하는 묻지마 동물살해사건이다.

도살장에 가보면 동물 자신들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 동물들은 공포심으로 비명을 지르고 도살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죽지 않으려고 혼신의 몸부림을 친다. 이 동물들이 제명을 다할때까지 살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

한편 각광받는 반려동물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반려(伴侶)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더욱 높아가고 있어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이다. 외로운 독신들이나 형제가 없이 혼자 크는 아이들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발양하게 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동네마다 동물병원이 성업을 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사료시장이 커졌으며, 최근에는 동물들에게 옷을 입히는 의류사업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애완동물 호텔이 성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려진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사회인사들은 이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운동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광우병,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들은 대부분 사람과 동물이 같이 전염되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잔인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들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들의 살 권리와 복지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2008년 동물보호법 제6조에 다음 5가지 동물의 자유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1)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2) 생리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3) 상해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공포와 걱정으로 부터의 자유 5) 동물 특성에 맞는 행동양식을 따를 자유이다. 여기에 2009년 실험동물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에 대한 서구의 법률은 1822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유럽에서는 동물에게 일어서고 눕고, 돌아보며 구부리고 사지를 펼수 있는 공간도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했다.

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의 관심은, 동물들이 죽음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느낀다는데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해 인간들의 '심적인 불편함'을 계기로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운동과 법률등이 만들어졌다. 실제 인간은 고양이와 개와 같은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이 시발이 되어 소나 말처럼 큰 동물을 학대하고, 결국은 사람을 살해하고 약한사람이나 약한 민족들을 학대하는 문화로 전이된다고 말한다. 그랫 작은 동물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곧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의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한다.

동물보호를 위한 생각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권(Animal Rights)이라는 개념이다.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통증, 고통, 불안이 없는 적당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육제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복지가 결국 '인간을 위해서'라는 수단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비판한다. 동물은 인간에게 필요와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동물이 한 생명으로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친한 반려동물 관심 높아져
대한민국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모든 생명의 해탈이 부처님 가르침
인간 탐욕위한 동물 살상 과보 받아

물론 동물권론자들도 방편적으로 동물복지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권리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튼 한편으로 클래식을 들으며 키운 소나 풀어서 먹인 스트레스 없는 닭이 더 맛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며 축산업자들은 동물복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동물의 생명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맷돼지가 도심에 출몰하여 소탕하는 일, 그것을 오락으로 하는 일은 아주 불편한 일이다. 어쩌면 인간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침략하고 생태를 파괴하여 난민처럼 떠도는 것인데 이들을 마치 무장공비 소탕 정도로 생각하여 사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동물을 오락으로 여기는 투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유럽의 동물권운동가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결국 2012년부터 스페인은 투우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물보호단체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동물보호협회를 비롯하여,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개고기 반대운동본부,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여러단체들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활동에 남성들보다 대체로 여성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단체들 조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만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자타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산속의 한 수행자에게 어느날 까치가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안 이 수행자는 까치를 숨겨주었다. 그러나 곧 매가 와서 까치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자 수행자는 매에게 까치의 무게 만큼의 자신의 살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울에 자신의 살을 베어 올려놓았지만 까치가 더 무거웠다. 거듭했지만 까치가 더 무거워서 결국 자기 온 몸을 모두 올려놓은 뒤에야 무게가 같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까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같은 무게라는 것이다. 생명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고뇌의 시작은 농경제에 참여하면서 부터였다. 쟁기에 걸려 고통을 받는 벌레, 그리고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 채찍을 맞아 괴로워하는 소와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밭은 가는 농부를 보면서 왜 많 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셨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연관된 모든 생명의 해탈,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이제 동물에 대한 깊은 연민을 넘어서 그들의 생존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 권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개나 짐승에게 까지 권리를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년전 미국의 노예주, 아니 그 훨씬 전에 귀족이나 노예주들이 바로 노예들을 향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 1920년 전후 여성의 참정권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남자들도 바로 여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별받는 인간도 말할 것도없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인간의 탐욕과 식욕을 위해 제명에 죽지 못한다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연기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결국 어떠한 형태든로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로 돌아올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大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무문관

3년(천일)결사 도반 모집

3년동안 일체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무문관 각방에서 소승과 더불어 용맹정진 할 폐관 수행 도반을 법랍순(선착순) 모집합니다.



■ 인원 : 비 구 5명(무문관 A동)
비구니 5명(무문관 B동)
■ 기간 : 계사년 하안거
(음력 4월 보름) 결제 ~
병신년 동안거
(음력 정월 보름) 해제
■ 문의 : 053)753-8228(감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大관음사 감포 無一禪院 무문관
會主 우학 合掌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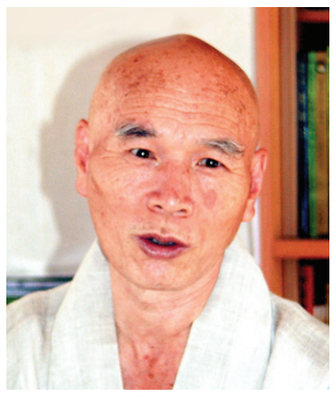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가신지 30년, 강원에 교재로 늘 살아 있어



方山老의 無影樹 〈5〉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통광 스님



통광 스님
범어사 강원 수료, 칠불암 복원, 쌍계사 주지
칠불암 회주,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고려대 교수들에게 '장자' 강의
유불선 통달해 '예언가'로 오해
스승 한암 스님의 선교가풍 이어
운허 · 관응과 함께 3대 강사

-스님은 탄허 스님의 전강제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선 탄허 스님을 만나게 된 배경부터 듣고 싶어요.

저는 지리산 자락의 화개에서 태어났어요. 유년시절에는 한약국을 하시면서도 서당을 열었던 아버지에게 유교의 사서, 고문진보 등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내 은사이신 여환스님이 연곡사 서굴암에 계셨어요. 그때 제가 여환 스님을 모시면서 한의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 청나라 순치 황제의 출가시와 신라 부설거사의 사부시(四浮詩)를 듣고서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어요. 그리고 이종익의 소설 〈사명대사〉를 읽고는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의사보다는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도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여환 스님으로부터 화두 참구를 하면 우주의 본체 생명자리를 알 수 있다고 들어서 1958년에 출가하였지요. 그래서 여환 스님을 따라 범어사에 와서 스님이 되어 공부를 하였는데, 내가 속가 시절에 한문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유불선 삼교를 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었는데 스님들이 유불선을 달통한 스님이 탄허 스님이라고 해서 탄허 큰스님을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언제 어디에서 처음으로 뵈었는가요? 스님은 부산 삼덕사에서의 화엄경 교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덕사 시절을 회고해 주세요.

거기에서는 만 6개월을 작업하였지요. 대중들과 함께 하기 이전에 탄허 스님은 김상숙과 화엄경 원고의 초고를 미리 맞추어 봤어요. 김상숙은 숙대국문과를 나왔지요. 나도 오전에 미리 하는 거기에 참여하였는데, 탄허 스님이 화엄경을 만년필로 낱낱이 번역한 것을 셋이 다시 한 번 싹 읽어보는 것이지요. 나는 아침에 그렇게 하는 데에 참여하였다가, 그 후에 전체 대중들과 같이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어요. 그러니깐 하루에 열여섯 시간을 다 들었지요. 그때에 있었던 대중들은 여럿이었어요. 각성스님, 무비스님, 비구니 성일스님이 있었고, 자민스님은 왔다갔다 하였고, 명호근도 오고 김운학씨도 한번 다녀갔지요. 외호대중으로는 스님의 사위인 우담거사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무용이라고 그랬어요. 또 민족사 사장인 윤창화는 시봉이었는데 서장을 읽는 것을 본 탄허 스님이 창화가 문리가 어지간히 터졌다고 하셨어요. 인허스님도 있었는데 그때 그 스님은 원각경 게송을 달달 외웠지요. 그리고 내 고향에서 나를 따라온 권학만이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탄허 스님이 권동이라고 불렀던 그 친구는 그 후에 대원암까지 탄허 스님을 따라가서 스님에게 그때 돈 4만 원을 학비로 받아서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은 부경대학의 총무과장으로 있어요. 탄허 스님은 대중들에게 장자 강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스님은 그 후에도 탄허 스님을 뵙고, 배웠겠지요.

그럼요. 나는 그 후에 봉은사에 있었던 동국역경원의 제2기 역경사로 뽑혀서 봉은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스님은 그 후에 서울의 청룡사, 보문난야, 대원군별장, 대원암에 계셨는데 나는 종종 가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청룡사에 계셨을 때에는 청룡사 문간방에서 나하고 무비스님, 그리고 법주사의 월은스님 이렇게 셋이 탄허 스님에게 장자를 배웠지요. 그 무렵에 탄허 스님이 고대의 시계탑이 있는 교실에서 고대 교수들에게 장자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돈연이가 고대에 가서 저녁에 하였던 그 강의를 들었지요. 강의를 듣고서 봉은사로 늦게 오게 되어 할 수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더니 법정 스님이 그걸 빗대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또 청계천에 있는 풍전상가에 있었던 덕산거사의 삼보법회에서 스님이 기신론 강의를 할 때에도 가서 끝까지 다 들었지요. 그때 대원암에 갔더니 유생인 심백강이 스님에게 장자를 배우려고 왔던 것이 생각나네요.

-1982년 겨울 사교 · 대교 과정의 경전까지 완역한 기념으로 월정사에서 하였던 강의는 들었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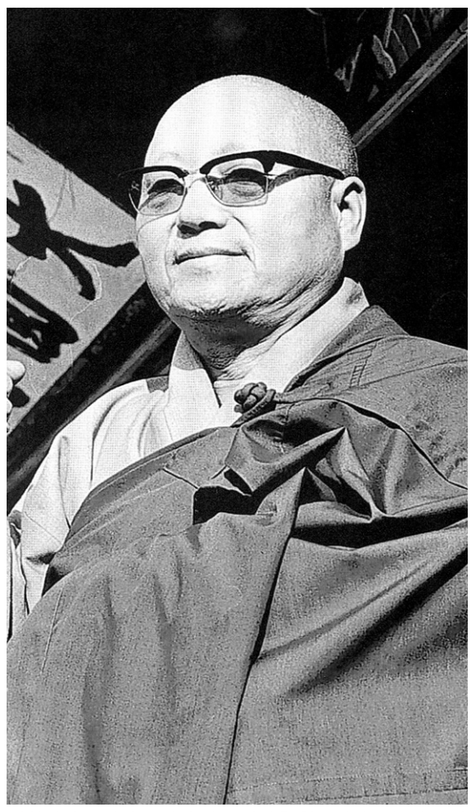
그 강의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칠불암에 있으면서 칠불의 복원에 신경 쓰고, 복원불사에 주력하는 바람에 나하고 무비스님은 듣지 못하였지요. 그렇지만 강의하는 도중에 부산 신도를 동원해서 과일 여러 박스를 싣고 가서 찾아뵈었지요. 가니까 밤 여덟 시가 되었는데 스님 방에 불이 꺼져있고 스님이 주무시더군요. 그래 다음 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는 "스님은 예전에는 하루에 열여섯 시간을 번역해도 피로하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일찍 주무십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스님은 항상 당신은 무피염(無披厭), 즉 피로하지도 싫증나지도 않는 상태에 들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노인의 건강은 겨울 날씨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시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강의를 꼭 들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못 들은 것이 내 마음에 안 되었다고 생각되었지요. 그것도 들었어야 하는데, 참 아쉬워요. 그 무렵 나는 칠불 복원에 애착이 붙어서 그 불사만 생각하였어요.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전법게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들려주세요.

나는 스님으로부터 그것을 친필로 받았어요. 나 혼자서 1978년에 월정사 대웅전에서 받았지요. 그것을 받게 된 것을 말하면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탄허 스님은 "내가 여러 수좌를 봤지만 조사어록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는 선지가 있는 통광이 같은 사람은 별로 못 봤다"고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유불선 삼교의 회통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런 탄허 스님을 이런 시대에 만나고 배웠다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전강을 받을 때에 나는 은사인 여환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탄허 스님을 법사스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면서 추천서를 써 주셨어요. 그 추천서를 받아서, 탄허 스님에게 갖다 드렸지요. 내가 왜 은사에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옛날에 은사들이 당신 상좌가 법상좌가 되면 상좌를 빼앗겼다고 보고 서운하게 여기고 그래서, 미리 말한 것이지요. 월정사 대웅전에서 대중들이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3월로 기억이 납니다. 그 게문은 〈방산굴법어〉에도 나오는데, 그 끝에는 요즈음 쓰는 불기가 아니고 세존응화로 시작되는 스님만이 쓰는 옛날 불기로 쓰여 있지요. 그 게송이 참 좋더라구요. 그때에 받은 내 법호가 제월(霽月)이지요.

-스님은 탄허 스님을 어떤 스님으로 보시나요?

탄허 스님은 유교, 노자, 장자, 불교 등 모든 것을 잘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면서도 화엄학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취미로 노장학, 주역 같은 것을 하셨는데 불교는 당연시하면서도 그런 것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 예언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허 스님은 정역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스님은 점술로 하신 것이 아니고 현학(玄學)으로서, 철학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 당시에 3대 강사로 불린 스님이 운허 스님, 관응 스님, 탄허 스님이에요. 내가 이 세 스님에게 다 배웠어요. 내가 역경사 2기생이고, 운허 스님은 동국역경원장을 하셔서 봉은사에서 주말마다 운허 스님에게 능엄경 강의를 2년이나 배웠어요. 운허 스님은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에서는 최고지요. 나는 또 관응 스님이 대원정사에서 하였던 유식삼십송 강의를 20일간 들었어요. 평소에도 이 스님에게 자주 가서 관응 스님의 설법,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이 스님은 분필 하나만 잡으면 하루 여섯시간씩 6개월을 교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 하셨어요. 하여간 이 스님은 대중 설법을 잘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한문 원전을 갖고서 현토하고 번역하는 것은 최고예요. 스님은 한문의 리듬을 타면서 하는



강원에서는 탄허 스님의 현토 직역을 참조해서 공부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토가 정확해요. 탄허 스님은 장자 내칠편을 다 외우고, 영가집 그걸 다 외우고, 기신론도 다 외우시고, 주역의 계사(繫辭)도 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칠판에 경전을 가득 써놓고, 그 판서한 것을 설명하시는데 기가 막혔죠.

-탄허 스님의 학문에는 특성이 있지요.

성균관대 한문과 교수를 하던 이진영이라고 있었어요. 이 선생은 역경원의 역경사로 있었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강의도 하였던 분인데 한문을 아주 잘해요. 탄허 스님은 이 사람을 보고 한문과 한시를 잘한다고 늘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종지(宗旨)가 없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진영은 탄허 스님에 대해서 탄허 스님이 쓰신 비석의 비문이나 책의 서문을 보면 작문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지를 추리는 것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최근 백 년 이내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늘 그런 말을 했지요.

-탄허 스님은 선지에 의한 해석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나는 탄허 스님으로부터 당신이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탄허스님이 상원사에 처음에 들어와서 공양주를 하였더니 한암 스님이 너는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3년 참선을 시키더래요. 그런데 그때 탄허 스님과 같이 온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배겨내지 못하고 절에서 나갔대요. 언제인가 내가 칠불암에 있으니까 그중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가 김택성과 같이 오대산에를 갔는데, 자기는 중간에 나왔지만 탄허 스님은 남아서 도승이 되었다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하였어요. 하여간 탄허 스님은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그냥 가려고 하였는데, 한암 스님이 "자네는 글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강백인 박한영 스님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지만 탄허 스님은 "스님 밑에서 배우지 다른 곳에 가서 배우지 않겠습니다"고 하였대요. 그래서 한암 스님 밑에서 치문부터 선문염송, 전등록까지 전체를 강을 해서 한암 스님에게 바치면서 배운 것이지요. 탄허 스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나처럼 둔한 사람을 못 봤지만,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도 못 봤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후반부의 말이 인상이 깊어요.

-그 시절, 오대산 상원사에는 수좌들이 많이 와서 탄허 스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종정을 지내신 고암 스님에게 탄허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암 스님이 상원사에 있을 때에 보니 탄허 스님이 만날 전등록, 선문염송을 보는데 토를 싹 달아서 한암 스님에게 가서 강을 해 바치더래요. 한암 스님의 증명하에 석사를 하는데, 해석하여 토를 다는 것을 석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두 토만 시정을 할까 그랬대요. 화엄경을 할 때에, 요즈음 말로 하면 결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토로 되어 있는 화엄경의 토를 다 달았대요. 한암 스님이 선사이면서 한문과 교학에도 능통하시니 선교를 겸한 스승을 모시고 배운 것이었지요. 그런 가풍이 이어진 것이지요.

-올해(2012)는 성철스님 탄신 100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2013)엔 또 탄허 스님 탄신 100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고승이 비교가 됩니다만.

성철 스님은 해인사라는 총림의 방장으로 계시면서 종정을 하셨고, 그리고 대중을 거느리면서 사셨지요. 또 원택이라는 스님이 있어 성철스님의 자료를 모으고, 정신을 계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탄허 스님은 월정사가 6 · 25 때 전소되어서 오대산에 상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월정사가 일부 복원되어 오대산에서 화엄경 특강을 하였듯이, 더 상주하시면서 그런 모임을 하였으면 좋았지요. 또 스님은 명당을 찾는다고 학하리에 가 계시면서 은거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탄허 스님의 자료를 누가 모으고, 정리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렇지만 탄허 스님이 스님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재를 다 번역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전통 강원의 교재를 다 번역함으로써 지금도 강사나 학인들이 탄허 스님을 찾고 있지요. 어느 비구니 강원에서 논강을 하다가 "탄허 스님을 모셨냐?"는 말이 나왔대요. 이 말은 탄허 스님이 현토하신 것을 보고 하는 것이냐는 뜻이지요. 이처럼 강원에서는 탄허 스님의 현토, 직역을 참조해서 공부하는 것이 근본, 전통이 되었어요. 탄허 스님 가신 지가 30년이 되었지만 강원에서 는 살아 있는 것처럼 만날 탄허 스님이 나오는 거죠.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무심’ 하려고 하면 도리어 ‘유심’ 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8〉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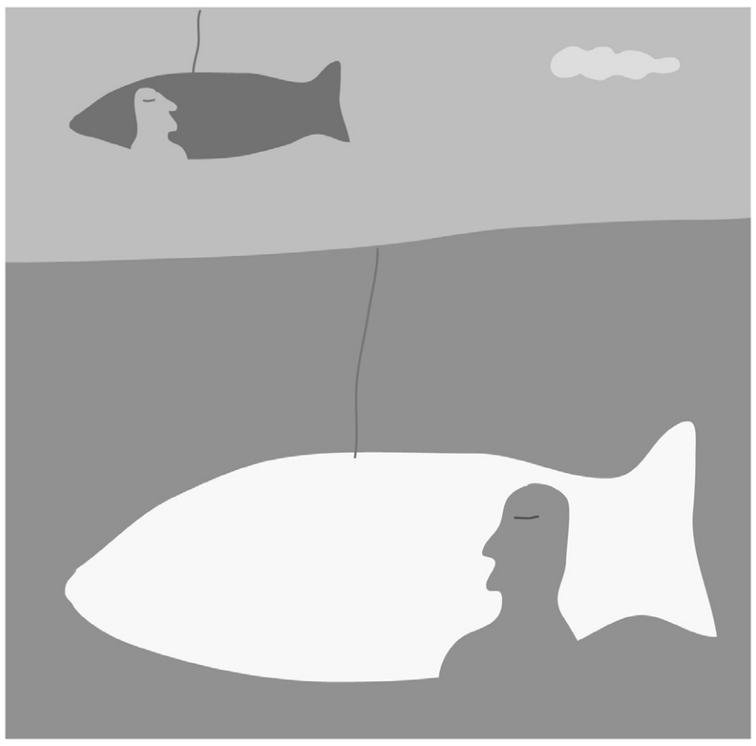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당장 한 생각에 깨달은 것이나 10지를 거쳐 깨달은 것이나, 그 효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다시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영겁의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 것이나 한 번에 올라간 것이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쓰는 사람을 보고 둔하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에 확철대오 하면 그만인 것을, 두 번, 세 번에 걸쳐 깨달으려니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에 안 것은 얕은 데에 머물렀는데, 다시 깨닫고 보니 깊은 데에 들어갔다.”는 말은 허망한 소리다. 이렇게 깨친 사람은 단계에 천착해서 뒷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이 공부에는 깊고 얕음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악이나 선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相]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왜곡되어 윤회를 받게 된다.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긴 이상, 분별심이 없을 수가 없다. 황벽스님은 차제를 빌리지 않고 조사선 도리로 배휴 거사를 한방에 깨쳐주었다. 지금 한 생각 돌이켜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대로 끝이다. 하지만 공부하고 난 후에도 부처가 되고 싶고 보살이 되고 싶은 생각을 자꾸 일으키다보니, 스스로 어지러워져서 자기 공부도 뒤집고 선지식의 가르침도 무시하게 된다.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각하여 진실로 정진하게 되면, 공덕이 쌓이고 원력이 붙는다. 그러면 공부힘이 생겨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입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무엇도 말끝에 이 법을 곧바로 깨닫는 것만 못하다. 이 법이 곧 마음이요, 마음 외에 따로 법이 없다. 이 마음이 곧 법이요, 법 외에 따로 마음이 없다. 마음 스스로 무심이 되면, 무심이라 할 것도 없다.

실상은 뭐라고 이름 붙이고 설명할만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는데, 이미 확인한 사람은 의연하게 수용하면 그만이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때가 되면 잠을 자는 것뿐이다.

마음을 가지고 무심해지려고 하면, 도리어 마음이 있게 된다.

본래 다 드러났는데, 무엇을 또 없애려고 하는가? 공부에 집착해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일 생각 일으켜도
일으킨 바 없는 것을 알면
끄달리지 않는다

습기 없애려 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그러나 알고 가야지
모르고 길을 가면
깜깜할 뿐이다

정진은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눈뜬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며 또 없애려 들 필요도 없다.

다만 묵묵히 계합(契合)할 따름이다. 모든 생각과 추론이 끊어졌다. 고로,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멸했다.’고 한 것이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지녔다.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불보살과 한 몸으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망상분별 때문에 갖가지 업과를 지을 뿐이다.

확철대오 해서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무엇이 부처님과 다를 게 없는지, 또 무엇이 차별된 모습을 쓰게 했는지를 자연히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길을 열어 보이셨고, 조사들께서 이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본원청정심

본래 부처에는 실로 일물(一物)도 없다. 둑 트이고 적정(寂靜)하며,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밝음이 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오면 어두워진다. 밝고 어두운 모습은 아니지만, 밝다고 하면 가장 밝고 어둡다고 하면 가장 어두운 자리다.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를 떠난, 편안한 자리다. 열반의 진락(眞樂)이다. 참다운 열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라고 했다.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면, 직하에 그것이다. 원만 구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깨닫고 깨닫지 않고에 상관없이 본래 성품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까닭을 모르고 지내다가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밝게 사무쳐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습기로 인한 어리석음이 아직 남아, 나도 모르게 눈앞을 어지럽힌다. “공부가 되었는데도 왜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흐름에 맡겨서 내버려둔 채로 세월을 지낸다면 좋은 인연은 분명히 온다. 그렇더라도 알고 시간을 보내야지, 모르고 길을 가면 장님의 세상처럼 영원히 깜깜할 뿐이다.

설사 3아승지겁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수 없는 세월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래부처를 깨닫는데 불과한 것이다. 정진도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서 정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진은, 과거의 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정진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공부해서 깨달음의 눈을 뜬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야만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㊽



이 진리는 평등하니 높고 낮음이 없다

〈금강반야바라밀경〉

토론이 가능한 교육

인도 동부의 도시 콜카타로부터 약 서너 시간 북상하면 ‘산티니케탄’이라는 한 시골마을이 나온다. 그곳에 ‘비슈바 바라티 대학’이 있다. 현재는 국립대학이지만,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상(문학상)을 수상한 라비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가 사재를 털어서 세운 대학이다.

이 비슈바 바라티 대학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함께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이다. 이 과정을 파타 바반(Patha Bhavana)이라 부르는데, 야외의 나무 밑에서 수업을 한다. 초등 1년부터 고등 1년까지 10년 동안을 이렇게 한다. 여기저기 망고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밑에 가면 작은 흑판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빨간 벽돌을 땅에 박아서 교실 경계를 표시해 둔다.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로 올 때마다 포대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온다. 그리고 그것을 깔고 앉는다.

이러한 파타 바반의 교육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교육방송(EBS)을 통해서 소개된 일이 있다. 타고르는 그 스스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험을 반성하면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유, 자유롭게….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 물론, 진리를 향한 자유이다.

이 파타 바반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이다. 그는 이 파타 바반의 교육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책 〈토론하기 좋아하는 인도인〉(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인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은 논쟁과 토론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고 말하는 책이다.

토론이 가능하려면

민주주의 진정한 꽃인 토론문화를 우리 사회에 꽃피우려면, 무엇보다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교육이다. 우리 교실은 어떤가?

우리의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대학은 어떤가? 대학원 수업은 어떤가? 다른 학문은 놓아두고, 철학 관련 학과의 대학원 수업은 어떤 것일까?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하기를 배워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철학 관련 학과의 대학원 수업은 충분히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럼 왜 토론식 수업은 안 되는 것일까? 토론을 하려면, 교사 · 교수가 스스로의 권좌(權座)에서 내려와야 한다.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한다.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교사 · 교수로서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그 수업에서 행해지는 지식의 산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월권이나 진리성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입식 교육이 되고 만다. 물론,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하다. 그렇지만 그것만이라 생각한다면, 법고(法古)는 되어도 창신(創新)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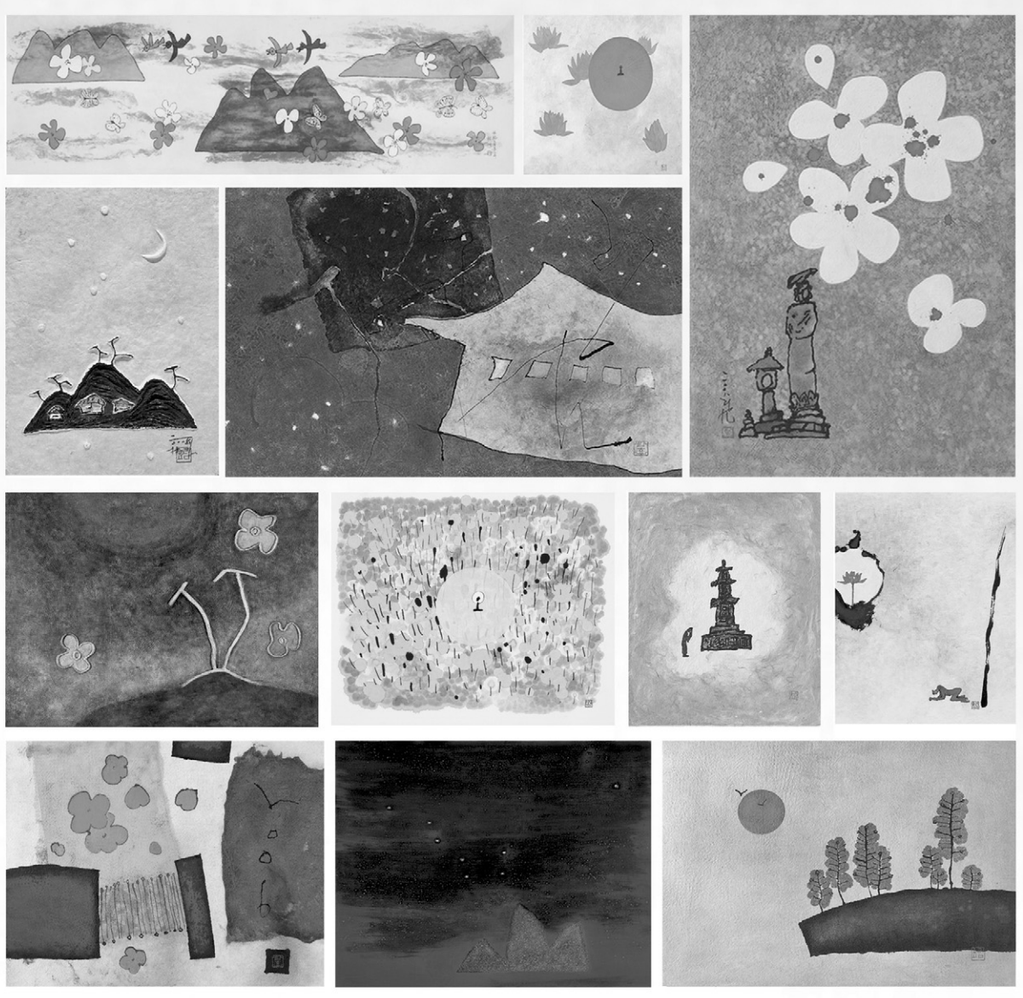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할 때, 이 진리(法)는 ‘진리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번역해도 좋을 듯하다. 거기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다는 말인가. ‘누가’가 정말 중요한가?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의 내용이 옳으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 말하는 자가 박사인지 아닌지, 교수인지, 아닌지, 제도권인지 아닌지 등 이런 세속적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적어도 이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는 권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무엇이든, 그 권력을 방패로 삼게 된다. 무서운 일이 아닌가. 참으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면, 거듭 거듭 경계하고, 또 성찰할 일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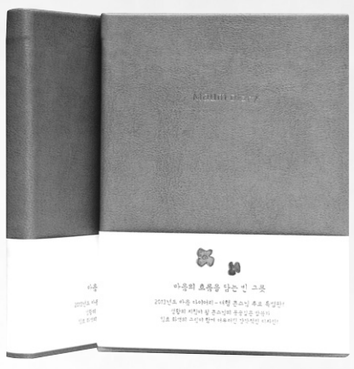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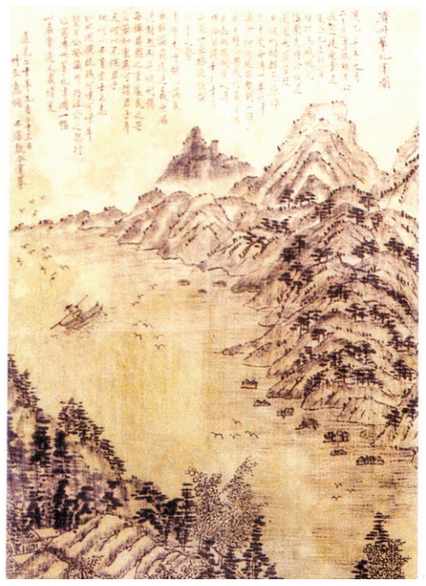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 ·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하늘은 어찌 군자를…' 초의 탄식

추사가 동지부사에 임명된 것은 1840년 6월이다. 옹방강이나 완원으로 인해 맺어졌던 옛 벗들과 즐거운 해후를 기대했던 추사, 이런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동지부사로 임명된 후, 7월 김홍근의 탄핵으로 이미 돌아가신 추사의 부친 김노경의 벼슬이 모두 삭탈되는 참화를 입었던 것. 풍전등화처럼 어수선했던 추사의 신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간파했던 그는 8월초, 향리 예산으로 몸을 피했지만 8월20일 한양으로 끌려 와 추국(推鞫)을 당하고 만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추사를 도운 이는 조인영이다. 우의정이었던 그는 추사의 무고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추사의 목숨을 구했지만 제주 대정리로 위리안치 되는 횡액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해 9월 2일, 유배 길에 오른 추사, 그가 일지암에 도착한 것은 9월 20일 저녁 무렵이었다. 초췌하고 참담한 몰골로 일지암을 찾았던 그를 따뜻하게 맞았던 초의, 작디작은 모옥(茅屋), 일지암에서 산차(山茶)를 앞에 두고 펼쳤던 이들의 충심어린 담론(談論)은 필부(匹夫)의 망언(妄言)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이튿날 완도의 이진나루에서 추사와 전별할 때 초의는 성심어린 기원을 담아 〈제주화북진도〉를 그린 것으로, 초의의 상상에서 나온 작품이다. 1840년 9월23일에 그린 〈제주화북진도〉는 분명 모진 풍랑을 헤치고 가야하는 추사의 무사안녕을 간절히 기원한 초의의 염원이 담긴 작품이다. 이 그림의 화제(畵題)에는 이들의 절절한 우정이외에도 추사의 장부다운 기개와 충심이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40년 9월 20일 막 해가 저문 후, 추사공이 일지암의 내 처소에 들러 머무르셨다. 공은 9월 2일



유배길에 오른 추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초의가 그린 '제주화북진도'

유배길에 일지암 들러 초의와 담론
초의 〈제주화북진도〉그리며 안녕 빌어

한성을 떠나 늦게 해남에 도착하셨는데, 앞서서 공은 영어(囹圄)의 몸으로, 죄 없이 태장을 맞아 몸에 참혹한 형을 입어 안색이 초췌하였다. 이런 중에 '제주 화북진에 정배한다' 는 명을 받아, 길을 나선 틈에 잠깐 일지암에 도착한 것이다. 평시에 공은 나와 더불어 신의가 중후하여 서로 사모하고 경애하는 도리를 잊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나는 길에 머물게 되니, 불행 중에 다행한 일이다. 산차(山茶)를 들며 밤이 새도록 세상 돌아가는 형세와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혈맥론〉을 담론함에 앞뒤로 모든 뜻을 통달하여 빠짐없이 금방금방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몸에 형벌의 상처를 입었으나 매번 임금 은혜의 지중함을 칭송하고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인 양, 중히 여기니 참으로 군자라고 할 만하다. 하늘은 어찌하여 군자를 보호하지 않고, 땅은 어찌하여 크나큰 선비의 뜻을 길러주지 않아, 이처럼 곤경에 떨어지게 하여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가. 탄식하고 또 탄식할만한 일이로다. 이튿날 공은 적소로 떠남에 공의 원망스러운 귀양살이에 눈물 흘리며, 비로소 〈제주화북진도〉 한 폭을 그려 나의 충정을 표하는 바이다.(道光二十年九月二十日薄暮 秋史公投泊一枝庵貧道處 公九月初二日 離於漢城 晩到海南 先時公被逮囹圄 無罪笞杖 身被刑酷 顔色憔悴 然中受命濟州華北津謫所 仰仰延路暫到一枝庵 平時 公與我信義重厚 不忘相思相愛之道 橫路留得 幸於幸耳 山茶一盃 終夜談論俗塵之勢 達磨大師觀心論及血脈論 前後通儀 無漏速對 然而身被刑傷 每稱君恩之重 處民之苦 自苦如重 眞可謂君子耳 天何以不保君子 地何以不育宏士之志 如此困橫脫機 可歎可歎耳 翌日公發謫所 乃泣公之怨行 始寫濟州華北津圖一幅 以表貧道之衷情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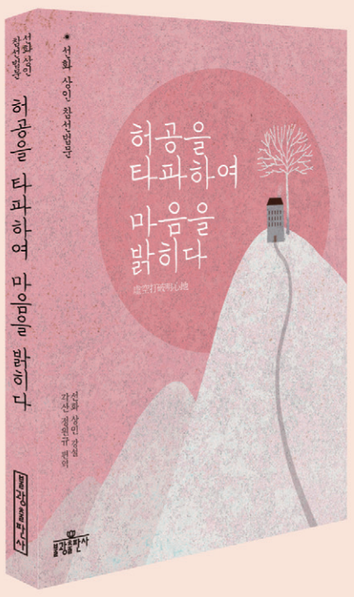


서로 사모하고 아끼는 도리를 잊지 않았던 초의와 추사. 이들의 우정은 간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중국 선종 오가의 법을 이은 허운 대사의 법제자, 중국 위앙종(潙仰宗)의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上人)의 활발발한 해설

◉ 선화 상인 참선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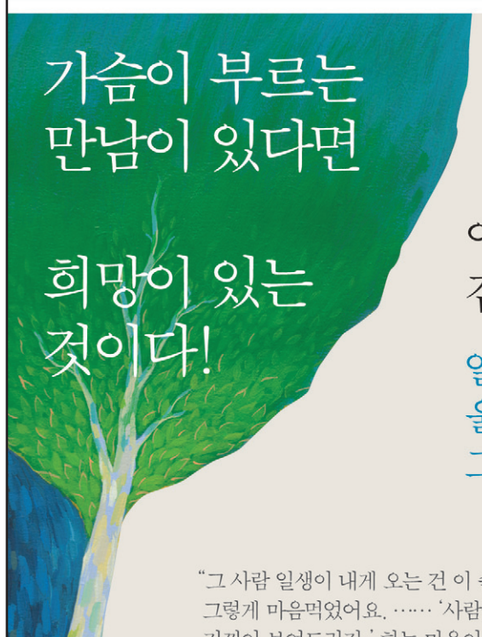


• 왜 참선을 해야만 하는가?
•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하는가?
• 무엇이 참선의 요결인가?
• 참선 수행에서 만나는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228쪽 | 값 9,000원



선화(宣化) 상인(1918~1995) : 법명은 안자(安慈), 자는 도륜(度輪)으로 중국 위앙종(潙仰宗) 제9대 조사이다. 중국 길림성 쌍성현에서 태어나 19세에 상지(常智) 대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1949년 홍콩으로 건너가 여러 사찰을 전법하였다. 1956년 운거산에서 허운(虛雲)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아 중국 위앙종의 제9대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법호를 받았다.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불교학당을 설립하여 불법을 전했다. 1974년 캘리포니아주에 만불성성(萬佛聖城)을 건립한 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다. 상인은 평생토록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참선과 염불 예참, 경전 연구, 계율 수지, 대중화합을 특히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 · 하) 등이 소개되었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 352쪽 | 15,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열여덟 멘토의
울림 깊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법정 스님 가르침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춰 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소외된 이들 없기를…" 달리고 또 달리고

진오 스님('(사)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구미 대둔사 주지)

삭발에 법의를 입고 살겠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좇아 해탈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출가자의 본분사가 그렇게 한 줄짜리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지장보살이 텅 빈 지옥을 보기 전까지 해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을 보면 이 사바가 간단치 않음이다. 출가자도 사바 속에 있음이라 그 본분 또한 간단치 않음이다. 지장보살이 텅 빈 지옥을 기다린다면, 이 땅에서 소외된 이들이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 '달리는 스님' 으로 알려져 있는 마라토너 진오 스님이다.

"스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발목이 예전만 못한데, 달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2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하얀 입김 뒤에서 스님이 기자의 합장을 받는다. 구미 대둔사 주지인 스님은 '(사)꿈을 이루는 사람들' 의 대표와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두 단체는 국제결혼, 취업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해결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스님의 직함이 말해주듯이 스님이 이 땅에서 맡은 소임은 소외된 이주민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그 소임을 '달리기(마라톤)' 를 통해 이뤄내고 있다. 스님은 재원 마련과 복지 사업 홍보를 위해 달린다. 스님이 1km를 달릴 때마다 후원자들은 1백원의 후원금을 기부한다. 스님은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1,600km를 달렸다. 스님이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걸고 달리기 시작한 것은 2011년 4월부터이며,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약 8천만원이다. 그리고 그가 달리는 마라톤은 108km, 200km, 308km, 500km 등 초장거리 울트라마라톤이다.

"스님 재작년 기억나시죠? 108km 울트라마라톤."

"그럼요. 기억나죠."

스님은 일주문 쪽을 바라보며 당시를 회상했다. 2011년 4월 24일. 16시간 45분을 달려 108km를 완주하고 막 도착한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급한 숨을 몰아쉬며 베트남 이주노동자토안(당시 27세)을 찾았다. 토안도 스님이 도착하기 3시간 전부터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토안을 본 스님은 말없이 토안을 끌어안았다.

토안은 2007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생활 3년째인 2010년 7월 교통사고로 두개골 절반을 드러내야만 했다.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은 수술비로 다 들어갔다. 토안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소식을 들은 진오 스님은 200여 명의 동참자를 모아 108km를 완주하면 1인당 1만800원(100원/1km)을 기부 받아 토안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돕기로 한 것이다. 스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100km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마톤을 시작한다.

진오 스님이 처음 누군가를 돕겠다는, '봉사' 의 발원을 한 것은 26년 전이다. 경북의 한 공군부대에서 군법사로 있었던 스님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스님은 주위로부터 작은 위로들을 경험한다. 그 작은 위로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되고 그 위로 희망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스님은 전역 후 '불교간병인회' 와 '자비의 전화' 를 통해 아픈 군인들을 보살폈고, 2002년에는 사고로 눈을 잃었을 때 받았던 보상금으로 구미의 한 사찰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 '보현의 집' 을 만들었다.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스님은 현재 '꿈을 이루는 사람들' 과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를 통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탈북민 등 한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 의료지원, 통번역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고 있다.

"스님, 그런데 왜 하필 마라톤인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요."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후원이라는 건 먼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후원을 호소하는 것보다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가 잘하는 게 마라톤이라 마라톤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두 다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죠."

스님의 마라톤은 2001년 처음 10km 대회에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1998년 말부터 구미에 있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 소임을 보게 되는데, 2000년 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로부터 마라톤을 권유 받았고, 시작하게 됐다. 하프코스와 풀코스를 경험하면서 스님은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스님의 풀코스 최고 기록은 2003년 동아마라톤에서 세운 3시간 6분대다. 스님은 지금까지 30회 정도 풀코스를 뛰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한다. 2010년부터는 철인3종 경기를 중단하고 100km가 넘는 울트라마라톤을 시작한다. 2011년 토안을 돕기 위해 뛰었던 108km를 시작으로 2011년 5월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모 지원을 위해 200km를 뛰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다문화 모자가족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한반도 횡단 308km를 뛰었다. 2012년 1월에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주기 위해 500km을 뛰었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4대강 1000km를 뛰었다.

'후원' 홍보 말대신 마라톤으로
1km 마다 100원씩 모금
시력잃고 '위로' 소중함 알게돼
외국인도 우리사회의 분명한 일원
내달 26일 독일서 700km 달릴 예정
마라톤은 '나' 를 바라보는 수행

"그런데 왜 외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와 창구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해외에서 이주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이주민들은 그런 기회나 창구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들이 손수 그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도 어렵구요.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멸시죠. 그들은 분명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행해진다면 그 영향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미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모든 범죄는 대부분 상황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



진오 스님은 지난해 11. 11~2. 2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4대강 1000km를 뛰었다.



진오 스님은 … 1980년 당시 열아홉 살 고3 때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했다. 1981년 통도사에서 사미계, 1985년 부산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와 사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차장과 포교원 포교실 포교사를 지냈으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을 지냈다. 현재 구미 대둔사 주지와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황들이 범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로 마음먹은 그들이라면 그들의 업은 선이든 악이든 모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들은 모두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은 누군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불제자인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스님은 부처님도 출가 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다며,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 일은 아무래도 출가자인 본인의 숙제 같은 것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일하고 월급 못 받는 노동자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가운데 남편의 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불교의 인간 평등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평생을 길 위에 계셨던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 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또 달리시나요?"

"3월 25일에 독일로 갑니다. 26일부터 4월 9일까지 700km를 달릴 예정입니다."

스님은 파독광산근로자 50주년 및 한 · 독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한국 내 다문화모자원 및 이주노동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독일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1km 뛸 때마다 0.1유로의 후원금을 받는다. 우리 돈 146원이다. 2011년 '백 원의 기적'을 이뤘던 스님은 이제 '0.1유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달린다. 그리고 스님은 10월에 일본에서 1,000km에 도전할 계획이다.

"마라톤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수행이죠. 출가자의 본분인 공부와 해탈은 선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가슴 속에도 늘 출가발심의 원력이 들꽃처럼 피고지고 합니다. 사바중생의 지나칠 수 없는 업에 붙들려 본분사를 잊고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돌아보면 '본분사' 그것이 한편으로 그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앞으로 다문화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주택마련과 2세 아이들을 위한 인재양성 기금 마련, 북한이탈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스님은 그 모든 일들을 불사(佛事)라고 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찰에 가서 기와불사 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일입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꿈을이루는사람들 후원계좌/ 농협 741092-51-080517 전화 054-458-0755



2011년 진오 스님은 사고로 두개골 절반을 드러낸 이주노동자 토안을 돕기위해 108km 울트라 마라톤을 시작했다. 사진은 당시 출발 모습.

전법일기

절집 49재비, 너무 비싸다

절집 49재와 천주교 49일 연미사

지난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善終)한 지 49일째 되는 날 경기도 용인 천주교 묘원 성직자 묘역에서는 신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 미사가 치러졌다. 이 일을 두고 세간에서는 49재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한동안 화제에 올랐었다.

천주교에서는 장례미사를 올리고 나서 '연(煉)미사' 또는 '위령(慰靈)미사'라는 걸 올리는데, 유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적잖은 천주교인들이 49일 되는 날 연미사를 봉헌함으로써 '49재'를 지내고 있는데도 한국 가톨릭 교단에서는 49재를 금지하지도, 공인하지도 않는다. 해당국가의 전통을 가톨릭으로 수용하는 현지화전략 때문일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연미사에 소요되는 경비였다. 어느 수녀에게 물어보았더니 일반적으로 장례미사는 5만 원 이상, 연미사는 2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액수가 일반적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절집의 49재와 천주교의 49일 연미사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천주교 미사 때는 망자를 위한 의례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지만 절집은 불전의식(佛前儀式)부터 시식(施食)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또 성당에서는 음식을 봉헌하지 않지만 절집에서는 밥 · 떡 · 과일 · 나물 등 갖가지 공양물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생각한다. 천주교의 49재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불교는 5백만 원, 1천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것. 그러니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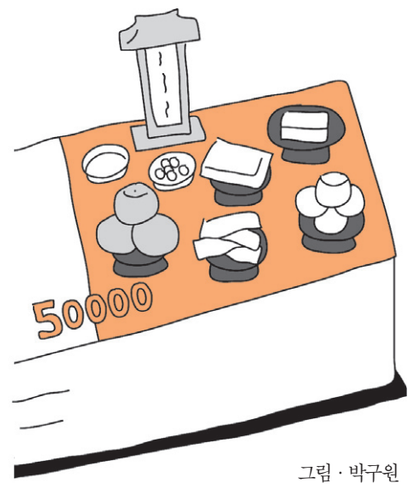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49재 사찰운영 방편 아니라
슬픈 신도들 위로하는 자리여야
참석한 비불자에겐 불심 심어야

인생의 통과의례인 관혼상제를 보면 불교의 현실이 보인다. 문제는 이 가운데 불교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49재를 포함, 상례뿐이라는 데 있다. 절집에서 성인식은 생소한 용어이고, 결혼식은 민간 사업자와 타종교에서 주도하고 있다. 제례는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치르고, 불자들조차 대부분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다. 통과의례만 보더라도 불교가 기독교에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절에서는 49재가 들어오면 살림에 숨통이 틘다. 팍팍하던 절 살림에 윤기가 돈다. 심지어 재를 절 운영의 중심에 두어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절 살림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고가(高價)를 유지하게 될 경우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신심 깊은 불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49재를 위해 5백만 원, 1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49재를 지내지 않는 불자가 점차 늘어나고, 설사 지낸다 하더라도 막재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성선원의 49재비는 2백만 원이다. 일곱 번째를 지내는 동안 매번 과일 일곱 가지와 나물 · 부침개를 각각 5가지씩 올린다. 가장 좋은 과일을 쓰고 넉넉히 올리는 편이어서 실제로 그 액수로는 공양물에 대한 비용이다. 내가 이렇게 재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글에서 밝힌 것처럼 사찰을 회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49재가 사찰 운영의 방편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신도들을 위로하는 자리여야 하고, 재에 참석한 비불자에게 불법을 심어주는 결연의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49재비는 1백만 원 이하로 낮아져야 하고 공양물과 의식 전반에 걸친 종단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타종교의 적극적 도전에 대해 교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9재와 상례에서조차 타종교에 밀리게 되면 불교가 이 땅에서 부흥하는 것은 요원하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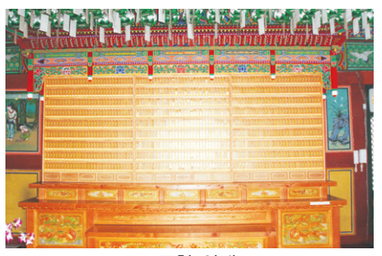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몽골 불교문헌, 복원 · 보존 '청신호'

ACIP, MAOS 올해부터 몽골 프로젝트 재개
"2015년 몽골 불교문헌의 전체 색인 성과 낼 것"

20세기 말 학자들의 손길을 거치며, 학술 · 종교적 가치로 세간의 이목을 잡았던 몽골 소재 불교문헌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라시아넷(eurasianet.org)에 따르면 '아시아 고전 입력 프로젝트(Asian Classic Input Project, 이하 ACIP)' 가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연구소(Global Institute For Tomorrow, 이하 GIFT)' 의 지원을 받아 향후 1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몽골 프로젝트' 를 5년 만에 재개한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ACIP는 몽골과학아카데미(Mongolia Academy of Sciences, 이하 MAOS)와 함께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몽골 소재 불교문헌에 대한 복원과 보존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불교장경을 비롯한 몽골의 불교문헌 대부분 불교사원이 아닌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몽골 국립도서관' 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의 공동 연구에서 확인된 것만도 1백만여 점에 이른다.

이중에는 현존하는 고대 경전 가운데 희귀본으로 분류, 주목되고 있는 캉유르(Kangyur, 붓다 법문)과 텡유르(Tengyur, 주석 · 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대 경전은 티베트 원전 또는 몽골 번역본 형태로 남아 있다. 티베트 고대 불교문헌 대부분 1950년 중국의 라싸 침공 이후 유실 · 파손된 상황에 비춰볼 때, 그 가치는 한껏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몽골 국립도서관은 2세기경 자작나무 껍질에 기록된 나가르주나(Nagarjuna, 龍樹)의 산스크리트어 문헌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00구절로 기록된 이 문헌은 세계 유일본이다.

"ACIP와 MAOS가 지난 9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몽골 소재 불교문헌의 학술 · 종교적 가치를 확인 ·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 유라시아넷은 몽골 국립도서관 치라자브 쿠아이다브(Chilaajav Khaidav) 관장의 말을 인용, "ACIP와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던 2008년 당시 관련 학계 안팎에서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며 "이번에 재계될 '몽골 프로젝트' 가 몽골 소재 불교문헌을 분류 · 분석하는 것 외에도 복원 · 보존 등의 분야로도 한 걸음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몽골 국립도서관 직원이 고대 경전 희귀본과 불교문헌을 보여주고 있다(왼쪽). 도서관은 2세기경 자작나무 껍질에 기록된 나가르주나의 산스크리트어 문헌도 소장하고 있다(오른쪽).

쿠아이다브 관장은 인터뷰에서 "몽골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닌 세계의 보물"이라며 "이들 불교문헌은 티베트와 몽골을 떠나 인류 역사의 한 조각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라시아넷은 이번 프로젝트의 몽골 측 담당자인 니아모치르 곤총(Nyamochir Gonchog) 박사의 말을 인용,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 대부분 1920년대 몽골 공산정권의 불교탄압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았지만, 당대 불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현존할 수 있었다"며 불교문헌과 얽힌 이야기도 전했다.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은 대부분 가장자리에 불에 탄 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3만여 명의 스님이 '강제 환속' 되고, 전체 몽골사원의 90%로 달하는 700여 개의 사원이 파괴되었던 당대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전한 곤총 박사는 "그러나 당시 불교지도자 복드 칸(Bogd Khan)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불교문헌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때론 파괴된 사원 주변에서 불교문헌을 찾아내어 보관해온 것이 지금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자 개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오던 불교문헌은 1960년대 관련 연구자들에게 기증돼 세간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MAOS 설립과 몽골 · 티베트학(Mongolian and Tibetan Studies) 신설을 기점으로 복드 칸 스님의 소장본 문헌이 일체 기증되는 한편 이에 고무된 불자들의 소장 문헌도 이곳 국립도서관에 모일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ACIP 측 담당자인 나왕 갸쵸(Ngawang Gyatso) 스님은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매우 느리고 조직적인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헌의 외형과 그 재질은 물론 기록된 문헌의 출처도 밝히는 한편 알파벳으로 음역하고 전산화 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소개했다.

유라시아넷에 따르면, ACIP과 MAOS는 2015년 말까지 몽골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 전체의 목록을 색인 ·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8 · 끝〉



"붓다의 중생설법은 사회개혁 위한 것"

암베드카르 불교해석의 특징

암베드카르는 불자가 된 불가촉천민들이 불교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을 저술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출판한다. 책에서 그는 자신의 불교관을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 또한 그는 '불가촉천민의 구원' 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개종을 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불교의 교리는 삭제하거나 부정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는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四聖諦)를 부정했다. 그는 생과 사가 모두 고통이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며 이 교리가 불교를 염세적인 종교로 보이게 한다고 비난했다. 사성제 때문에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이것이 후세의 승려들에 의해 추가된 개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는 업이론 또한 불교를 잘 모르거나 불교를 힌두교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사람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가 다음 생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업의 결과는 현생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생의 업으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면 모든 것이 과거의 업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므로 현재의 인간의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암베드카르 입장에서는 불가촉천민들의 현재 고통이 과거 자신들의 악행 탓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업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생의 악행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 또한 내생에 어떤 과보도 받지 않게 된다. 업이론을 부정하기 보다는 전생의 악행으로 인해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상위카스트들이 그들을 핍박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님을 인지시키고 더이상 악행을 짓지 않도록 계도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암베드카르는 종교가 개인의 정신적 구원의 도구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름을 확립하는 사회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교관은 그의 불교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암베드카르의 불교관 독특
업이론 부정…대립이 苦의 원인
붓다 출가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

부처님 또한 사회개혁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저서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며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독특한 묘사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이 출가 전 싯다르타 태자였을 때 이웃 부족인 콜리야족과 로히니 강물의 사용을 두고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은 콜리야족과의 전쟁을 결의했고 싯다르타 태자는 그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게 되자 그는 해결책으로 자신이 출가를 하겠다며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출가를 한 싯다르타에게 샤카족의 사신들이 찾아와 콜리야족과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전하며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청했다. 그러나 그를 출가하게 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국가나 개인 사이에 수많은 대립들이 존재하며 이 대립이 번뇌와 고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싯다르타는 그 사회적 대립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암베드카르가 말한 부처님의 출가동기이다.


불가촉천민 출신인 마야와티 前 쿠마리 우타르 프라데시 주 장관이 암베드카르상에 참배하고 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출가동기인 사문유관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학자들 역시 부정하는 부분이므로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책에서 사문유관을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부처님의 출가를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암베드카르는 부처님의 출가에 사회 ·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게 있어 부처님은 정치 · 사회문제에 관심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전 생애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쳤듯이 부처님도 사회적 부당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개혁가이기를 그는 바랐을 것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사회개혁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책에서 그는 '이 세상에 수많은 불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붓다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력행자가 되어도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중생구제를 위해 설법을 결심했다는 경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부처님의 첫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 역시 부처님을 시대의 모든 지적 훈련을 거친 '사회 개혁자' 로 받아들였다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한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암베드카르의 주장이다.

또한 사회적 대립을 고의 원인으로 보는 암베드카르의 견해 또한 기존의 불교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고는 욕망 때문에 생기고 욕망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이 고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암베드카르와 불가촉천민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원인은 카스트로 인한 계층대립이었으므로 그 부분을 부각했겠지만 세상의 모든 분쟁과 대립이 사라진다 해도 생로병사가 지속되는 한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간과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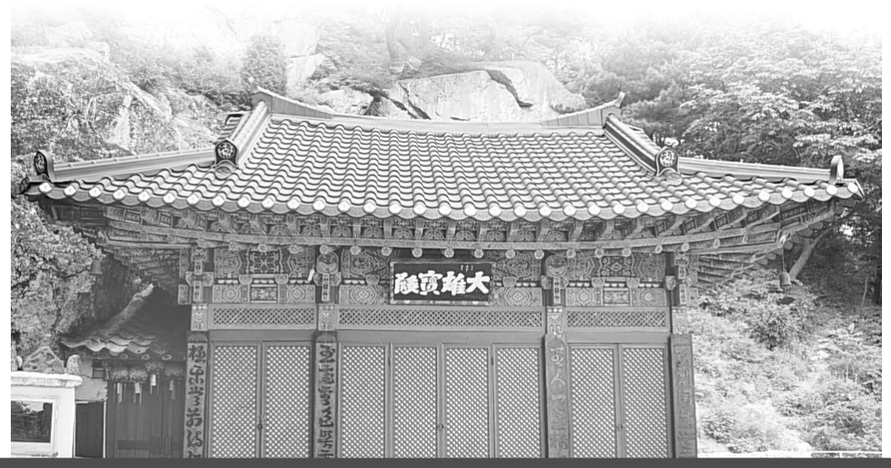
그의 독특한 불교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경전에 나오는 신화적인 내용을 가급적 배제하며 현대에 맞는 합리적인 불교교재를 집필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즐거운 병영생활 마음 수련 지침서!

2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동행』을 보냅시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족사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농협 053-02-109450(예금주: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 지면 시드나니,
떵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게 ·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 256쪽 | 13,000원 | 사륙판

공부하다 죽어라

혜암스님의 벼락같은 화두 정찬주 지음

성철스님 이야기 『자기를 속이지 말라』 법정스님 이야기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에 이어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암자를 따라가며 써내려간 이야기가 담긴 또 하나의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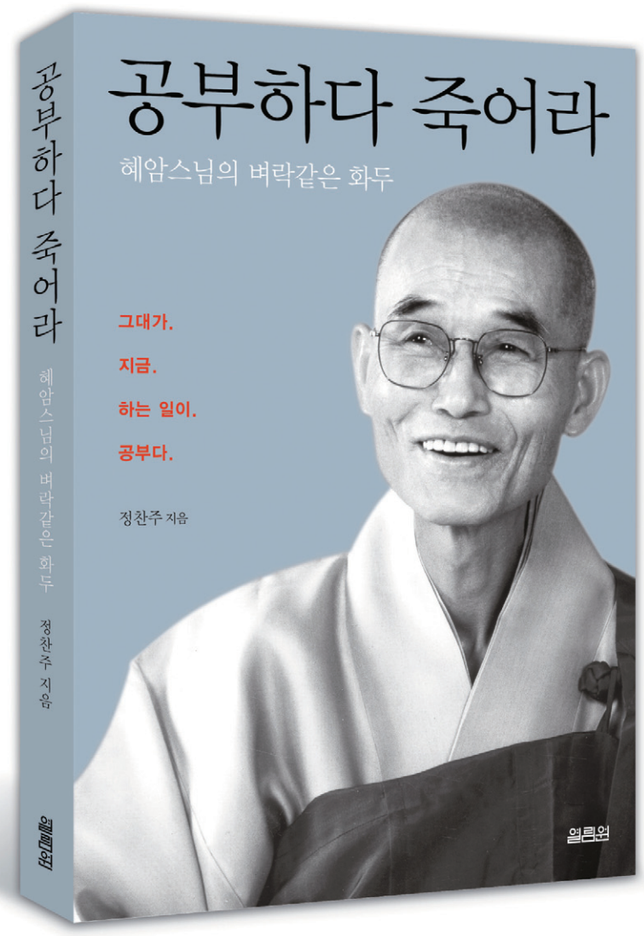
학생은 무아를 느낄 때까지 즐겁게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조직 속에서 무아를 경험할 만큼 나를 비워야 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역시 나를 버리는 무아 상태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

늙은 쥐가 쌀궤를 한 구멍만 뚫듯 해야 합니다. 미련한 쥐나 어린 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쌀궤를 뚫을 적에 이짝에 뚫었다 저짝에 뚫었다 하는데 늙은 쥐는 쌀궤를 많이 뚫어봤기 때문에 쌀이 나오든 말든 죽어라고 한 구멍만 뚫습니다. 화두 공부도 늙은 쥐가 쌀궤 뚫듯이 해야 도가 깨달아집니다. —혜암스님 어록 중에서

혜암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효봉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릿발같이 독려하던 스님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뿐이었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부터 방바닥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평생 동안 지켰다.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성철스님 이후에는 종단개혁에 앞장섰다. 해인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으며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신간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다.



www.Yolimwon.com 구입문의 (02)3144-3700 열림원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몰려다니지 마라"

내 삶을 송두리째 깨우는 도법 스님의 죽비소리

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지금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위로를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에어컨 처방과 비슷해서 순간적으로 편하고 좋을 수 있으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착각과 환상에 중독되게 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랑하고 몰려다닐 것이 아닙니다.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 겁 많음, 게으름, 나약함, 이해타산, 무력감 나아가 누군가가 나서서 내 문제를 잘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의 핑계가 보입니다. 그것을 혁명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큰 용기를 내야, 비로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_서문 중에서

문의 070-7606-7430



지금 당장, | 도법 지음 | 다산초당 | 13,000원

치매 어르신 그림 전시 '눈길'

보현데이케어센터, 3월 30일까지

치매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위한 전문노인복지시설 보현데이케어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의 그림을 전시한다.

3월 30일까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갤러리카페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과 서예, 콜라주 등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작품마다 친절한 설명글이 덧붙여 있어 가족이 함께 둘러보기 좋게끔 구성됐다.


갤러리카페 전시 전경

치매 어르신들의 그림을 살펴보면 과거의 직업이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나기도 한다. 또한 다채로운 색감과 상상력을 발휘한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실제로 다양한 미술활동은 치매로 인해 저하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보현데이케어센터 센터장 한산 스님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계기로 치매 어르신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시를 기획한 의도를 전했다. 관람객 김미영 씨는 "치매 어르신 그림이 마치 어린이의 동심을 담은 그림처럼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라 놀랐다. 치매 어르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젊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02)394-5511

정혜숙 기자

불교 '名品' 여기서 감상하세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10주년 기념전

개관 10주년을 맞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관장 유상옥)이 5월 31일까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 대표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名品' 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初雕本大般若波羅蜜多經)과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이 공개된다.


국보 제 284호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 등 소장 유물 전시… 5월 31일까지

국보 제 284호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 은 고려 현종 당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의 일부다.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중 권 제 162, 170, 463으로 모두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 형태다.

보물 제 1412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이다.

이 경전은 실차난타 번역의 화엄경 39품 가운데 제 12현수품의 후반부 내용을 감색의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것이다. 시작부분에는 발원자, 목적, 제작시기를 밝힌 발원문과 정교하게 묘사된 변상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밖에도 고려 시대 도성을 화려하게 꾸몄던 청자 기와, 상류층 여성들의 애용품이던 화각 경대, 화려한 십장생 무늬가 새겨진 아기 배자, 백제 시대 여성용 변기 등의 유물이 전시된다.

특히 화각경대는 종잇장처럼 얇고 투명하게 저민 쇠뿔의 안쪽에 채색을 하여 만든 경대로 화각경대의 윗면과 네 측면은 홍색 바탕의 화각으로 장식하고 부처님, 코끼리, 용, 봉황 등을 오방색으로 새겨 넣었다.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부관장은 "이번 전시는 국내 유일의 화장전문박물관으로 성장해온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화장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화장박물관의 메카로 나가기 위한 다짐을 위해 마련한 전시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10주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02)547-9177

정혜숙 기자

불교 용품·성물도 이제는 디자인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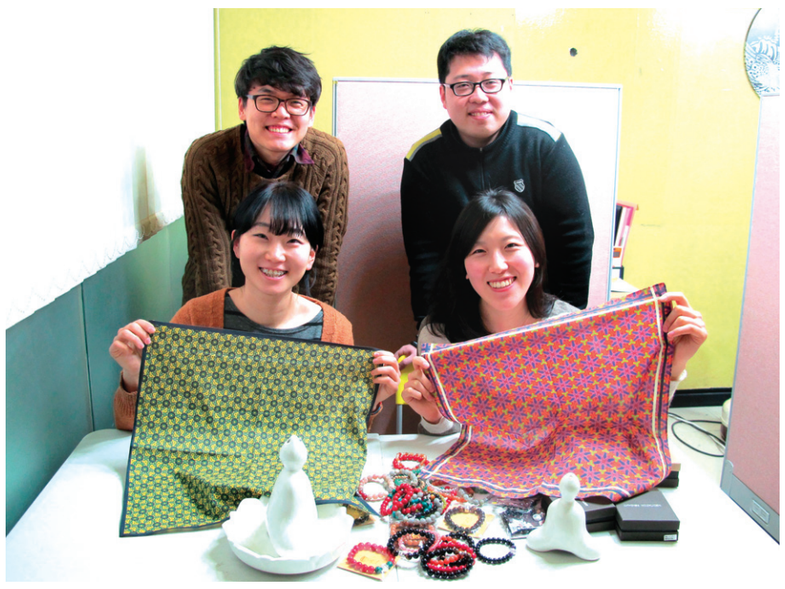
손수건부터 문구류까지 다양한 디자인 '눈길'

불교디자인 업체 (주)마인드디자인(대표 김민지)은 최근 단청 손수건을 출시했다. 거북 휘 등의 단청 문양에 젊은층을 겨냥한 화사한 컬러로 프린트된 손수건은 여느 사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용품으로 시선을 끌었다. 불교 용품이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만' 자 '옴' 자 등 천편일률적 문양에서 벗어나 젊은층을 겨냥한 생활용품들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부다아티스트(대표 정기란)는 불교문화와 친근한 캐릭터를 문구 등 생활용품에 적용해 주목받고 있다.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처님, 달마대사, 지장보살, 사천왕 등을 불교적 의미를 담아 캐릭터화했다. 그리고 이를 스케치북과 엽서 봉투 등 문구류와 휴대전화고리, 뱃지 등 액세서리, 전자파 차단 스티커 등 10 종의 디자인에 적용했다. 이들 용품들은 통도사, 송광사, 운문사, 조계사 등 전국 유명 사찰 경내에 위치한 서점에 공급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표 정기란 씨는 "2012년 초에 창업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키고리 머그컵 책갈피 등 꾸준히 신용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51)751-4939

파파라챠는 불교 주얼리 전문 업체다. 연꽃과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파파라챠는 20년 동안 주얼리 업체를 운영해온 박소현 대표가 4년전부터 부처님 말씀을 담아 불교 관련 용품을 출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랫동안 예물상담을 하며 400여 신혼 부부를 분석한 적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 관련 디자인을 주문해 오는 고객은 많아도 불교적 내용을 반영한 예물 디자인을 의뢰하는 부부는 없더라"며 "불자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더 젊은 나이에 불교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용품, 영원한 상징으로 두고두고 보관하며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주얼리를 만들고자 불교예물을 출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다양한 디자인을 입힌 불교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단청손수건을 출시한 '마인드 디자인' 직원들이 상품을 선보이며 웃고 있다

부다아티스트-캐릭터 문구 '주목'
마인드디자인-단청 손수건 출시
파파라챠-결혼 예물로 불교 알리고파

이런 박 대표의 원력에 힘입어 파파라챠는 꾸준히 불교예물 매출이 신장하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모을만큼 주목받고 있다. (02)540 0372

2011년 창업한 (주)마인드디자인은 불자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기업이다. 마인드디자인의 사찰별 맞춤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지난해 2.5배 매출이 신장하며 꾸준히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마인드 디자인은 지난해 각 사찰의 로고가 새겨진 합장주를 주문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출시된 단청 손수건 역시 각 사찰의 특징을 디자인에 반영해 사찰별로 공급하고자 한다.

디자이너 배보람 씨는 "사찰별로 대량 주문을 받아 물건을 공급한다. 사찰 특색에 꼭 맞는 제품이다 보니 주지 스님과 신도 모두가 만족해 한다"고 전한다. (02)2231-2011

김용덕불교일러스트연구소 역시 최근 컵 시계 액자 등과 관련된 불교 용품을 출시하고 인터넷 쇼핑몰 붓다이미지(www.buddhaimage.kr)를 개설했다.


쥬얼리 업체 파파라챠의 버드옴세트.


김용덕불교일러스트연구소의 디자인 용품들.

소장 김용덕 씨는 "꾸준히 불교 일러스트 작업을 해오다가 이를 생활용품에 적용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쇼핑몰을 열게 되었다"며 "앞으로 의자 벽지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010)8768-9728

이밖에도 부산에서 문을 연 주얼리전문업체 나란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주얼리에 새겨넣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프로젝트 역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꾸준히 불교관련 용품을 제작해오고 있으며 최근 동자승 캐릭터를 개발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자 한마음선원이 자체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에코컵은 대행 스님의 법문이 새겨진 불교 디자인 용품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인간 욕망의 허망함 해골 만다라로 '승화'

대구 미술관 기획전 'DNA×연금술' 전 이중근 만다라 전시…2월 26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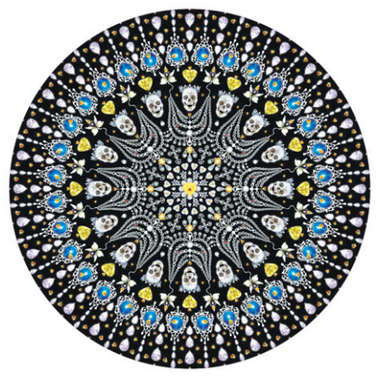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담은 이중근 작가의 메멘토모리(Memento mori) 등 6점의 만다라 작품이 대구 미술관 기획전 'DNA×연금술' 전에서 선보인다. 이중근 작가의 메멘토모리는 해골과 보석 등으로 만다라적 형상을 표현했다.

불교 신자이기도 한 작가는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만다라의 문양을 작품에 반영하며 욕망적 삶의 허망함을 표현해 냈다. 이씨는 "삶이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꿈과 같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의 '메멘토모리' 는 돈과 명예라는 허망한 꿈에 얽매여 사는 현대인들의 삶이 꿈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대구미술관 'DNA×연금술' 展은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으로 2월 26~ 6월 23일 열린다.

대구미술관 측은 "여러 명의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전통적 미술 장르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 예술과 일상을 넘나드는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이중근 작가 외에도 △김영석, 족두리에 대한 100가지 해석 △안필연, Momentum △이광호, Obsession Series △이헌정, Concrete Table With Ball △조병수, 설치전경 스케치 △최우람, Jet Hiatus △하지훈, JARI △한무창, Untitled 등이 전시된다. (053)790-3041

정혜숙 기자


이중근 作 '메멘토 모리'



국악, '조화'로 세상과 通했죠

불자 해금연주가 공경진 씨 첫 앨범 발매

"저는 첫 앨범을 내면서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앨범을 내게 됐고 앞으로 더 좋은 연주로 제가 받은 것을 세상에 회향하고자 합니다."

불자 해금 연주가 공경진 씨(국립국악원 정악단 해금단원)가 첫 앨범 '조화(調和)'를 낸다. 공 씨의 스승인 국악인 김호성 선생과의 추억을 담은 앨범에는 불교적 가사를 담은 '죽지사' 등 8곡이 담겨 있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인드라망처럼 연결돼 있는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전한다.

"저의 해금소리에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며 혼자서 외로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조화(調和)예요. 저의 해금은 단소 대금 장구 노래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또 세상의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제 음악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이런 조화에 대한 깨달음은 앨범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앨범 제작비로 92명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처음 앨범을 만들려고 할 때에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구좌당 1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고 앨범이 나오면 이를 CD로 돌려주기로 했죠. 페이스북과 지인들을 통해 홍보를 했고 92명의 후원자가 저를 지지해 줬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란 공 씨는 현재 정토회 불교대를 졸업하고 경전반 입학을 앞두며 꾸준히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포교사로 교도소에서 교정교화 활동을 할 만큼 세상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의 도움을 얻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무료로 국악을 가르쳐 주는 재능 보시도 하고 있죠. 앞으로 작은 음악회를 통해 제 음악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 앨범인 '조화'를 발매한 국악인 공경진 씨

92명 후원자 보시로 앨범 제작
3월 13일 국립국악원서 공연

공 씨는 앨범 발매와 더불어 3월 13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해금독주회를 갖는다. '국립국악원 젊은국악 공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에서 공 씨는 '섬들은 바다에서 서로 만난다' '오즈의 마법사' 등을 콘셉으로 국악공연의 새로운 장을 펼칠 예정이다. (010)4729-3824 **정혜숙 기자**

커피도 마시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요

한국불교대 大관음사 카페 '참' 개장… 복합 문화 공간

한국불교대 大관음사가 2월 27일 카페 'Coffee charm'을 열었다. 대구 영대병원 네거리에 위치한 카페 참은 45평 규모로 북까페와 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다.

카페의 수익금은 한국불교대 대관음사 산하 국제구호개발 NGO B·U·D와 연계해 빈곤국가 학교 설립 및 워터 펌프 설치, 국내 취약 계층 지원 등 국내외 구호 사업에 사용된다. 'Coffee charm'은 추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Coffee charm 전경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안상(眼象)→영기창 ㊦

'영기창'은 외부 향한 무한 공간 상징

안상(眼象)이라는 용어는 잘못 이름 지어진 아상(牙床)에서 비롯된 웃지 못 할 용어임을 앞서 알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학자들이 책상(冊床)이나 평상(平床), 그리고 큰 상이라 할 불상 대좌인 목조 불탁(佛卓)이나 불단(佛壇) 같은 조형에서 무엇인가 찾으려 했음은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불상이든 석탑이든 석등이든 밑 부분 기단부에 반드시 상 같은 구조에 영기창이 있기 마련이므로 어떤 장르든 가장 중요한 조형임에 틀림없으나, 안상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용어를 씀으로써 안상은 물론 불상과 석탑과 석등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석조물부터 살펴보자. 고려시대 거돈사(居頓寺) 원공국사(圓空國師) 부도(浮圖)(1025년)의 기단부의 하대석과 중대석을 보면, 하대석에는 영기창만 있고 아무런 도상이 없지만, 중대석은 영기창 안에는 신장상(神將像)이 조각되어 있다.(그림①)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두가 그저 막힌 공간에 신장상을 조각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한한 공간이 열려 있는 저편에서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영기창을 통하여 신장상이 나타나는 광경이다. 즉 현신하는 모습으로 신장상의 영기화생이다. 탑신석에 영기창을 깊이 파내어 불상을 높게 조각한 고려시대 부도가 불국사에 있다. 이것 역시 무한한 공간을 나타내려고 깊이 파낸 것이며 그 영기창을 통


그림① 거돈사 원공국사 부도


그림② 불국사 고려시대 부도


그림③ 쌍봉사 철감선사탑

안상은 영기창이며 생명력 가득
영기문 꽃불단에서 여래와 보살 화생

하여 여래가 영기화생하는 광경이다.(그림②) 화생이란 현신(現身)을 의미한다. 그 막힌 공간이 실은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의 그 희열은 잊을 수 없다.

온갖 성스러운 존재의 드러남 표현

아마도 영기창이 가장 많은 부도가 쌍봉사(雙峰寺) 철감선사탑(澈鑒禪師塔)일 것이다.(그림③) 浮圖란 붓다(Buddha)를 음역한 것으로 한자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승려의 탑을 여래의 탑과 구별하기 위하여 예부터 쓰여진 용어이다. 요즈음은 승탑(僧塔)으로 학계에서 널리 쓰여 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승탑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 탑은 기단부 맨 밑의 영기문에서 승탑이 영기화생하는 장려한 광경이다. 하대석과 중대석에 모두 영기창이 있으며 온갖 영수(靈獸)와 영조(靈鳥)가 나타나고 있다. 그저 정지된 조각이 아니다. 다시 탑신 밑에 기단부가 있으며 각 면의 영기창에서 가릉빙가가 날아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탑신부의 직사각형도 일종의 영기창으로 비천이 날아오르고 사천왕상이 나타나 승탑의 사리를 수호하고 있다. 영기창 넘어로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인식하고 영기창을 통하여 온갖 성스러운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저 벽면에 조각하여 정지하여 있던 성스러운 존재들이 갑자기 살아나 전체가 역동적인 조형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환성사(環城寺) 대웅전 불단의 일부를 보면, 맨 밑에 영기창을 넘어 용들이 나오려하며, 용의 입에서 영기문이 또한 나오고 있다. 용의 입에서 영기문이 나오는 것은 만병에서 영기문이 나오는 것과 같다. 맨 밑 부분에 용들이 많은 것은 맨 밑 부분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그 위의 교묘하게 제3영기싹으로 구성한 영기창에서도 각각 보주나무(사람들은 국화라 부르지만 차차 설명하게 될 것이다)와 연꽃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역시 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영기꽃들이다.(그림④) 바로 이러한 생명력 가득 찬 불단에서 마침내 여래와 보살이 화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단은 단지 현실의 꽃으로 장엄한 것이 아니라, 용과 영기꽃이 영기창을 통하여 나타나서 여래와 보살을 화생시키는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림④ 한성사 대웅전 불단


그림⑤ 무위사 벽화의 본존 대좌

그려보고 비교하면 확연히 보여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계시면 무위사(無爲寺)벽화의 본존의 대좌를 보기로 하자.(그림⑤) 대좌의 중대석을 보면 큰 영기창이 뚫려 있고 그 영기창의 턱을 넘어 용이 앞으로 나오려 한다. 용의 모습이 사자같이 보이지만 용의 모습은 천태만상이어서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 대좌에도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물은 물(대생명력)에서 탄생한다. 여래도 마찬가지여서 수많은 영기창을 통하여 영기문이 생기며 그 영기문에서 여래와 보살이 탄생한다. 인도의 여신 락슈미의 탄생과 같은 맥락이다.

사진의 작품을 자세히 보시라. 시간이 있으면 프린트해서 투명지를 대고 그려보시라. 그려보면 알 수 있다. 글을 쓰듯이 그림을 그려보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안상이 영기창이고 그 안에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그 대생명력이 가득 찬 공간에서 만물이 탄생한다는 진실'은 지식으로 금방 전달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인식을 거쳐야 체험할 수 있는 경지이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난방모드 겨울철 외기에 의해 차가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모드 여름철 외기에 의해 더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차가운 지열을 이용하여 냉방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 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학생 심리 상담
3. 빙의 퇴마, 원인모른 병, 정신이상, 환시, 환청
4.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011-772-4606 / 031-842-8023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 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부처님만 열심히 불러도 부처님 공덕이 나의 공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비움과소통 펴냄
3만8천원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불

"입으로 늘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들으시며 몸으로 늘 부처님께 예경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보시며 마음으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아시니 중생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부처님도 그리하신다."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말씀들을 모았다. '염불' 은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 중의 하나로,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念)하는 것이다. 염불에는 이법(理法)으로서의 부처님을 염하는 법신의 염불과 부처님의 공덕이나 부처님의 상(相)을 마음에 떠올려서 보는 관념의 염불과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칭명(稱名)의 염불이 있다. 염불의 이유는 염불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어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승에서는 삼매에 들어가서 염불하는 염불삼매의 법을 설하여, 이것에 의해서 죄를 멸하고 정(定)중에 부처를 본다고 하고, 또 정토에 태어나고자 원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정토에 태어난다고 한다. 책은 이 중에서 지명염불(칭명염불)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향하고 있다.

염불이란 원래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말하면 부처님의 이름, 모습, 지혜, 공덕 등을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을 염불이라고 한다. 한편 칭명이란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염불과 칭명은 원래 다른 개념이었는데, 아미타불의 후신이라 불리는 선도 화상이 염불과 칭명을 동일시한 이래로 같은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칭명이 염불의 전부는 아니다.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말씀
부처님 부르는 것은 성스러운 일
"아미타불…" 속에 무량공덕 있어

그럼 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김춘수 시인은 '꽃' 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고 읊었습니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물은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본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등은 큰 의미를 가진 성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며 책은 칭명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불광사 광덕 스님은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의 표현을 넘어 말이 담긴 의미를 실현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목의 성대가 진동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깊이 깃든 진리의 파동입니다. 말은 말로 끝나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며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고, 마음에는 일체성취의 위덕을 지니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말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진리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할 것입니다. 말은 믿음의 표현이며 깊은 마음의 형성으로서 말하는 말에는 그 내용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를 긍정하는 말, 자성공덕에 부합되는 말은 진리자체의 발동으로서 그만큼 구체적 실현력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실상을 긍정하는 말은 진리의 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고 말한다.

아울러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 '잘 될거야' 와 같이 좋은 말을 만 번 이상 하면, 그 말은 진언(眞言)이 되어 알 수 없는 큰 힘이 생긴다고 한다. 하물며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 결 같이 찬탄하는 이름이고, 또 수많은 성현들과 선지식들께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친히 부르며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생들에게도 아미타불을 부를 것을 간절히 권했고, 또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경심을 가지고 우러르며 불렀던 이름이다. 그러기에 아미타불은 사람의 이름과는 달리 무량한 공덕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염불의 의미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염불' 이다. 극락왕생의 정인(正因)이자 정행(正行)이라 할 수 있다. 책의 골간이다. 2편은 극락왕생의 조인(助因)이자 조행(祖行)이라 할 수 있는 '육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방생은 최고의 선법/ 사음(邪淫)만은 하지말자' 이다. 비유하자면 염불이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면 조인인 육식금지와 방생과 사음경계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육식문화의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고, 더 나아가 육식이 얼마나 큰 악보를 만들어 내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날이 갈수록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사음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한 경계의 글들을 모았다. 저자 주세규는 본 책 십만 권을 법공양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 ~ 1/1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다산초당
7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외	불광출판사
8	공부하다 죽어라	정찬주	열림원
9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10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성엄 선사가 말하는 선(禪)이란…

부처마음얻기

성엄선사 말씀 | 대성 옮김 | 탐구사 펴냄 | 1만5천원



"선(禪)은 마음의 본래 성품에 대한 위없는 깨달음이다. 어떤 개념적 관점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선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모든 언어를 남김없이 동원한다 하더라도, 구경(究竟)의 선은 표현할 수 없다. 이는 선이 지식, 상징 그리고 모든 언어 장치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책은 중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렸던 대만의 상엄 선사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주일 단위의 집중적 선 수행인 '선칠(禪七)' 을 여러 차례 이끌면서 했던 수행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은 것이다. 책의 후반부는 불교의 기본 교법인 사성제와 육바라밀에 대한 스님의 강설과 십우도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담고 있다.

"여러분은 선을 공(空)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는 허무주의적 의미의 공은 아니다. 또 그것을 '유(有)' 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본다. 그러니 그것은 틀림없이 있다' 는 상식적 의미의 '유' 는 아니다. 그것은 세계, 모습, 소리, 냄새, 맛, 감촉, 형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 인상이라는 허구들을 초월해 있는 '유' 이다. 그럼에도 이 선은 결코 우리의 일상세계와 별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안에, 도처에, 언제나 거주하고 있다." 이 선은 우리의 본래적 자아에 대한 다름 아니지만, 우리의 자아중심적 망상으로 인해 기억할 수 없는 옛적부터 그것이 시야에서 가려져 왔다. 선불교에서는 이 자아를 '자성', '불성'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이 자아를 드러내고 체험하는 길이 선의 길이며, 그 수행방법들이다. 선은 그 자체 묘사를 넘어서 있지만, 수행자들 자신이 선문(禪門)에 들어설 때까지는 언어를 하나의 교과서로 사용한다. 이것이 이 책의 이유다.

선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상당히 어려운 길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승들은 여름과 겨울 3개월씩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인들은 이런 수행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불교에서는 1주일 단위의 집중수행인 '선칠' 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어, 일반 재가자들도 비교적 쉽게 선 수행을 체험하고 깨달음에 도전할 수 있다.

책은 상엄 선사의 간략한 자전(自傳)으로 시작하여, 선칠에 관한 장으로 이어진다. 견성을 성취하기 위한 '선 수행의 네 가지 조건' 을 수행자의 발심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수행 체험에 대해서는 '공의 단계' 혹은 '깨달음의 단계' 로써 그 체험 단계들을 설명하고, 깨달음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태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한다.

선가의 유명한 시게(詩揭)인 '관심명(觀心銘)' 과 '묵조명(默照銘)' 해설에서는 간결한 언어로 선 수행의 참된 의의를 드러내며, 특히 묵조선의 경지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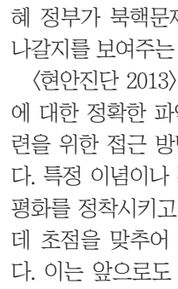
한편, 견성과 관련하여 무아와 진아의 개념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 를 발견하는데, 이 진정한 자아는 바로 우리의 '자성(부처 마음)' 이다. 성엄 스님은 이 자성이 무아이며, 진정한 무아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일 뿐, 깊은 깨달음 속에는 '깨달은 자아' 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가장 철저한 깨달음의 단계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접해볼 수 있는 선 수행의 지침서다.

박재완 기자

한반도의 현안 그것이 궁금하다

현안진단 2013 –천안함에서 NLL까지

평화재단 엮음 | 평재리 펴냄 | 2만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갖추어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고 평화, 민주, 복지의 통일한국을 구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은 사안에 숨은 알맹이를 찾아내는 분별력과 식견을 갖추어 밀려오는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한 잣대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책은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외교전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평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논평을 묶은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 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제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온 〈현안진단 2013〉은 2009년 5월에 발행된 뉴스레터 1호부터 2012년 10월의 60호까지를 엮은 것이다.

2013년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직전, 때를 맞추듯 진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보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2013〉은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균형 있는 진단,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 방법이 여타의 제안서와는 다르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지지 않고 통일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생생한 현장보고서' 다.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통일, 외교, 안보의 복합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로에 선 한국사회', 2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 3장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4장 '동북아시아 전환기의 외교' 다. 심각한 제목들이다. '높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기로에 선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한미정상회담 이후한반도 정세 전망', '천암함 사건 100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60개의 소제목들은 심각한 제목들을 구체화시킨다.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이토록 많았던가. 관광지의 안내책자처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안내서이다.

"동북아 새 판 짜기가 시작되고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적인 시각과 실천의지를 기대해본다." 책은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당부로 마무리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 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주인으로 사는 삶 한 순간도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도법 스님 지음
다산초당 펴냄
1만3천원

너도 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갈망과 절규가 우리를 더욱 더 큰 아픔과 암흑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한마디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저자인 도법 스님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쌍용차 사태,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 사회의 첨예한 분열과 갈등의 현장서 소통과 화합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스님은 자기 자신의 삶부터 직시해서 스스로 명약이 되라고 일갈한다. 교회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면 절하겠다는 심정으로, 청와대에 가서 읍소하라면 읍소하겠다는 심정으로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바로 도법 스님이 갈등과 분열로 병들어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당신에게 직설어법으로 건네는 삶의 지침서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그 누구, 그 무엇, 그 어디, 그 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직면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 자기 본래 모습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면 그곳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스님은 "주인으로 사는 삶을 한순간도 미루지 말고,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마음으로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있는 그곳이 곧 진리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또한 도법 스님은 이 책에서 위로를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에어컨 처방과 비슷해 순간 편할 수 있으나 결국 삶을 왜곡해 바라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착각과 환상에 중독되는 삶을 낳아 고통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는 연습을 권한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도법 스님은 "온통 자기중심의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에만 관심을 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에는 전혀 무관심하기에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하거나 이기기 위해 발버둥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서 일어나는 다반사의 사건들에 언제나 새 각도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오랜 신념조차도 부정하는 용기"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도법 스님은 우리 사회서 가장 그릇된 생각으로 '1등'과 '부자'를 꼽는다. 모두 1등이 되고 부자가 되면 공간적으로 인류 문명이 유지될 수 없는데도 우리는 '1등'과 '부자'



도법 스님이 건네는 성찰의 메시지
현장서 소통과 화합 해답 찾으려 노력
연기법 이해하면 갈등 회복 가능

만을 꿈꾸며 상대를 욕하고, 일상서 스트레스 받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남을 짓밟고 있다.

이로 인해 파괴된 관계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스님은 불교의 팔정도와 연기법에서 찾는다. "정신통일의 세계도 가장 최고의 경지까지 해봤고, 왕자로서 궁궐에서 잔뜩 먹고 놀아도 본 부처님은 양 극단을 모두 경험한 분입니다. 그런 그가 제시한 팔정도의 요지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돼 존재한다는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도법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붓다의 행보를 자주 거론한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 "가장 왕성한 도시, 최첨단의 사상과 문물이 화려하게 거리에 넘쳐나는 강대한 왕국의 수도서 설법을 펼치고 개인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와 완성을 추구했다."며 " 붓다의 출가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완성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완성, 사회적 고통의 극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도법 스님은 4부 즉문즉설을 통해 일상서 우리가 느끼고 답답해하던 궁금증에 답한다. 즉문에 대한 도법 스님의 즉설은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다. 대선 이후 박탈감에 빠진 청년에게 "상대와 싸워서 상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체적으로 하라"고 일깨운다.

이 책은 스님이 현장서 얻은 깨달음과 쉽게 풀어쓴 팔정도, 연기론 등의 불교이론, 붓다의 예화 그리고 각 세대, 계층의 고민을 담은 즉문즉설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게 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 책은 완성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순간 완성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배움과 실천의 메시지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실패의 원인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

코이케 스님이 전하는 마음공부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양영철 번역
21세기북스 펴냄 | 1만3천원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민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것도 다종다양한 고민들이 꽉꽉 들어찬 고민 상자이다.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사소한 고민이든,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무거운 고민이든, 사람들의 머릿속은 갖가지 고민으로 폭발할 지경이다.

이런 현상은 베스트셀러 생각 버리기 연습, 화내지 않는 연습 등의 저자이자 명상법, 마음 수련 강좌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웹사이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코이케 스님이 운영하는 '가출공간'이란 웹사이트의 한쪽 구석에는 '쓰쿠요미지 서당'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스님은 지금까지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많은 사람들과 방대한 문답을 주고받아 왔다.

여기에 게재된 수많은 문답 중에서 100개의 고민을 선별하여 도마 위에 올린 책이 바로 이번에 발간된 〈마음공부〉다. 스님이 척척 내놓는 해답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특별하고 어려운 고민이라 해도 실제로는 비슷한 문제를 그저 형태만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한 스님이 인생의 수많은 고민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서 '뭐야. 내 고민 역시 고민 선반에 진열된 여러 가지 고민거리 중 하나에 불과했잖아'라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다이어트 중인데 군것질을 멈출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의 불행은 꿀맛일까요" "대출 보증 부탁을 거절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주 차이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어요" "말이 너무 많고 일방적인 상사 때문에 피곤해요" "전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등등. 이 책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해결책을 알고 싶어하는 고민들이 가득하다.

사소하지만 끊어내기 힘든 일상의 사소한 습관부터 골치 아픈 인간관계, 직장이나 생계와 관련되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일, 소중한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 '지금'에 집중하기 위한 삶의 방식, 그리고 읽다 보면 웃음이 나오는 재미있고 소박한 질문까지, 이 책은 독자들의 질문을 총 여섯 개 파트로 나누어 차근차근 답하고 있다.

코이케 스님에게 상담을 받으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따끔하게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일 없이 오직 '지금'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각각의 고민이 아무리 특별하고 복잡한 척을 해도 어차피 욕망, 분노, 방황이라는 번뇌 에너지의 조합일 뿐이다.

결국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프로그램에 조종을 받고 농락을 당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저자 웹사이트서 고민상담
100개 고민 선별해 해답 제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강조

항상 자극을 바라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극조차 기분 좋게 받아들여 나쁜 버릇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데, 이런 버릇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른다.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마음의 버릇'을 간파해서 없앨 수 있다면, 즉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당연히 어떤 고민이든지 자유자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종하는 정체를 알아내어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실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조종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착을 벗어던지라고 조언하는 스님은 이 책에서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날린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인 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즉 물건이나 돈은 물론 생각에서 조차도 집착은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한 고민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잠재의식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집착을 벗어던져 고민 상자를 깨끗이 비워보자. 탈출구가 보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허운대사 법 이은 선화상인 참선 법문집

허공을 타파하여 마음을 밝히다

선화 상인 강설 | 정원규 편역 | 불광 펴냄 | 9천원



임제종, 조동종, 위앙종, 법안종, 운문종 등 중국 선종 5가의 법맥을 한 몸에 이은 허운(虛雲) 대사(1840~1959)의 법을 이어받은, 중국 위앙종 제9대 조사 선화 상인은 근·현대 중국불교의 뛰어난 스승 가운데 한 분이다. 불성(佛性)의 자각을 통한 명심견성(明心見性)을 강조한 백장회해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위산영우 선사로부터 시작된 중국 위앙종의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참선법문집이다.

삿된 마의 유혹에서 모두 벗어나 마침내 오온이 모두 공하고 육진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면, 비로소 성불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8부로 되어 있다. 먼저 참선수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무엇이 참된 참선수행이며, 어떤 방법으로 참선해야 하는지, 참선으로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각각 편을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행 중 만나는 경계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된 경계와 거짓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참선 수행자에게 도움이 될 옛 선사들의 이야기도 따로 한 부가 있고, 선화 상인과 제자들이 선 수행에 대해 나눈 문답이 따로 정리되어 있어서 한국의 참선 수행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선화 상인이 남긴 선게(禪偈)가 실려 있어서 상인의 수행 경지를 짐작케 한다. 이 책에서 상인은 참선 수행의 요결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수행에 매진할 것을 경책하고 있다.

근세 중국의 큰 선지식인 허운 대사의 법을 이어받은 선화 상인의 선에 대한 가르침의 요지를 이 한 권에서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살아 있는 중국 선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선화 상인의 강설로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2009),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하)(2012)이 소개되었고, 이 책은 세 번째로 출간된 참선 법문집이다. **김주일 기자**

"탐진치 삼독 불 꺼야 참마음의 등불 켜져"

보림의 숲

일선 지음 | 담엔 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불교TV에서 '수행의 올바른 길, 수심결'을 강의중인 일선 스님의 수행 에세이다. 끊임없이 괴로움으로 저자인 일선 스님은 전남 고흥 거금도 금천선원에서 간화선 실참을 바탕으로 참선 및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일찍이 〈소리〉 〈행복한 간화선〉 등으로 생활속 수행 실천을 강조한 스님은 이번 책에서는 산창에서 느끼는 자연 정취와 일상적 사색에다 간화선 수행을 엮어 책으로 묶었다.

책 제목은 '보림'인데 그 속뜻은 이렇다. 사람마다 차별 없이 갖고 있는 보배는 비록 모양과 이름이 없지만 눈앞에 나타나면 온갖 이름과 모양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부처임을 믿고 깨달으면 일체 밖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나의 안심입명처가 되어 서로 다르다고 싸우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림의 숲'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자가 거처하는 구산선문 보림사의 숲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여러 이웃들을 숲처럼 평화롭게 감싸주고 길러줘 모두가 행복한 공덕림을 말하기도 한다.

이 책은 신문 칼럼으로 실은 저자의 글과 거금도 섬에서 생활하며 느낀 잔잔한 소회, 구산선문 보림사 주지를 지내면서 바라본 사계절의 풍광과 일상속 마음 다스림 등을 소개해준다. 책은 그날 그날의 일기처럼 내용이 잔잔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는 풍경 한점, 비갠 다음날의 깨끗한 풍경 한점이 나를 일깨우는 '수심(修心)'이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한 구절 소개하면 이렇다. "바윗돌은 끝없이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지만 사람은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져야 진짜 불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탐내고 어리석으며 성내는 마음 때문에 불이 꺼져서 어둡게 살고 있다. 지나간 허물을 참회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듯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김주일 기자**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반(6개월)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나. 중급반(6개월)
육친법, 남과여의 육친적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
다. 고급만(실전교육)
격국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 강의 특징: 원리위주, 이해위주, 한글위주, 통변위주 ※

2. 개강일시
가. 개 강 일 : 2013년 3월 13일(수요일)
나.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학기당 30만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6. 강 주 : 현조(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7. 접수기간 :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8.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법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전신의 챠크라 열어드리고 숨통 뚫어드려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절해야 숨고요 마음고요로
거철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쏙쏙 빠져나가는
완전웰빙 심신건강 예방 ,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숨차고, 헐떡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피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절을 잘못 하는 것

⊙ 장 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④ 조동종 맹약이 남긴 것들

점령위한 표면상 연합… 당시 韓 불교 한계

1910년 10월 6일 일본, 조동종 맹약(曹洞宗盟約)이 체결되었다. 당시 한국불교의 중앙기관이었던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 원장 이회광(李晦光, 1862~1933)스님이 일본 조동종과 맺은 7개 조항의 연합맹약이었다. 이 맹약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너나 할 것 없이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팔아넘기는 매종(賣宗)행위로 규정하였다.

조동종 맹약은 몇 가지 의미를 남기고 있다. 첫째, 한국불교를 점령하기 위한 일본의 점진적 노력에 의한 가시적 성과, 둘째,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병합시킨 점, 셋째, 한국불교의 독자성과 자주성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된 점, 넷째, 민족불교 수호를 위한 임제종(臨濟宗) 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한 선학원(禪學院)의 설립이다.

공교롭게도 맹약은 같은 해 8월 29일 합방조약(合邦條約)이 발포된 지 38일째 되는 날 체결되었다.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불교와 친일불교가 본격적으로 일세를 풍미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항일불교와 함께 한국불교가 지닌 독자성 천명과 회복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은 1905년 굴욕적인 을사조약 체결에 따른 항일의병운동 전개, 1907년 반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당시 불교계의 화두는 추락한 한국불교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1908년 3월 6일 각 도 사찰대표 52인이 원흥사에 모여 교단 통할기관인 원종 창종을 결의하고, 종무원을 설립한 것은 그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한국불교가 지닌 정체성이 사라진지 오래였고, 종단 역시 조선시대 연산군과 중종대의 연이은 불교탄압으로 종단 자체가 해체되었으니 원종 창종(創宗)은 그 의미가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챙겨야할 한국불교사를 통관하고 있는 근간이랄까 독자적 이념과 실현방식은 놓쳐버렸다.

우선 '원종(圓宗)'이라는 종명도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었다.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종파체감사론(朝鮮佛教宗派遞減史論)〉에 의하면 이 종명은 "선교겸수(禪教兼修)의 종문(宗門)이라고 한 것이니, 수년 전부터 조선의 스님들이 스스로 종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친일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불교연구회 역시 정토(淨土)를 종지(宗旨)로 삼았고, 정작 원종의 구성원 또한 〈종경록(宗鏡錄)〉의 원종을 취한 것이 아니며,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원종을 취한 것도 아니었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당시의 정황을 조선의 스님들이 어떤 종지를 따라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정토종을 취하고, 일본 진종(眞宗)에 귀의하며, 원종을 설립하고, 조동종과 맹약을 체결하며, 일본 임제종에 부속시키는 등의 일은 들리는 소리에 따라 부화뇌동하거나 손잡고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동종 맹약에 반대하여 임제종을 설립하고 선학원의 이념을 제시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 등이 제시한 "조선에 선교양종이 있지만, 반드시 선종과 교종의 법계가 본래 임제종의 정통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기본적 인식과는 대조된다.

길을 나서기 전 목적지와 이정표를 챙기지 못한 당시 불교계의 종지·종통에 대한 혼란은 적어도 1941년 선학원이 개최한 유교법회(遺教法會)직전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조계종(曹溪宗)이라는 종명은 찾아볼 수 없고, 기껏해야 '조선불교선교양종'이니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불려지곤 했다. 허기를 달래는 것에만 골몰하여 골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원종 창종… 불교계 결집 발원

사찰령 추진으로 인가 유보

결국 한국불교 독자성 와해

조동종 맹약 다분히 친일적

원종 고문 다케다 실권 장악

韓불교 日불교에 '매종' 평가

민족불교 수호 운동 도화선

임제종 계승 선학원 설립 계기

一. 조선 전체의 원종 사원(寺院)대중은 조동종과 완전하고 영구히 연합 동맹하여 불교를 확장할 것.

一. 조선 원종종무원은 (일본)조동종원(曹洞宗院)에 고문을 위촉할 것.

一. 조동종무원은 조선 원종종무원의 설립 인가를 얻게 하는 알선의 노력을 취할 것.

一.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의 포교에 대하여 상당한 편리를 도모할 것.

一.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무원에서 포교사 약간 명의 인원을 초빙하여 각 수사(首寺)에 배치하여 일반 포교 및 청년 스님의 교육을 촉탁하고 또 조동종무원이 필요하여 포교사를 파견할 때 에는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무원이 지정하는 땅의 수사(首寺)나 사원에 숙소를 정하여 일반 포교 및 청년승려 교육에 종사케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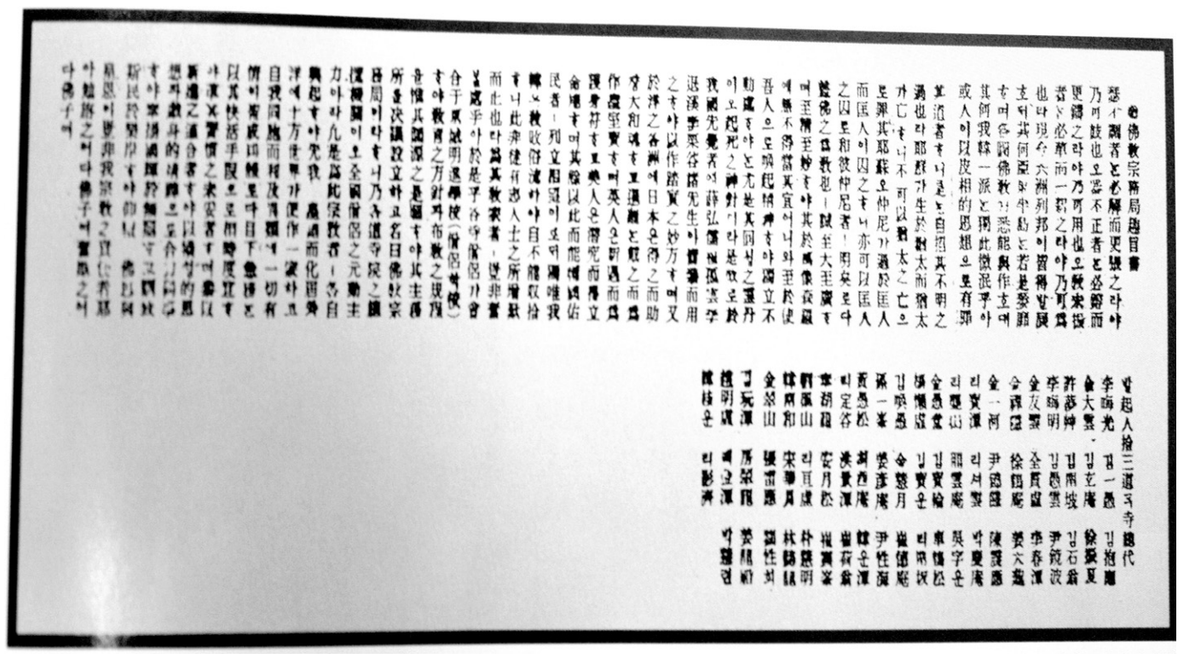
一. 이번의 동맹 체결은 쌍방의 뜻이 맞지 않으면 폐지, 변경 혹은 개정할 수 있음.

一. 이번의 동맹체결은 관할처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널리 알려진 맹약 7개조항의 전문(全文)이다. 마지막에는 양측의 대표자 이회광과 히로쓰 세쓰조(弘津說三)의 이름이 적혀있다. 조문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당시 맹약의 체결과정과 원종의 처지가 나타난다. 세 번째 조항에는 '조동종이 원종의 설립인가를 얻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원종에 대한 공식 인가는 한국의 최초이자 대표종단임을 천명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불교계를 통일시키고 결집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사찰령이라는 새로운 불교정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가 청원에 대해 유보하고 있었다.

결국 사찰령으로 인해 한국불교계가 일본의 조동종과 연합해 결성하거나, 진종 등에 몰래 들러붙는 맹약, 임제에 부속시키거나 원종 등을 창립하는 등의 행사는 모두 다 와해돼 버린 것이다.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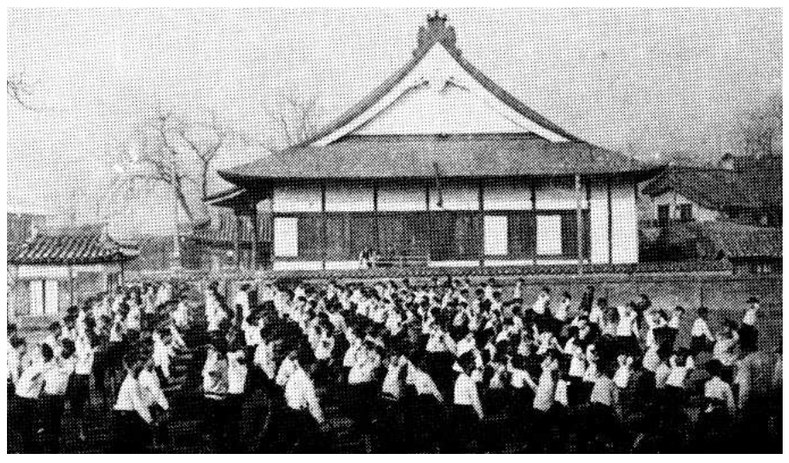
다음 첫째와 둘째, 넷째와 다섯째 조항은 원종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맹약의 배후에는 일진회(一進會) 회장 이용구(李容九, 1868~1912)의 추천으로 원종의 고문이 된 다케다 한시(武田範之)가 있었다. 다케다는 1904년 조동종의 한국포교사로 임명되었으며, 이용구를 만나 한일합방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나 동학농민전쟁에도 가담하였으며, 원종의 설립 이후 고문으로 있으면서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용구와 다케다, 그리고 이회광 스님의 성향으로 미루어본다면 그 출발부터 친일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이나 독자성 실현은 엄연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908년 3월 17일 매일신보에 소개된 불교종무국 발기 취지서. 이취지서는 원종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발기인이었던 13도 사찰의 대표 명단도 실려 있다.



일본불교 조동종 승려로서 한국 원종의 이회광과 이른바 조동종맹약을 체결케 한 다케다 한시. 그는 당시 원종의 고문이었다.



1910년 조선불교중앙회소 겸 중앙포교소로 활용되었던 각황사 전경. 원종종무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당시 종정인 이회광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오로지 모든 사찰을 통일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이회광 스님은 13도 사찰을 대표하는 원종설립의 신고서를 한성부윤(漢城府尹)에게 보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자 일본불교의 원조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급기야 1910년 9월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장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이시가와 소도우(石川素童)를 만나 합병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이시가와 관장은 한국불교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등한 연합은 곤란하니 일정기간 조동종에 부속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회광 스님은 연합의 위임을 받았지만, 부속의 위임은 받지 않았다고 고집하였다. 스스로도 제안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맹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조동종 관장 아래의 종무대표와 맹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불교계의 통일과 결집의 염원에서 이루어진 골육책이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불교계의 대사회적 지위, 해금이후 불교계에 산재한 과제였다. 성급하고도 순진한 판단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조건이었다.

〈조계종사〉 근현대편은 스님이 원종의 조동종 부속 제의에 연합을 고집한 것에 대해 "이회광 종정의 마지막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으며, "원종 설립인가 문제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준다"고 하였다.

반면 정광호는 "1600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한 셈"이라고 하였으며, 최병헌은 "표면상으로는 연합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명맥히 원종을 조동종에 병합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조동종 맹약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크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곧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곧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함 월 선 원 (참선수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찾는 수행공간
생활속 수행을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052)243-4900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한글본 대장경 구합니다

031)386-1569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황토, 상황氣, 참숯, 참솔잎, 뜸,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뜸,
배에는 전단뜸, 앉아서 좌훈뜸,
편안히 무릎뜸, 상황버섯
48시간 달인 물로 황토 반죽
직접 수작업 허리 관절 혈액순환
여성질환 잃어버린 건강 꼭 찾아
장수하세요.
www.wellgang.co.kr
운봉사 011-573-4438

관상 •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
-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 없음)
-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천도재,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조용한 암자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 약간명을 선착순으로 모집니다

– 대상 : 빙의, 우울증, 불면증, ADHD(주의력 결핍장애), 틱장애, 불안장애 등 병원치료가 어려우신 분.
010-9034-2727(금강선원)

경자생 비구 사찰 및 포교원 운영 소임원함

사주명리 명상치유 등의 방편력 보유
010-4876-1042 성진

천년고찰 고성 운흥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종무소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강남)
40대 전후, 컴퓨터 사용 가능하신 분
010-8943-41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진해, 70세이하)
010-2230-4949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비구 부전스님 (50세 미만) 모십니다

(마산)
010-3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010-8954-80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김천
010-7178-0700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월 14일(목) 저녁반, 3월 15일(금) 오전반, 3월 19일(화)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50대 비구입니다 운영 못하는 사찰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 사주는 이름 나이 없이 띠만 알면
부처님 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빙의 성격 사주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033)731-6617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봉사자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가정, 회사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치매, 암예방, 가족갈등, 대학입시, 취업기도, 비만, 스트레스, 새학기 입학기도.
010-2353-2010, 010-6703-9904
010-3033-8889, 010-5523-9181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비구니 총무스님 모십니다

(경기, 50세미만)
011-9491-9227

비구니스님(30~50대) 모십니다 공양주(50~60대)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2297-1919
02)516-915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부석암
● 주 지 : 필아 (김남홍)
● 주 소 : 경기 이천시 사음동 산 40–2번지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3월 2일 (토)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한·중·일 명리 이야기

도자기는 청자와 백자 명리학은 한국의 戊山이 다시 쓴다!!!

자평진전, 궁통보감 적천수,
명리요강, 사주첩경
대만의 하건충 화제관주 저서
국내 출판물 비평과 보충

대 상 : 강호고수, 스님, 대학교육원교수, 유치원 원장, 초중등상담교사, 한의사, 정신과전문의 기타관계자
기 간 : 3월 ~ 8월 (6개월) 1주 1회
분 류 : 최고급, 중급, 입문자
강의장소 : 서울, 대전, 부산
질문과 토론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중학교 內
일 시 : 2013년 3월 3일(일) 오후 2시
문 의 : 010-5858-1191
042)628-2191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 강 일 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사람,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 부모나 형제 · 자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나는 존경받는 성자' 라고 자칭하며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 숫타니파타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의왕
- 법당 : 50
- 요사 : 60
- 대지 : 1000
- 종각,가액 8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700
- 가액 : 15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목조)
- 요사 : 50평
- 부지 : 2000평
- 전세금 : 3억

유명관광지 점 ,문화재 보유 사찰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조정가)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 요사 : 70평 (법당 및 요사채 신축허가필)
- 부지 : 1,30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2천만원 / 월 3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010-6505-8004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중부동 부근
- 전철 도보로 6분거리, 교통편리, 시장부근
- 평수 54평, 법당시설완벽, 공양간, 방3, 화장실1
- 가액: 전세 40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483-3037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국립영천 호국원 정문앞
- 대지(개인유지)1070평 (676평 분할가능)
- 주차장 150평완비
- 가격은 절충, 연락요망

010-5633-8768

광 양 토 굴

- 위치: 전라남도 광양읍
- 평수 대지 100평
- 법당(삼존불, 탱화, 산신)방 4개
- 시설비 2000만원(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96-7737

사 찰 안 내

- 태백산 산신도량
- 대지 179㎡
- 조립식 건물 별도 산신각 1동
- 금액 9300만원

011-9794-5815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

051)412-040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57-24
- 최고급법당인테리어
- 법당내집기, 가구, 소품 포함
- 방2, 법당1, 화장실 등 사행활가능
- 보증금 2,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조절가능) 월세50만원

010-7767-13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8천 7백 5십만원. 절충가능

054)43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 북정동
- 평수 약 50평
- 방3, 부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900만원(절충가능)

010-5716-1032

포교원 및 토굴 안내

- 치악산 맑은 물자락 산자락
- 명상 기도 공부할 수 있는 별장식 도량
- 위치: 강원도 원주
- 대지 120평, 건평 90평
- 3층건물
- 가액 3억 5천만원

011-9917-70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보현산 천문대 입구
- 대지 200평, 건평 35평
- 방3개, 창고3동 • 올수리
- 삼존불, 후불탱화
- 주변에 소나무 숲 저수지
- 전세 3천만원, 시설비 없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5만원

011-729-6011
010-6253-6982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시장앞
- 평수 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불문스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 3층건물의 3층
- 평수 40평
- 법당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2천만원(조절가능)

010-4918-89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 3층건물의 2층
- 평수 40평
- 법당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2천만원(조절가능)

010-4918-8921

밀양 암자 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전화 후 상담

010-4619-2600

포교원안내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가 큰대로변 남항동 시장 옆
- 3층중 2층 38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1000만원)
- 불, 아미타, 약사, 관음, 지장

010-4880-15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 앞
- 4층의 2층. 약 20평
- 방2개, 부엌, 삼존불, 지장불, 아미타불, 관음불, 탱화 지장불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5백만원, 달세 無 시설비 1천2백만원

010-7929-7790

포교원(급)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3층 90평
-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시설완비, 15년 이상된 포교원, 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떠남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700만원

010-3679-1080

포교원안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동
- 평수 30평
- 방3개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5천만원

010-2670-40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5평, 지하 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천만원 포함)
- 비구니 스님 도량 최적지

010-3194-37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마산역 3분거리 시장안
- 삼존불, 신장 모셔져 있음
- 14평 2층
- 전세 3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3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042-10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영군 남지읍
- 대지 400평 요사채 32평
- 방4, 현대식 부엌, 화장실
- 법당 20평(건물별도)
- 대웅전 불사 200평(토목공사 완료)
- 주차장 7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7-575-1194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금천구 독산동
- 평수 30평, 5층건물에 4층
- 도시가스 완벽,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있음

010-8938-753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평수 69평 • 1층 요사채 28평 (공양실, 방3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8평 (스님방 1개)
- 종무소 4평
- 가액: 3억 4천만원 (은행 융자 1억 4천만원 가능)

010-5675-171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역 각 10분거리
- 건평 1층, 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2억 3천만으로 수정 (융자 1억포함, 절충)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논산시 연무IC 부근
- 대지 125평
- 건물: 법당, 공양간, 산신각, 요사채 (합 4동)
- 가액: 1억 2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7

포교원(급)안내

- 위치:경남 양산 남부동
- 3층건물중 3층 • 총평수 34평
- 인근시장 도보 5분거리
- 시청 도보 10분거리
- 가액: 보증금3천만원 월30만원(시설비 3백만원)

010-5285-0781

광진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사찰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7억

- 위치 : 강원
- 부지 : 17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양도 : 3억8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건평23평 대지100평외 과수원밭 1,500평(6년생사과나무 250주있음)
- 아주예쁘게지어놓은 황토집이며 법당
-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마음 상태 알아차리면 깨어 있는 수행”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4〉 홍원사 반야 수행반



강원도 원주에 보리동산 설립을 계획중인 홍원사 주지 성오 스님

불교 포교의 사각지대라 일컫는 서울 강서구에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도량이 있어 눈길을 끈다.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10년 동안 남방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와, 10년 이상 한국에 위빠사나 수행을 알려온 주지 성오 스님이 이끌고 있는 곳이 바로 홍원사의 반야수행반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수행처를 개방 좌선-행선-점심공양-법문-좌선으로 수행이 진행된다. 2월 14일 오후 2시 홍원사 2층에서 진행되는 반야수행반에는 30여 명의 재가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다.

스님은 부지런히 정진해서 윤회의 길을 벗어나 진리의 길로 갈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세상의 길과 진리의 길 둘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 가르침의 길을 가야 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도 윤회의 길이 계속 연결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수행을 통해 자신을 닦아 하루하루 향상된 나를 만들어 담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법문이 끝나자 명상종이 울렸고 일제히 위빠사나 수행에 들었다. 홍원사 반야수행반은 기초교리강좌 정도를 이수한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원 스님은 처음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절이나 염불을 통한 참회 기도-자비명상-사마타 수행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전한다.

스님은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분에 넘치지 않고 본 수업에 임할 수 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위빠사나다. 질투 미움 분노 등을 참회를 통해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사마타 수행을 통해 온전한 삼매의 경지를 체험하면 위빠사나 수행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한다.

10년 이상 남방불교서 수행한
주지 성오 스님이 지도
목요일마다 좌선과 법문
자비명상 · 사마타 수행 진행

이에 홍원사는 6월과 10월 자비명상 과정을 열고, 인터뷰 등이 포함된 8월 집중 명상을 통해 수행을 다지는 과정을 갖는다. 스님은 이런 수행 과정을 거쳐서 일상에서 나를 살펴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면 자연히 공부가 된다. 스님은 “내 마음이 즐거운가 괴로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살피면 그것이 깨어 있는 수행이고 일상에서 살아 있는 공부가 된다”며 “이것이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속에서 자신을 지켜볼 수 있고 자신을 닦아나갈 수 있는 수행”이라고 전한다.



홍원사 반야수행반은 매주 목요일마다 좌선 법문 등으로 수행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홍원사는 6월 · 10월 자비명상 과정을, 8월에는 집중정진을 진행한다.

홍원사에서 3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 안홍근 씨는 “몸이 안 좋아서 명상을 하게 된 것이 10년이다. 홍원사와 인연이 닿아 3년째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수행을 통해 화가 줄어들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나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수행의 즐거움을 말한다.

2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 권진옥 보살은 “수행을 하면서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또한 예전에는 왜 마음이 수시로 변할까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마음은 늘 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었다”며 “수행은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나의 잘못된 습을 끊임없이 고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전한다.

앞으로 성오 스님은 강원도 원주에 수행처인 ‘보리동산’을 마련해 지친 현대인들이 수행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스님은 “내년 정도에 한 동 정도의 건물을 짓고 3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탑 속에 법당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3층 건물로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02)2658-31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젠 학생들이 먼저 명상하자고 말해요

10년수행 학원강사 무원향 보살



“수업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도 5분 명상을 시켜요. 명상을 마친 아이들은 좀더 차분하게 수업에 임하죠. 처음에 명상을 어색해 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제가 혹여나 수업 진도에 쫓겨 빼먹기라도 하면 왜 명상을 안 하냐고 되물으며 챙길 정도죠”

어린시절부터 불교학생회 활동 등을 해온 학원강사 무원향 보살이 본격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만난 것은 10년 전부터다.

“그 전에도 명상 수행을 했지만 10년 전 호두마을에서 성오 스님을 만나 사념처 법문을 듣고 본격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게 됐어요. 매일 한 시간씩 수행을 하고 성오 스님이 홍원사 주지로 오시고 부터는 목요일마다 나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도 됐고 또 쇼핑보다는 도반들과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때론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화를 바로 거두어 들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쇼핑광이었는데 이제는 도반들과 차 마시며 수행얘기 나누는 게 더 즐거운 사람이 됐죠”

무원향 보살은 노후에는 명상지도로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그녀는 “인근 학교에서 요가 명상 등을 접목한 강의로 봉사를 하고자 한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2〉 잭 콘필드 ·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회(IM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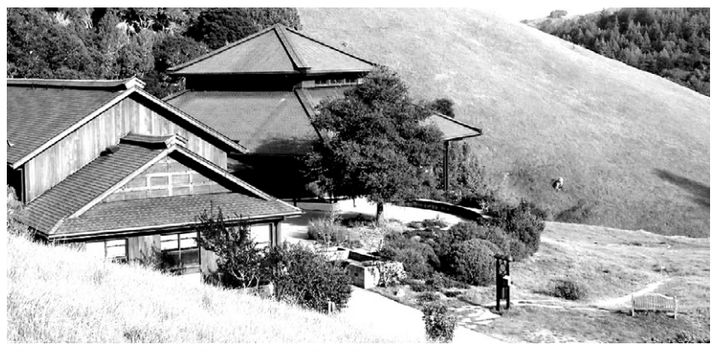
IMS 스피릿 록

美 동 · 서부 위빠사나 수행의 양대산맥

잭 콘필드(Jack Kornfield)와 조셉 골드스타인(Joseph Goldstein)은 1975년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주 바르(Barre)시에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 IMS)를 설립해 위빠사나 명상 대중화를 이끌었다. IMS 설립 후 위빠사나 명상 수련회의 첫 참가자들은 더 많은 수련회를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다르마 재단(Dharma Foundation)을 설립하고 격월간지 〈알고 싶은 마음(Inquiring Mind)〉, 위빠사나 커뮤니티 저널 등의 발간을 도왔다.

이후 재단 구성원들은 1984년 캘리포니아 마린카운티에서 명상수업을 이끌었고, 1985년 서부지구 IMS와의 협업으로 IMS 서부명상센터를 설립했다. 다르마 재단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1988년 우드에이커(Woodacre)에 ‘스피릿 록 명상센터(Spirit Rock Meditation Center)’를 설립했다. 현재 조셉 골드스타인이 IMS를, 잭 콘필드가 록 스피릿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둘은 미국 동 · 서부의 위빠사나 명상 수행지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된다.





IMS 참가자들은 다르마 재단을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 명상센터를 세워 많은 위빠사나 수행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통찰명상회(IMS) 참가자들이 숲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좌)과 캘리포니아의 스피릿 록 명상센터 전경(우).

IMS 참가자들 다르마 재단 설립
계층 · 인종 따라 프로그램 구성
비용은 25~500$까지 다양

동부 통찰명상회(IMS)… 조셉 골드스타인 운영

매사추세츠주의 외딴 시골마을에 자리잡고있는 IMS는 한마디로 종합 명상센터다. 수행센터(Retreat Center)와 숲속 휴양지(Forest Refuge)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도원을 개조해 만든 수행센터는 주말 단기프로그램부터 3개월 장기프로그램 등 명상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큰 호숫가 옆에 마련된 숲속 휴양지에서는 수행은 보다 적게 하고 안식위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도교사는 수석법사, 일반법사, 외부강사 등으로 50여 명이며, IMS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승가에 의존하지 않고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IMS는 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그동안 열린 수련회를 보면 남성 · 여성 · 가족 · 동성애자 · 유색인종 · 미혼자 수련회 등 다양하다.

수행센터내부에는 객실과 식당 명상관 등이 마련돼 있으며 음식은 모두 유기농 채식으로 제공된다. 비용은 1박 평균 80~10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IMS의 모토는 1995년 잭 콘필드가 명시한대로 ‘진정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수행을 가능한 단순하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의식, 가사 착용, 염불, 종교적 전통을 다 생략하고 명상 수행만 전념하게 하고 있다.

서부 스피릿 록 명상센터… 잭 콘필드 운영

1988년 설립된 ‘스피릿 록’은 1990년에 대형 명상홀, 관리사무실, 숙소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는 주방 겸 식당을 마련하고, 2일에서 2개월 동안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피릿 록은 설립 후 참가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는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 종일 수행 또는 장기간 거주하면서 수행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스피릿 록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회원이 스피릿 록의 발전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달라이라마, 틱 낫한을 비롯해 람 다스 등 영적 지도자들이 스피릿 록을 다녀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스피릿 록은 불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빨리어 경전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념처경, 호흡을 통한 마음챙김, 자애 명상을 포함한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친다.

특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세분화돼 있어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 · 단기 등 기간별 분류부터 개인 · 가족 · 여성 · 남성 · 직장인 · 사회활동가 등 다양하다.

△영 ·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 △중 · 고등학생 프로그램 △유색인종을 위한 집중침묵명상 △불교기초교리 △불교와 심리학 △수행심화반 등의 커리큘럼이 눈에 띈다. 참가비는 25달러에서 500달러까지이며, 참가자들은 비용을 선지불하고 참가 후 지도교사에게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부금을 낸다. 또한 스피릿 록에 발전기금으로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피릿 록의 교사진은 21명으로 구성돼있고 IMS와 영국의 가이아 하우스(Relax at Gaia House)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방문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여년 이상 명상수행을 하고 4~6여년간 불교경전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스피릿 록은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하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약물을 오 · 남용하지 않는다 등의 5가지 윤리강령을 세우고 엄격하게 교육시킨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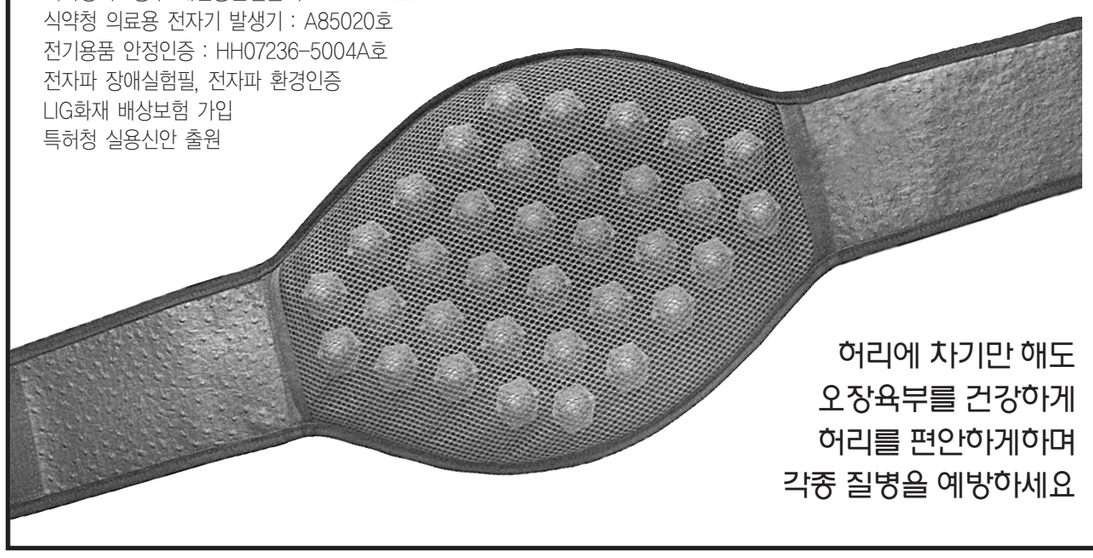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석림에 정착한 석씨 왕가에 붓다 탄생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9)

석씨(釋氏)가 생긴 유래

과거에 울마(또는 의마라고도 한다. 〈잡아함경〉에서는 고마라고 했는데, 방언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라는 왕이 있었다. 왕에게는 본처로부터 얻은 한 명의 아들과 둘째부인으로부터 얻은 네 명의 서자가 있었다.

본처로부터 얻은 장생이라는 아들은 완고하고 경박하며, 또 누추하고 못생겼기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네 명의 서자들은 모두가 총명하고 뛰어난 무용이 있었으며, 큰 위덕을 지니고 있었다. 하여 본처인 왕비는 늘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왕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말했다.

"네 명의 서자들은 너무 뛰어나고 제 아들이 그에 못 미치니, 만약 내 아들 장생이 왕위를 이어받더라도 서자들이 반드시 그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왕께서 네 아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왕이 놀라며 말했다.

"네 명의 아들이 모두 어질고 효성스러워 허물이 없거늘, 그런 아이들을 어째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오?"

왕비가 말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은 사실 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서자들은 영특하고 무예도 뛰어나니 백성들이 각각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각자의 세력을 키운다면 당파를 세우고 서로 왕의 자리를 다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 큰 나라의 왕위는 불안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 무너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부디 저의 청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며칠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론을 지었다.

"당신의 말이 옳소."

그리고 왕은 곧 네 명의 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너희들의 그 뛰어남이 너희들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너희는 각자 속히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각자 살아남도록 해라. 다시는 이 나라를 기웃거리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명의 서자들은 아버지의 명이 야속했으나 칙명을 받들어 이내 행장을 꾸리고 떠날 채비를 했다. 그들 어머니와 동생 자매가 함께 가기를 청하였고, 이때 여러 역사(力士)들과 많은 백성들도 기꺼이 함께 따라가기를 청했다. 그러자 왕이 그 모두를 허락했다.

설산의 변두리에 이르러 직수림(直樹林)에 머무르면서 어머니는 네 명의 왕자들과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몇 년 안 되어서 그들의 덕망이 널리 퍼져 많은 백성이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귀의하는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자들과 그의 어머니는 강대한 나라와 백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나 왕은 내쫓은 네 아들이 보고 싶어 편지를 보내어 불렀지만, 아들들은 모두 사양하며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탄식했다.

"내 아들들이 모두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때 왕은 그 부족의 성씨를 '석'이라 불렀다.(〈장아함경〉에서는 "직수림을 석림(釋林)이라고도 하였으므로, 이 숲으로 인하여 성(姓)을 삼았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네 명의 서자들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단정하다는 소문을 왕이 듣고 말하기를 '이야말로 참된 석자(釋子)로다'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



삽화 · 강병호

이렇게 석씨라는 종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시조는 넷 째 니루왕이다. 이 니루왕이 오두라를 낳았고, 오두라는 가유라위국의 왕이 되어서 구두라를 낳았으며, 구두라 왕은 시휴라를 낳았다. 시휴라 왕은 또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자가 정반왕이다.

구경보살이 도솔천에 있을 때였다. 천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다.

"구경보살을 어느 성씨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할까?"

한 천자가 보살에게 물었다.

"구경 보살께서는 어느 성씨의 집안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구경보살이 대답했다.

"예순 가지 덕을 지닌 성씨라면 내 장차 거기로 내려가리라."

석씨 집안만이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가유라위국 사람들은 대소가 화목하고 상하가 서로 받들고 있었다. 또 나라가 부유하고 화목하여 일승(一乘)을 간절하게 우러렀다. 정반왕은 성품과 행실이 어질고, 성이 구담씨인 그 부인도 온화하고 어질며 충성스럽고 착하여 몸과 입과 뜻을 수호하였으며, 이미 5백 세상 동안 보살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느 날 왕후가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흰 코끼리를 타고 해의 정기를 머리 위에 받치고 태 안으로 들어갔다. 왕후는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마치 깊은 선정에 든 것 같았다. 열 달이 지난 4월 8일 샛별이 뜰 무렵 왕후는 인비수 아래를 거닐고 있었다. 3천국토가 여섯 종류로 뒤집혀 흔들리고 남방 주작의 제2성(星)이 떨어지자 나무가 가지를 굽혀 왕후 앞에 내려오니 왕후는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러자 제천이 꽃을 흩뿌리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가 태어나니 키가 1장 6척이었다. 이내 일곱 걸음을 걷자 보배 꽃이 발을 받들었는데, 손을 들고 멈춰 서서 말하였다.

"천상과 천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동국대역경원 간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⑨



나부터 닦아야

바닷가에서 온 돌

오늘도 나를 점검한다. "아침에 깨어나 도량(내 마음) 청소는 했나요? 지난밤 하얗게 내린 눈(꿈)은 쓸어 내었나요? 도량 곳곳에 놓여있는(망상) 물건들은 다 제 자리에 두었는지요? 쓸기만 하고 닦지는 않았는지요? 양치하고(구업을 참회하고) 세수하여(모습이 깨끗하여) 기분이 상쾌해 졌나요? 옷매무새는 단정하게(단정한 몸매) 입었나요?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침에 일어나 먼저 도량청소(내 마음 청소)를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살기를 서원함이며 그것이 곧 작고도 큰 수행이리라. 내 마음의 도량을 늘 살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 모두 소멸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나와 나의 주변 모두 행복하리라.

물을 보며 물을 배운다. 물은 차별이 없어 누구에게나 갈증을 풀어주고, 어떤 더러움도 다 씻어준다. 밝은 가로등을 보면 나도 가로등이고 싶다. 밝음이 차별 없어 누구에게나 밝게 비춰져 어둠을 지우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니 나도 그런 삶이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 합니다"고 용서를 구하고,

각자 본래 자리가 행복한 자리
부처님 알게 된 인연 늘 감사

부끄러움을 고백하여 잘못을 참회하며 "사랑합니다"라는 말로서 미움이 사라지게하며,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리움 되게 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스승이 되게 하며,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며,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바꾸고 가꾸어 보살의 행을 익히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나는 얼마 전에 생각 없이 한 행동을 후회한 일이 있다. 막내 가족과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했었다. 우도에 갔을 때 해변의 하얀 모래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래 속에는 공기돌만한 예쁜 돌들이 있었다. 너무 예뻐서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 욕심이 들어 10개 정도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 그 돌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보았다(어쩌면 돌들에게 미안하다는 나의 마음이기도 하다)

"우도에서 가져온 돌들에게. 바닷가에서 주워온 아니 가져온 하이얀 돌들을 보고 있노라니 파도소리 철썩이는 바다가 그리울 것 같다. 어쩌면 좋으니? 너희를 이 먼 곳까지 데려왔으니 어쩌면 좋으니? 지금 바다가 그리울 너희들!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그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 내가 잘못 했구나. 나 혼자 바다가 아닌 집에 두고 본다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게 되었네. 비록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부서져도 너희는 그 바다가 좋을 텐데 말이다. 가까우면 다시 데려다 주고 싶다. 이젠 무엇이든 탐내지 말아야겠다.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제자리에 그대로 두어야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누리고 살듯이, 모든 유정무정들이 각자 본래 자기의 자리가 행복 할 터이니. 보이는 모든 것을 귀하게 보는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보살의 삶이기를 서원한다."

내 삶의 행복

신심이 돈독한 불교 집안의 부모를 만났음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스승님을 만났음이며, 좋은 도반을 만났음이며, 착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감이 내게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라 믿고 있다.

나의 빈약한 지혜에 햇빛 같은 진리의 가르침이 온 몸 가득히 담을 수 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기에 오래 전부터 새벽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가끔은 내가 부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지금도 잘 한 일보다 잘못한 일들이 더 많은데, 만약 내가 부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내가 나를 사랑함도 바로 이런 까닭인 것이다.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다. 언제나 보약의 환을 짓거나 경옥고를 지을 때에도 그 당시 큰스님들께 먼저 공양 올리는 일상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부처님 품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한 인연으로 전 종정이신 고암 큰스님과 경봉 스님, 월하 스님 수산 스님, 청담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을 쉽게 뵐 수 있었다. 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각종 수련대회며 불교행사에는 빠짐없이 동참하는 열정도 가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른 스님들의 보살핌으로 연꽃모임이란 모임도 만들고 부부 함께 초파일 등을 달기 위해 해인사 다니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언제나 밤새워 함께 갈 사람들의 밥이며 찬을 만들고, 부처님 회상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바로 내게 더욱 굳건한 신심이 되어주곤 했다. 그래서 한 번 나들이의 성공이 더 큰 원력으로 이어지곤 하였기에 나는 너무도 행복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야 누구나 있는 일, 그일 조차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인연의 충실함을 잊지 않았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결과가 되곤 했다. 조상이 있어 내가 있음이며 스승님이 있어 내 불법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며, 내가 있어 내 가족 있음에 나 또한 함부로 살 수 없음이니 세상의 묘한 인연 관계 오늘도 그로 인한 숙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도 미움도 형체는 없지만 작은 이 가슴은 그로 인해 웃고 또 울게 됨을 알기에 나로 인한 눈물을 남에게는 흘리지 않게 해야 함을 다짐하니 내가 부처님을 믿었음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거룩한 부처님! 나를 잊지 않고 돌아보겠나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대행 스님

될 수 있으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부처님 법을 얘기해 준다면서 웬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나 그러시겠지만, 내 한생각에 오장이 꼬여서 틀어진 것도 펼 수 있고, 오장을 꼬이게 해서 피도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병원에 가고, 또 딴 데 가서 갖은 약을 다 써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게 해 가지고 이 몸뚱이를, 집을 못 쓰게 만들어 놔요? 진짜 목수한테 맡기지 않고 가(假)목수한테 맡겨 놓으니까 저희들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좋아야지 딴 사람에게 좋아서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고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 모든 점에서 빛나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 드려야만이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다 놓을 수 있고 감사할 줄 알게 될까 하는 생각이 아주 불현듯 납니다. 사계절이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봄이 돼야 되죠. 이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이 있지만 진짜 안다면 사계절이 없습니다. 항상 봄이죠. 여기에서는 불을 껐다 켰다 하니까 '켜라' '꺼라' 하는 언어가 붙지만, 어떤 세계에서는 항상 밝기 때문에 '꺼라' '켜라' 하는 언어가 붙질 않아요. 그 도리를 아시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앉고 싶을 때 앉고, 이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참선이다 이런 거죠.

애들한테 '공부해라. 너는 어디 가라. 서울대학 가라.'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알고 보면 여러분은 오히려 나중에 난 겁니다. 대의적으로 본다면 나중 난 것도 없고 먼저 난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듣기에는 횡설수설하는 것 같겠지만 마음으로 새겨들으세요. 여러분이 늙어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애를 낳았죠? 그런데 그 애는 벌써 여러분보다 먼저 늙어서 또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앞으로 또 나올 건데 걔는 먼저 늙어서 벌써 어린애로 탄생했으니 늙고 젊고가 없이 영원한 자기 근본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말로다가 해서 복잡하고 무겁게 짐을 짊어지게 한다면 애들을 옴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까 에너지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갑니다.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만 놓으면 저절로, 놔두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할 걸, 잘하러 가는 놈을 부모들이 오히려 붙들고 늘어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식은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어딘가가 좀 비틀어져요. 그러면 이리로 갈 건데도 저리로 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잘 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볍게 해 주세요. 자기가 사는 거지 여러분이 끼고 사는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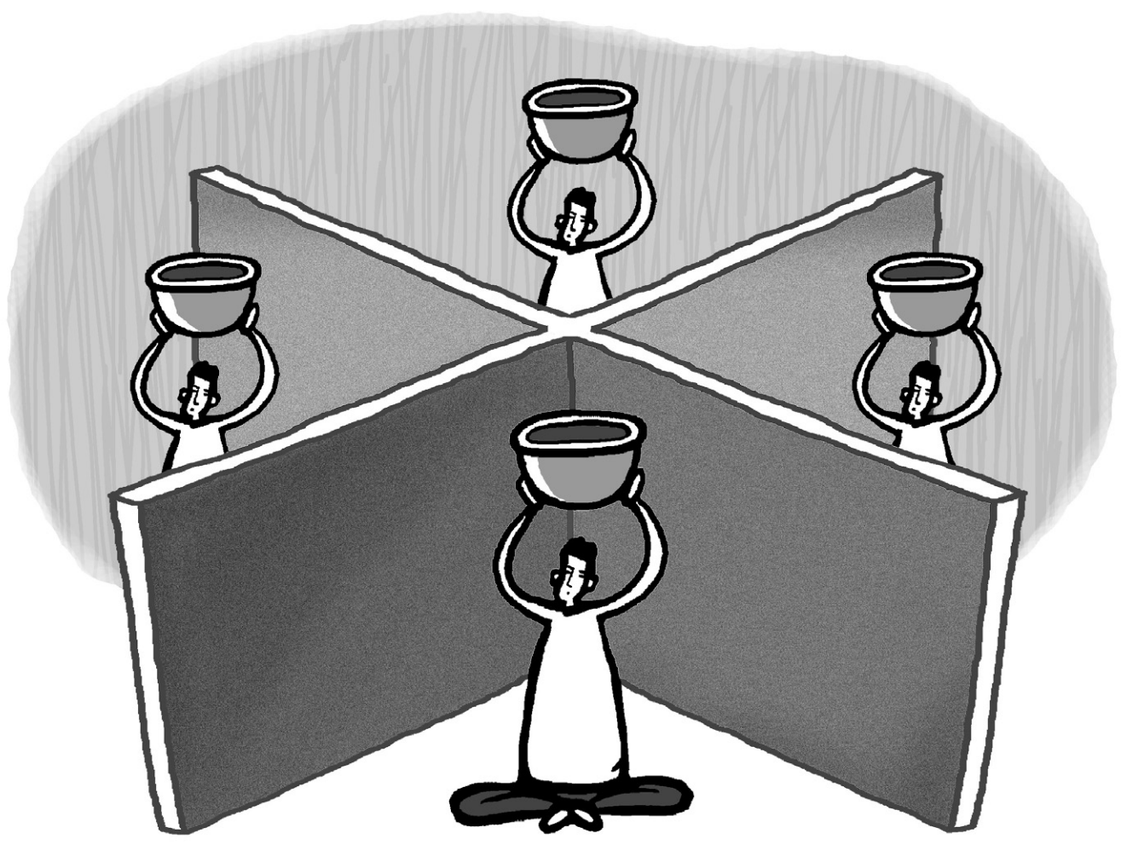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는 몸뚱이도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고 또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대신 아파 줄 놈도 없고 대신 똥 누어 줄 놈 없고, 또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잠자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어요. 이 다섯 가지는 누구라도 대신 못해 줘요.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도요, 제가 아침 공양을 하지 않고서 그냥 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시장기가 드니까 골이 아파요. '야, 골이 아프구나. 골이 안 아파야지.' 하고 쓰다듬어 주는 이 고마움. 여러분은 그 고마움을 모르죠? 내 손이, 내 마음이 나를 위한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리 부부지간에 절친하다 못해 천하없어도, 부모자식지간이라고 해도, 효녀 효부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진짜 자기한테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다는 말 못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응, 그래. 그래, 참 잘한다." 하고 말하거든요. 모든 게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능력을 기르면 돈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파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든 부자든 탐심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억만 냥을 내가 지고 있어도 관리인이지 그거를 탐착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니까 돈이 자꾸 오죠.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쫓아다니지 않는다면 오지만 자꾸 쫓아가면 자꾸 달아나가요. 이상한 마음들이죠, 모두.

그러니 여러분이 낚시질을 해도 좀 잡히게 해야지 마음을 조급하게 내면 고기가 낚싯밥을 먹지를 않아요. 조급함이 없이 인내 있고 믿음직하게 하시면서 자기 몸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가 콩싹이라면 그 콩싹에 콩씨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로 거기서 세세생생에, 올해만 사는 게 아니라 내년도 그 콩씨로 인해서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콩씨가 팥씨도 될 수 있고 팥씨가 콩씨도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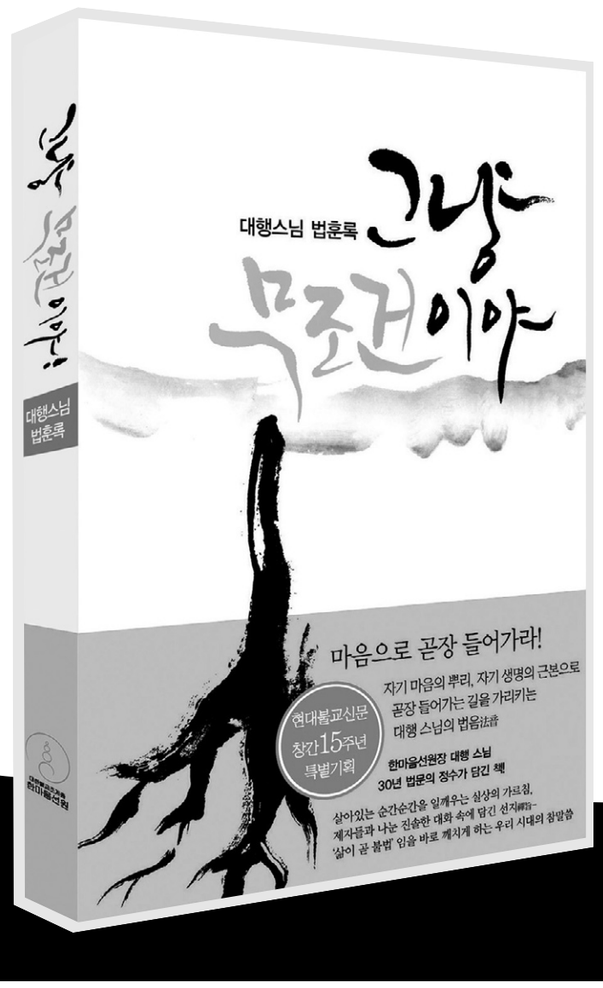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이런 얘기 해 드리기도 하지만 전설의 고향에서도 가끔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방 부모가 됐다가 금방 그 부모가 죽어서 그 대에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의 아들도 될 수 있고 남의 집 손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억겁을 거쳐서 미생물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인간이 되기까지도 이렇게 쫓기고 쫓으면서 어렵게 왔는데, 피땀을 흘리면서 이날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렵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도리를 알고 자유롭게 몸을 벗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위로 부모 조상들이나 아래로 내 자녀들을 다 이끌어 줄 수 있는 바탕이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손자가 태어나도 그렇고 손녀가 태어나도 그렇고 다, 그 대에 사람 노릇을 못하고 기둥을 붙잡고 모로 서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식도 손자도 위 조상도 전부 남입니다. 그 남을 위해서, 아니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지만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산에다가 그냥 내다 놨기 때문에 뼈다귀 무더기가 많았답니다. 석존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모퉁이를 도시다가 그 뼈무더기에 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그런 하찮은 뼈다귀에다가 절을 하십니까?"라고 했겠죠. "이 뼈다귀가 전자의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잘났든 못났든 내 몸 있을 때 이 마음도리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제자들이 "미처 이런 뜻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를 땅에다 대고 흐느껴 가면서 울었답니다. 전자에 있었던 옛날 얘기로 듣지 마세요. 지금 현재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그 한 찰나 한 찰나를 모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가 참, 그 뭡니까? 두꺼비가 뱀이 되고 뱀이 두꺼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치도 있습니다. 뱀이 두꺼비가 됐을 때는 자기가 전자에 뱀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뱀이 자기가 앞으로 두꺼비가 될 줄 모르거든요. 자기가 하는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두꺼비는 욕심이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구렁이한테 가서 일부러 먹히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요. 그러한 그 욕심 탐착! 많이 낳으면 뭘 합니까, 글쎄. 하나가 인연이 돼서 불들리면 그렇게 고기 많아요. 고기 더 많죠. 그렇듯이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매미가 굼벵이가 되고 이랬을 때도 그렇고 모두가…, 소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소가 되고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없죠? 그런데도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런 윤회에 항상 끄달리고 얽매이느냐, 귀신으로 사느냐, 저런 짐승으로, 개로 사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아니면 참 멋진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한 것도 아마 여러분이 듣기에는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만 그 도리를 웬만큼만 알면 다 이해가 갑니다. 요점만 따도 벌써 그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무불통지가 돼요. 길이 훤해요.

질문자1(남): 스님 법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은 해 왔지만 노력에 비해 많이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체험으로는 불교는 책이나 법문 같은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큰스님께서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화했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오래된 첫째 조상은 뭡니까? 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30억 년 전의 조상이나 지금 현재 자기의 조상이나 둘이 아니에요.

질문자1(남): 다른 종교에서는 지구나 모든 만물이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길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겁의 윤회를 거쳐 가면서 인간이라는 몸이 만들어졌다고 얘길 하는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자연법칙을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힘이나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큰스님: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라면 보이는 세계가 50%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음과 양이 한데 합친다,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자기 영혼이 거기에 계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성신이 즉 자신(自神)이란 말입니다. 신이 계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신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가 출중하냐 안 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한 법이 있죠.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물로 그 물질 자체가 다 없어지죠.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졌던 그 하나에서 모습을 바꿔서 다시 수억 마리가 된단 말입니다. 두 사람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인간의 몸 하나에 또 수억 마리가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이거는 대표로 대장을 하나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몸뚱이를 하나 내놓고는 그 몸뚱이 속에 내가 수억 마리가 돼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몸뚱이 속에 있는 내가 옳습니까, 현재 나와서 사는 내가 옳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그 생명들과 지금 이 몸의 생명이 따로 있습니까? 예? 내 배 속에 있는, 오장 육부 속에 있는 생명들이 진짜 생명입니까, 지금 내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한마음의 자성신이 수십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나라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50억의 군사가 나라를 먹어치우려고 쳐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이쪽 나라에는 군사가 10억뿐이니 저쪽에 비하면 아주 적은 군졸들이죠. 그러니 저쪽에서 50억이 쳐들어오니 10억으로는 질 게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쪽 나라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50억을 10억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같이 대항하자면 40억이 더 많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생각을 하기를 '모습 없는 모습이여. 그쪽에 50억이라면 나도 체가 없으니 50억이 될 수 있지 않으냐. 모습 없는 내 모습이 그쪽 모습 있는 데로 가서 만약에 내가 된다면 50억이 싸움할 일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생각을 하면서 피리를 부니까 그 50억이 전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싸움을 해서 뭘 하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50억이 전부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그 50억이 돼 가지고 뿔뿔이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기고 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라는 것은 30억 년 전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이나 자성신이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의 놀음은 바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입니다.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예를 든다면, 신이 기름이라면 기름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도둑질을 하러 가든 말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신의 놀음, 즉 마음내는 그 놀음은 이 운전수에 달렸어요.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망해 먹든지 이건 운전수가 끌고 가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 짐승의 허물을 쓰게 하느냐, 다시 사람의 허물을 쓰게 하느냐. 또는 비상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느냐, 또는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느냐.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자연 법계에서 벌써 주어져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사람 살기 귀찮아서 어떡하나.' 하고 말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 유전이 있다 업보가 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 팔자가 어떤가, 운명이 어떤가 이런 거 아랑곳없다는 얘깁니다. 왜냐? 자성신은 생각 내는 생산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에, 즉 말하자면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놓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석에다가 자석을 붙이면 다 자석이 되듯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동시에, 즉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생각을 잘하면 다 녹아 버리는 동시에 생각을 좋게 자기 분수에 맞게 잘 내면 생산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자연과학이라고 '학'을 붙이기보다는 '자연과학심'이라고 할까요. 자성신의 활용이라고, 자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 원통 자활, 즉 내공을 타파한다면 삼심 내공을 타파하게 된다. 사공법을 타파한다면 원통 자활을 하게 된다. 육바라밀의 그 평등공법을 타파하게 된다. 그리고 칠(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도리를 알게 되면, 깨달으면 보배가 딴데 있는 게 아니라 흙에서 일체 만물을 소생시키고 길러 내듯 모든 것은 자기 아님이 없는 까닭에 자기 거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체 전체에 칠보가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속에, 육근에도 육진에도 육식에도, 둘이 아닌 내 한마음 근본에 그냥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 바로 그것이 칠공법의 자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는 것도 뺏는 것도 자유자재한다. 어느 나라든지 망하게 하려면 그냥 삽시간에 망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배우는 사람이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익하게 하죠. 그 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면 자기는 저절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잘 지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시는 것이 좋지요.

또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팔정도라고 하죠. 수레공법을 타파해야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이 몸도 자유스럽고 마음도 자유스럽고, 그래서 걸림이 없이 그 권리가 하늘에 솟은 듯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산 사람이 한 찰나에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찰나에 저승 천자가 되고 한 찰나에 이승 천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재법이 있어야 열반인 것입니다. 스님네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열반이 아닙니다. 살아서 열반을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열반을 합니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해 놓았는데 어떻게 일한 대가를 받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천 년 전의 신이 따로 있고 지금 현재의 자기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신은 능력이 없고 부처님 신만 능력이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기름은 본래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차 끌고 가는 거를 잘만 끌고 간다면, 잘 생각을 해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신, 자성신에 의해서 내 신이 이 우주 공간 안의 어떤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체가 다 될 수가 있고, 천차만별의 신이 내 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해 보지 못했다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을 거짓으로 했다 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법계에 수많은 생명들과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한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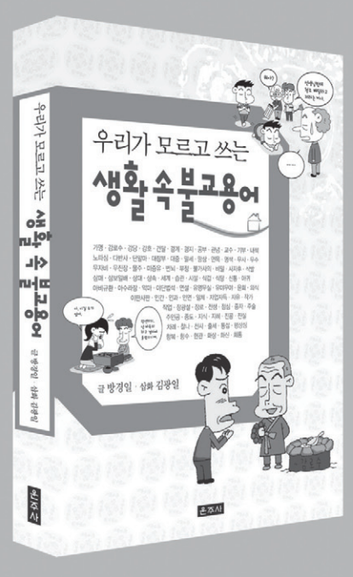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뇌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니까 "야, 이거 못 받겠다. 난 이런 거 안 받는다. 내가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해 줄지언정 이건 받지 않겠다."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뭘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지 않으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없고 나만 있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우주 전체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어찌 없다고 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아는 거를 전체가 알고 있거늘 어찌 그렇게 얍삽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힘닿는 대로 해 볼 테니까 짐 무겁게 해 주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 하나로 인해서 그냥 짐을 잔뜩 무겁게 짊어지고 사시면 아주 괴롭습니다. 알고 보면 괴로운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도 그냥 나는 편안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마 이게 거짓이라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겠죠. 잘 이해해 주십시오. 난 어느 걸 보고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낚시질을 해도
마음을 조급하게 내면
고기가 낚싯밥을 먹지를 않아요.
조급함이 없이 인내 있고 믿음직하게 하시면서
자기 몸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자기가 콩싹이라면
그 콩싹에 콩씨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8년 2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값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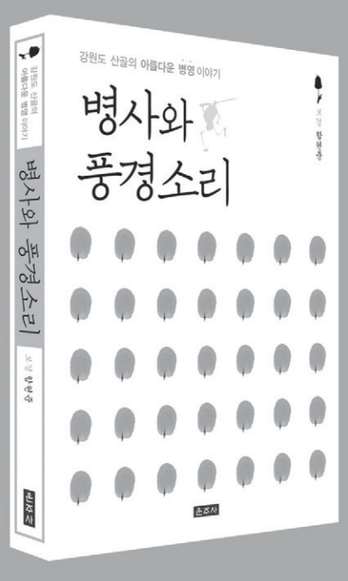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신세대 장병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어떻게 군생활을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
군법사인 저자가 강원도 산골의 병영에서 전하는
병사들의 일상과 군생활의 지혜!

병사와 풍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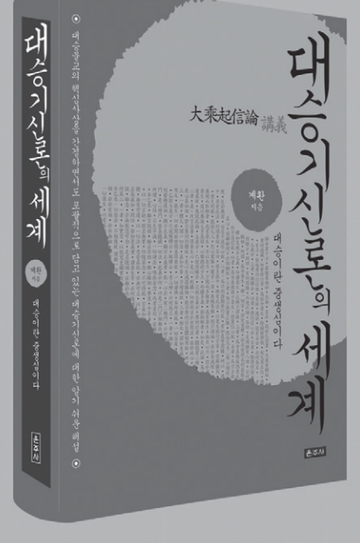
보경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56쪽/값 10,000원



젊은 장병들의 애환과 고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보람과 희망 찾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젊은 청춘들의 훈훈한 이야기들!

전문가와 일반 불자들을 아우르는
알기 쉬운 해설!

대승기신론의 세계



계환 지음/신국판양장/388쪽/값 17,000원

깨달음도 미혹도 중생심 안에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입문서이자 개론서,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이라면 누구나 『대승기신론』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자 세상보기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한 조언



김명준
구로 연꽃어린이집원장

취학 전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적 사회적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학 전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간은 놀이와 학습을 병행함으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지향하여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어린이집 실내 환경요인 중 건물 재료 마감재, 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유발된다는 학계보고도 있다.

어린이집은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 습기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시설물들을 실내에 포함하고 있고 배식을 위한 음식물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균서식과 번식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신축 또는 개축공사 시에는 가능한 천연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환기를 규칙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기정화 기능기기 등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공기질관리의 관련법규에는 어린이집 연면적이 430㎡는 의무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반면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공기질 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과 상관없이 공기질 측정과 석면검사를 실시하여 보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쾌적한 보육환경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장재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을 조사하고 실내 공기 중 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폼알테하이드, 라돈 등의 함유성분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자연환기와 더불어 강제 환기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또한 세균번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한 조리실 화장실 등의 청결과 조리식품의 경우 급·배식 시간을 준수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측정과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많은 기준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선택해야하는 학부모에게 세가지 정도의 선택기준을 조언해 드리고자 한다.

첫째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인가?

평가인증이란 국가의 보육정책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을 위하여 2005년 시범운영을 통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어린이집 검증시스템이다.

평가인증의 평가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 안전 등으로 나누어지며, 국가수준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표준보육과정과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는 최소한의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다.

둘째 개방적인 어린이집인가?

운영위원회, 급식모니터링, 부모참여, 보육실 개방 등 다양한 부모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한다. 처음 어린이집을 경험하는 영유아들에게 부모님의 신뢰감은 바로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을 지속적인 근무기간과 원장의 운영철학은 어떠한가?

영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유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근속하는 교직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기대할수 있으며 원장의 바람직한 운영철학은 영유아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자아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인적 보육환경은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좋은 어린이집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3월부터 실시되는 취학 전 모든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은 우리나라 영유아가 국가적 수준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소속의 어린이집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위의 기준에 부합하며 학부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이다.

社說

장교 포교는 사관생도때부터

이번달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서 불자장교들의 졸업 법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인원을 따져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해에 비해 총 174명에서 175명으로 대동소이 한 육군을 제외하고 해군과 공군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불자 장교들의 숫자가 군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3사관학교 불자생도는 169명에서 150명으로, 간호사관학교 불자생도는 2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면 뭐 그리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군포교 현장서 지휘관들의 입김이 차지하는 비중을 안다면 심각하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지휘관들의 종교에 따라 사병들의 종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교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눈치를 안볼 수 없고 특히 지휘관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일 경우 아예 사찰에 오지 않는 간부들도 의외로 많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김병관 前 군불총 회장도 2007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대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부대 전체의 종교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병들은 중대장이나 소대장같은 중간간부들을 보며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불교 포교를 담당하는 군종교구는 장군 진급과 중대장 부임시 지휘봉을 선물하는 등 장교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구서 종단 신도증을 발행 해주고 교구장 스님이 직접 연락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유발상좌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유발상좌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부대 인근 사찰과 장교가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상좌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불교 차원에서 장교 포교는 사관학교 생도 때부터 불자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문화콘텐츠 발굴 노력 이어져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며,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현대에서 문화의 힘은 기초된 문화를 어떻게 포장해 대중에게 선보이느냐에 달렸다. 소위 'CT'로 불리우는 문화산업기술 역시 한국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됐다.

한국전통문화의 보고인 불교도 2000년 이후 이 같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이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은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역사는 짧지만 여타의 공모전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5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일반 작가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가족 단위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일번 기업과 국가 공모전의 접수 작품 수가 평균 200~300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문화사업단의 공모전은 단일 공모전으로는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이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고 내부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이 문화사업은 대중에게 가장 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포교의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불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문화 원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옥(玉)'으로 갈도 닦는 것이 문화를 만들어 온 조상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불교문화상품을 비롯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생각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오수, 불교서 해법 찾자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3년 가입했고,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그동안 한국은 육상 매립지가 부족해 해양 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음식 쓰레기 폐수, 2014년 산업 폐수와 폐수 오니 등 모든 폐기물 투기를 금지된다.

쌀알 한 톨에서 온 생명의 의미를 찾는 불교의 정신과 추진했던 환경운동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빈그릇 운동 근원지, 정토회

정토회는 생활 속에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이를 회원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불교계에서 전개한 빈그릇운동의 근원지이기도 한 정토회 에코붓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에코붓다는 쓰레기제로, 빈그릇 운동, 지렁이 퇴비화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토회는 환경일지 등을 제공해 회원들이 항목별로 이를 체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권장하고 있다.

쓰레기 제로 운동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뒷물 사용, 면생리대 사용 등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토회는 법당 안에 캔음료, 봉지에 든 식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화장실에는 휴지를 두지 않고 뒷물 사용을 장려한다.

빈그릇 운동은 2004년 9월 '빈그릇운동 10만인 서약캠페인'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빈그릇운동 100만인 서약캠페인'으로 확산됐다. 현재 학교, 기업, 군대, 지자체, 종교계, 시민 사회단체, 정부 등이 함께 하며 150만 명이 서약에 동참했다. 법당 내에서는 발우공양 대신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되 그릇을 깨끗이 닦아 세재 대신 쌀뜨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있다. 지렁이퇴비화 운동 역시 지렁이를 음식물 쓰레기로 키워 지렁이의 분비물로 퇴비를 만들어 화분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 모두는 음식을 적게 먹고 적게 버리는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생태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정토회 에코붓다의 빈그릇 운동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 2007년 에코붓다와 양천구청은 협약식을 갖고 빈그릇 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빈그릇 운동을 지역사회의 첫 종합 적용 사례로 화제가 됐었다.

양천구청은 2006년 하반기부터 양천구 내 동장 이하 각 부서의 과장 등을 대상으로 발우공양 체험,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빈그릇교육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청 구내식당의 잔반량은 교육 2달 만에 70%가 감량됐다.

오수처리 모범 해인사

대표적 수행처이자 관광 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는 사찰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쓰레기 등을 사찰 스스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인사는 상주인보다는 오가는 사람들로 인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찰 내 발생하는 오수를 관으로 연결해 산 아래 공동오수처리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가야산 홍류동 계곡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인사는 발우공양의 절약정신을 살린 식판공양을 함으로서 적절한 양만큼 먹도록 생활화하고 있다.

청정사례로 소개된 진관사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의 정화시설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2005년 불교환경연대 청정사찰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진관사의 오수처리시설은 침지식 막분리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하루 25t의 오수를 처리한다.

설치 후 오수로 인한 악취와 오염이 사라졌다. 여기에는 화학세제·화학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밀가루나 쌀뜨물로 설거지 등 생활의 변화도 한 몫했다. 자연스럽게 외부 반응도 좋았다.

자체적으로 매일 시설 정기점검 및 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분리막 청소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이 책은 현재 모호한 풍수지리 정의에 일대 혁명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풍수의 본질적 실체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살아있는 글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대사를 열거 한다.

우리의 풍수역사는 천백년전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를 시조로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때가 즉 풍수 1세대이다. 도선국사는 그가 생전에 지은 저서들을 제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겨놓고 후대에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그 법통을 잇게 하는 절묘하고 신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500년 후 이조초기 무학대사가 청학동을 찾아들어가 그 법통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 놓았다. 풍수 2세대인 것이다. 그 후로 청학동의 실체를 알아냈다.

모성학지음 / 신국판 / 532쪽 / 정가 23,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원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7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이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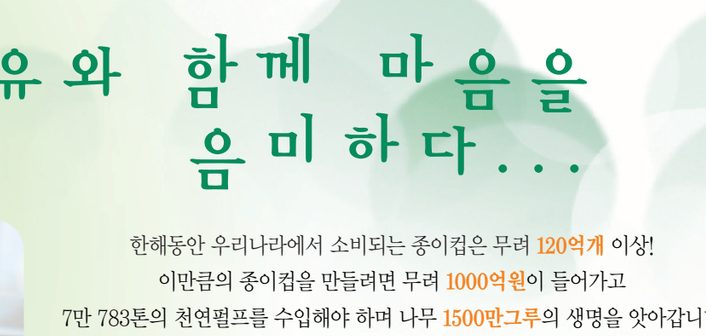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